2026
생태영유아교육 실천포럼

일 시 2026. 7. 14.(화) 13:30-17:30

장 소 포스트타워(서울시 중구 소재) 10층 대회의실

주최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2026 생태영유아교육 실천포럼

프로그램 _ PROGRAM

사 회 |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시간		세부 일정
13:30~13:50	등록	
13:50~14:10	개회 및 환영사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14:10~14:50	기조발제	**K-영유아교육의 미래, 왜 생태영유아교육인가?** **-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리는 영유아교육의 새 길** ▸ 임재택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4:50~15:20	주제발표	**생태영유아교육의 오늘과 내일:**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공공적 확산을 위한 과제** ▸ 김은주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명예회장
15:20~15:40		휴식
15:40~16:00	사례발표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 **- 어린이집형: 아이다움이 살아나는 일상** ▸ 이수진	충북,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원장
16:00~16:20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I** **- 유치원형: 혼합연령반으로 관계가 살아나는 교실** ▸ 강창아	세종, 공립단설 두루유치원 교사
16:20~16:40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III** **- 지자체 연계형: 생태영유아교육 시범사업이 이끄는 생명살림·아이행복 도시** ▸ 권선임	부산,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6:40~17:00		휴식
17:00~17:30	종합토론	**생태영유아교육의 전국확산 및 안착을 위한 실행방안 모색** **좌장 |** 권미량 고신대학교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회장 **토론 |** 전선영 경기, 조현초병설유치원 교사 윤수향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강효민 충남, 생태유아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김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부회장	

2026 생태영유아교육 실천포럼

CONTENTS _ 목차

환영사 황옥경 |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김정연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기조발제 K-영유아교육의 미래, 왜 생태영유아교육인가?
–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리는 영유아교육의 새 길 ····· 1
임재택 |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생태영유아교육의 오늘과 내일: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공공적 확산을 위한 과제 ····· 21
김은주 |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명예회장

사례발표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
– 어린이집형: 아이다움이 살아나는 일상 ····· 35
이수진 | 충북,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원장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I
– 유치원형: 혼합연령반으로 관계가 살아나는 교실 ····· 47
강창아 | 세종, 공립단설 두루유치원 교사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II
– 지자체 연계형: 생태영유아교육 시범사업이 이끄는 생명살림·아이행복 도시 ····· 55
권선임 | 부산,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종합토론 전선영 | 경기, 조현초병설유치원 교사 ····· 69
윤수향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 73
강효민 | 충남, 생태유아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 77
김희연 | 세종대학교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부회장 ····· 81

부록 전국 생태영유아교육 실천 사례 ····· 85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황옥경입니다.

최근 우리 연구소는 아이누리포털 사업을 통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영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다루는 포럼을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산대학교,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생태영유아교육 실천포럼을 주관하게 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행사가 더욱 알차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환영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포럼을 위해 기조강연을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택 교수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김은주 교수님과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 등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태유아교육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지난 30여 년간 자연과 놀이를 영유아교육의 중심으로 회복시키고, 우리 고유의 정서와 실천을 담은 한국형 영유아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생태영유아교육을 단순한 자연 체험 활동이나 특정 지역 및 기관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일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하여 생태영유아교육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교육 철학이자, 모든 영유아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가치로 새롭게 조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 또한 국가 교육 체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이 포럼이 생태유아교육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김정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생태영유아교육 실천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 박원순 박사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 생태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조발제를 해주실 임재택 교수님, 주제발표의 김은주 교수님,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권미량 교수님을 비롯한 사례발표 및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생,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이하여 영유아가 자연과의 관계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영유아가 자연 속 삶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생명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생태영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가정과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때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생태영유아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생태영유아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우수 실천사례를 공유하여, 그동안 실천하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장 확산 및 안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과 제안들이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생태영유아교육 실천 포럼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기조발제

K-영유아교육의 미래, 왜 생태영유아교육인가?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리는 영유아교육의 새 길

임재택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K-영유아교육의 미래, 왜 생태영유아교육인가
: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리는 영유아교육의 새 길

임재택 |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Ⅰ. 아이의 하루에서 K-영유아교육의 미래를 묻다
: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삶으로

존경하는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원장님과 선생님, 학부모님과 연구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K-영유아교육의 미래, 왜 생태영유아교육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는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리는 영유아교육의 새 길'입니다. '제도 개편을 넘어'라는 말은 행정체계의 정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도도 중요하고 관리체계도 중요합니다. 재정과 인력, 자격과 처우, 평가와 지원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이의 하루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리는'이라는 말은 영유아교육의 중심이 제도나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실제 삶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가만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공간에서 숨 쉬고, 누구와 관계 맺고, 무엇을 만지고, 어떻게 놀고, 어떤 밥을 먹고, 어떤 기다림을 받으며 자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영유아교육의 새 길'이라는 말은 생태영유아교육이 일부 기관의 특색사업이나 숲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K-영유아교육이 나아갈 미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제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한 장면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아이는 오늘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흙을 만날까요, 화면을 만날까요.
친구를 만날까요, 교재를 만날까요.
자유로운 놀이를 만날까요, 정해진 활동을 만날까요.
기다려주는 어른을 만날까요, 재촉하는 시간표를 만날까요.
따뜻한 밥상과 편안한 쉼을 만날까요, 사진과 기록을 위한 장면을 만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이의 하루 속에서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미래를 묻고자 합니다. 영유아교육의 미래는 거대한 제도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문서 속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정책 보고서 속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영유아교육의 미래는 오늘 아이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마음껏 뛰어놀았는가.
흙과 바람과 햇빛을 만났는가.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며 관계를 배웠는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을 만났는가.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 몸을 마음껏 움직였는가.
그리고 오늘, 살아 있다는 기쁨을 느꼈는가.
그 아이의 얼굴빛과 눈빛이 살아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교육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 책임을 새롭게 정비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제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 아이의 어떤 하루를 담을 것인가.
어떤 놀이를 담을 것인가.
어떤 밥상과 산책과 쉼과 관계를 담을 것인가.
교사의 어떤 삶을 담을 것인가.
부모의 어떤 믿음과 기다림을 담을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생태영유아교육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단순히 자연놀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부 기관의 특색사업도 아닙니다. 잠시 유행하는 교육방법도 아닙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아이의 삶과 놀이와 생명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아이를 다시 자연과 만나게 하고, 친구와 만나게 하고, 자기 몸과 마음과 얼을 만나게 하는 교육입니다. 자연의 섭리, 사람의 도리, 조상의 육아지혜 속에서 아이가 몸·마음·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II. 왜 지금 생태영유아교육인가 : 아이의 위기는 문명의 위기다

우리는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지금 생태영유아교육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의 아이들은 과거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

다.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교재와 교구, 더 다양한 프로그램,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골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형, 언니, 동생과 함께 자라는 관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심함과 기다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 몸의 리듬, 생활의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지만 덜 놀고 있습니다.
더 빨리 알지만 덜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깊은 관계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 편리해졌지만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이며, 더 깊게 보면 문명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생명위기는 생명을 도구로 본 결과입니다. 초저출생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이 너무 힘들어진 사회의 결과입니다. 공동체 붕괴는 함께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힘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AI 시대의 인간성 위기는 몸·마음·얼의 균형을 잃은 문명의 결과입니다. 아이들의 삶은 이러한 문명위기의 가장 예민한 거울입니다.

아이가 자연을 잃었다는 것은 문명이 자연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몸을 잃었다는 것은 교육이 생명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놀이를 잃었다는 것은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관계를 잃었다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아이의 위기는 문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는 교육은 곧 미래 문명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이 문명위기에 대한 교육적 응답이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교육 대전환입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아이를 자연으로 한 번 데리고 나가는 교육이 아닙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교육입니다.

아이와 자연의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아이와 아이의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몸과 마음과 얼의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가정과 기관과 마을의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몸을 되찾습니다. 놀이 속에서 마음을 되찾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됨을 배웁니다. 기다려주는 어른 곁에서 자기 안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러므로 생태영유아교육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와 자연과 생명이 함께 살아나는 미래로 가자는 말입니다.

Ⅲ. 한국 영유아교육의 성찰 : 제도 개편을 넘어 내용 개혁으로

그동안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무상교육과 무상보육도 확대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제도는 바뀌었는데, 아이의 하루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교육과정 문서는 바뀌었는데, 아이의 놀이는 정말 살아났습니까.
기관의 체계는 바뀌어 가는데, 아이의 몸과 마음과 생명은 더 건강해졌습니까.
교사의 자율성을 말하지만, 교사는 실제로 아이 곁에 머물 시간을 얻었습니까.
부모의 선택권을 말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회적 안심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아이의 삶보다 행정이 중요합니다. 놀이보다 활동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자연보다 교실이 중요합니다. 기다림보다 성취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리듬보다 어른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교사는 아이 곁에 머물고 싶지만, 문서와 평가와 행사와 민원에 지쳐갑니다. 부모는 아이를 믿고 싶지만 경쟁 사회의 불안 속에서 조기학습과 특별활동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교실중심, 수업중심, 교사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아가려는 큰 변화였습니다.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놀이와 삶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려는 방향은 매우 소중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언도 현장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시 문서와 평가와 검증 자료의 언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이후 '놀이 속 배움'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습니다. 이 표현은 아이들의 놀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고 관계를 배우며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배움'이라는 말이 다시 학습 목표, 활동 목표, 평가 항목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이 안의 의미를 읽어내자는 말이 오히려 놀이를 학습화하고, 놀이를 수업화하고, 놀이를 평가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놀이가 배움의 도

구가 되는 순간, 놀이는 놀이로서의 생명을 잃습니다. 아이가 놀기 전에 교사가 '이 놀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놀이가 끝난 뒤 '무엇을 배웠는가'를 확인하려 든다면, 그것은 놀이 중심이 아니라 다시 수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영유아교육에서 '배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움은 놀이를 지배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은 아이의 놀이가 끝난 뒤 교사가 겸손하게 읽어내는 의미이지, 놀이 앞에 내세워 아이를 끌고 가는 목표나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놀이는 배움의 수단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가는 본래 방식입니다.
아이는 배우기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놀면서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자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배움 찾기'에서 '삶 읽기'로 가야 합니다. 놀이를 학습화하지 말고, 놀이를 놀이답게 살려야 합니다. 평가와 기록의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와 유치원 평가는 질 관리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장에서는 문서와 평가자료 준비, 관찰기록 정리, 평가 대비 컨설팅 등으로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평가가 아이의 실제 하루 삶보다 문서를 앞세울 때 문제가 생깁니다. 평가가 교사를 아이 곁에서 떼어놓고 기록 앞에 앉게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평가가 놀이를 배움의 증거로 만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키즈노트와 같은 모바일 소통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와 빠르게 소통하고 아이의 생활을 나누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매일 올려야 한다는 부담, 모든 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 부모 만족을 위한 사진 전시 문화가 생기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사진중심 교육과정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사진이 적다는 것은 아이를 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사가 사진보다 아이 곁에 더 오래 머물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키즈노트는 부모 만족용 사진 전시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 소통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놀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체제는 교사를 문서로 몰아넣는 체계가 아니라,
아이가 살아나는 조건을 함께 살피고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평가하지 말고, 아이가 살아나는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교사를 기록으로 몰아넣지 말고, 아이 곁에 머물 시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평가는 점검과 등급의 언어를 넘어, 생태적 질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도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 안에 어떤 영유아교육을 담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삶과 놀이와 생명을 살리는 내용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Ⅳ. 생태유아교육 40년 실천의 길
: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려온 오래된 미래

제가 생태유아교육을 말하게 된 것은 책상 위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을 잃어갔습니다. 조기교육과 경쟁 속에서 놀 시간을 잃어갔습니다. 어른들의 불안 속에서 자기 리듬을 잃어갔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삶이 점점 좁아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어떻게 자라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어떻게 길렀는가.
자연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생태유아교육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를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라게 하자는 교육입니다. 사람의 도리 속에서 관계를 배우게 하자는 교육입니다. 조상의 육아지혜 속에서 몸과 마음과 얼을 함께 키우자는 교육입니다. 아이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자는 교육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부산대학교 어린이집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이들과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숲으로 갔습니다.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세시절기를 살렸습니다. 유기농 급식으로 생명밥상을 차렸습니다. 몸짓놀이와 손끝놀이를 했습니다. 줄넘기와 팽이를 했습니다. 명상과 호흡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형과 동생이 함께 자라는 혼합연령반을 운영했습니다. 언니오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 사이의 돌봄과 배움을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하루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산책은 아이의 몸이 땅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숲활동은 아이가 생명 세계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텃밭은 기다림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세시절기는 아이가 계절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교육입니다.
생명밥상은 하늘·땅·사람의 수고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입니다.
몸짓놀이와 손끝놀이는 몸과 리듬과 관계를 살리는 교육입니다.
줄넘기와 팽이는 집중과 균형과 신명을 깨우는 교육입니다.
명상과 호흡은 아이 안의 고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교과서 없이 배웠습니다. 개미를 보며 생명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텃밭에서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비 오는 날 진흙에서 몸의 감각을 배웠습니다. 줄넘기와 팽이에서 리듬과 집중을 배웠습니다. 명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만났습니다. 언니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돌봄과 배려를 배웠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보다 '아이의 생명력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결과물이 무엇인가'보다 '아이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생태유아교육은 '가르치지 않는 유아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은 교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력과 놀이와 관계가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앞에서 끌기보다 곁에서 살피고 기다리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림에서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자연을 오래 만난 아이들의 그림은 다릅니다. 사물을 자세히 봅니다.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색과 선에 힘이 있습니다. 작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상상력과 관찰력이 함께 자랍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단순한 미술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자연을 오래 만난 아이의 눈은 깊어집니다. 손은 살아납니다. 마음은 넓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혼합연령반입니다. 초저출생과 외동화 시대에 아이들은 형, 언니, 동생 관계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가정과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관계를 이제는 교육기관이 의도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혼합연령반은 단순한 학급 편성이 아닙니다. 혼합연령반은 관계 회복입니다.

큰 아이는 돌보며 자랍니다.
작은 아이는 기대며 자랍니다.
큰 아이는 설명하면서 배우고,
작은 아이는 따라 하며 배웁니다.
경쟁보다 상생을 배웁니다.
교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 사이에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생태통합교육도 중요합니다. 장애 영유아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생태영유아교육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도 먼저 아이입니다. 흙을 만질 권리, 바람을 느낄 권리, 친구와 함께 놀 권리, 자기 속도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느린 아이는 교실을 늦추는 아이가 아닙니다. 교실에 기다림과 돌봄을 가르쳐주는 아이입니다. 장애 영유아와 함께 자라는 경험은 모든 아이의 마음을 넓히고 얼을 밝히는 관계교육입니다. 장애 영유아에게도 생태영유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생태유아교육 40년의 실천은 한 기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어린이집에서 시작되고 다듬어진 실천은 서울시 어린이집의 생태친화보육으로, 세종시교육청의 숲·생태유아교육과 솔빛숲유치원·나성유치원·두루유치원의 혼합연령반 실천으로, 부산 해운대구의 생태어린이집과 생태가정 전환 및 좌동·반여 돌봄센터의 생태돌봄으로 이어지며 여러 지역과 현장에서 조금씩 확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의 생태친화보육사업은 도시 한복판에서도 아이의 하루를 자연과 놀이와 관계 중심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숲유치원 설립 운영과 생태유아교육 및 혼합연령반 실천은 공교육 체제 안에서도 생태유아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생태어린이집과 생태가정 전환 및 생태돌봄은 영유아기 교육을 넘어 초등 돌봄까지 생태적 삶의 리듬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생태유아교육은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교사도 달라집니다.
부모도 달라집니다. 기관도 지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오래된 것은 자연의 섭리와 조상의 육아지혜입니다. 미래인 것은 이 길이 AI 시대, 기후위기 시대, 초저출생 시대에 더욱 절실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Ⅴ. K-영유아교육의 철학
: 홍익인간·재세이화, 천지인 생명사상과 몸·마음·얼의 교육

이제 우리는 K-영유아교육을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K-영유아교육은 단순히 한국에서 하는 영유아교육이 아닙니다. 외국 이론을 한국어로 번역해 실천하는 교육만도 아닙니다. K-영유아교육은 한국의 생명사상과 공동체 전통문화, 조상의 육아지혜, 그리고 오늘의 현장 실천이 만나 세계의 미래교육에 답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세계의 좋은 교육사조와도 대화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理化)의 교육이념, 하늘·땅·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천지인(天地人) 생명사상, 아이 안에 한울님을 모시는 동학(東學)의 시천주(侍天主) 사상, 하늘과 땅과 사람을 공경하는 삼경(三敬) 사상, 그리고 몸·마음·얼을 함께 보는 우리 인간학 속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단순히 사람에게 유익한 인간 중심의 이념이 아닙니다. 오늘의 생명위기 시대에 다시 읽으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 세대와 세대, 아이와 미래 생명까지 널리 이롭게 하라는 생명교육의 이념입니다. 재세이화는 세상을 이치에 맞게 다스리고 조화롭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말하면, 아이를 자연의 섭리와 사람의 도리 속에서 자라게 하여 세

상을 조화롭게 살아갈 사람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바로 이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영유아교육적 실천입니다. 아이 하나를 경쟁의 도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과 얼을 살리고, 가족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입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생명을 이롭게 하는 교육입니다.
재세이화는 자연의 섭리와 사람의 도리대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생명사상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하늘은 생명의 밝은 기운을 주고, 땅은 생명을 품어 기르며,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하늘 아래, 땅 위, 사람 사이에서 자랍니다. 하늘의 햇빛과 바람을 받고, 땅의 흙과 물을 만나며, 사람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몸과 마음과 얼이 자랍니다. 따라서 영유아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산책길에서 하늘을 보고, 숲에서 땅을 밟고, 밥상에서 하늘·땅·사람의 수고를 먹으며, 친구와 함께 놀면서 사람됨을 배웁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이 산책·숲·텃밭·생명밥상·세시절기를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활동이 아니라 천지인 생명 질서 속에서 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시천주는 한울님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영유아교육으로 말하면, 아이 안에도 한울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빈 그릇이 아닙니다.
아이는 고쳐야 할 미완성품이 아닙니다.
아이는 주체적 생명인이고, 소우주이며, 한울님을 모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아이를 조작하고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 안의 생명력을 믿고 모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안의 한울님을 알아보고 그 생명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동학의 삼경 사상, 곧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며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은 생태영유아교육의 근본과 깊이 통합니다. 하늘을 공경하면 아이는 자연의 섭리를 배웁니다. 땅을 공경하면 흙과 먹거리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경하면 친구와 교사와 부모와 이웃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생명 육아지혜도 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난 대로 결대로' 키웠습니다. 아이마다 때가 있고 결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아이 안의 생명 리듬을 믿었습니다. 또한 '아이는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따라 하고, 함께 하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놀이 중심 교육, 삶 중심 교육, 연령통합 단일 교육과정과 깊이 통합니다.

‘큰 아이를 보고 작은 아이가 배운다’는 말은 혼합연령반의 교육적 지혜입니다. ‘밥 잘 먹고 똥 잘 누는 아이로 키운다’는 말은 몸의 생명 리듬을 먼저 보는 육아 철학입니다. 단동십훈(檀童十訓)의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 짝짜꿍은 아기의 몸과 손끝, 리듬과 관계를 깨우는 한국 영아교육의 원형입니다.

우리말에는 ‘우리 아이’, ‘우리 부모’, ‘우리 선생님’, ‘우리 동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의 말이 아니라 관계의 말입니다. 아이는 한 가정의 사유물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와 이웃과 마을이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태영유아교육에서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것은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가정과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육아지혜는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생태영유아교육이 다시 살려야 할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러한 사상적 뿌리는 ***몸·마음·얼의 인간학***으로 이어집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초창기부터 지·덕·체를 아우르는 전인교육 대신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유아교육’을 말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한 영혼은 지금의 말로 하면 ‘얼’입니다.

사람은 머리와 가슴과 배로 삽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과 얼로 자랍니다.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이 밝아질 때
비로소 사람답게 자랍니다.

몸은 생명의 바탕입니다. 아이는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 잘 자고, 뛰놀며 몸으로 세상을 만납니다. 마음은 관계의 자리입니다. 아이는 사랑받고, 기다림을 받고,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며 마음이 자랍니다.

얼은 사람됨의 빛입니다. 얼은 단순한 개인의 정신만이 아니라 민족의 얼이고, 혼이며, 정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이 모여 가족의 얼이 되고, 집안의 얼이 되고, 마침내 민족의 얼이 됩니다. 우리말 ‘얼굴’은 얼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얼굴에는 눈 둘, 귀 둘, 코 둘, 입 하나, 곧 일곱 구멍이 있습니다. 이 칠규(七竅)를 통해 사람은 보고, 듣고, 숨 쉬고, 말하고, 먹으며 세상과 통합니다. 얼은 이 얼굴의 칠규를 통해 드나드는 천지인 조화의 맑고 밝고 선하고 바른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늘의 밝은 기운, 땅의 생명 기운, 사람 사이의 따뜻한 기운이 막힘없이 드나들 때 사람의 얼은 밝아집니다. 자연의 섭리와 사람의 도리를 따라 몸과 마음과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얼은 바르게 섭니다. 그래서 교육은 아이의 얼굴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이의 얼굴빛과 눈빛은 교육의 가장 깊은 결과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영유아기는 사람됨의 바탕이 놓이고, 마음의 결이 형성되고, 얼의 방향이 세워지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이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신이 올바른 아이, 얼과 혼이 살아 있는 아이,
맑고 밝고 선하고 바른 아이입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며,
생명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얼굴을 잃지 않는 아이입니다.
바르고(正), 밝고(明), 선하고(善), 의로운(義) 아이입니다.

이것은 따로 교과처럼 가르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하루가 그렇게 살아질 때 몸에 배고 마음에 스미며 얼에 새겨집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살면 환경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아이로 자랍니다. 사람의 도리대로 살면 도덕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로 자랍니다. 조상의 육아지혜대로 살면 인성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기다림과 예절과 공동체 감각이 몸에 밴 아이로 자랍니다. 친구와 더불어 살면 시민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아이로 자랍니다. 밥상과 산책과 숲과 텃밭 속에서 자라면 생명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생명을 공경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인성교육, 도덕교육, 환경교육, 시민교육, 생명교육을 각각 따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 전체가 자연의 섭리와 사람의 도리와 조상의 육아지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교육이 생활 속에서 하나로 살아납니다.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는 교육의 큰 뜻을 밝힙니다. 천지인 생명사상은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려줍니다. 동학의 시천주와 삼경 사상은 아이 안의 생명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일깨웁니다. 몸·마음·얼의 인간학은 아이를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상의 육아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하루 속에서 실천할지를 알려줍니다. 이 모든 길은 하나로 모입니다.

아이의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얼을 밝히는 교육.
자기 얼굴을 잃지 않고, 조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얼굴을 가진 아이.
자연과 사람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정직하고 명랑하고 선하고 의롭게 자라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신명나는 아이입니다.
신명나는 아이가 신명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Ⅵ.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역할 : 제도 전환과 지역 실천으로 모든 아이에게 생태영유아교육을

이제 생태영유아교육은 일부 기관의 특색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부 열정 있는 교사와 원장의 헌신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모든 아이가 자연과 놀이와 관계와 생명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제도 전환과 지역 수준의 실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태영유아교

육이 특별한 아이들만 누리는 교육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 가까이에 사는 아이들만의 특권이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특별히 선택한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만의 기회여서도 안 됩니다.

모든 아이는 자연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마음껏 놀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관계 속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생명답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자기 몸과 마음과 얼을 건강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태영유아교육은 이제 선택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기본 교육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긴밀히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제도 전환과 방향 정립을 책임져야 하며,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교육 여건에 맞는 실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은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지역사회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1. 교육부에 대한 제언: 국가수준의 제도 전환

교육부는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가수준에서 분명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체계의 통합을 넘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평가제와 유치원 평가를 생태적 질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서와 자료 확인 중심의 평가는 교사를 아이 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는 아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가는 조건을 살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평가자는 점검자가 아니라 생태적 질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키즈노트 자료가 평가자료로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놀이 기록 과잉 요구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 개편 이후 영유아교육의 방향을 자연·놀이·삶 중심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이 어린이집의 유치원화, 유아교육의 초등화, 놀이의 형식화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행정 통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아와 유아의 삶을 하나의 생명 흐름으로 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철학과 교육과정을 자연·놀이·삶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셋째, 연령통합 단일 교육과정과 혼합연령반 운영을 적극 활성화해야 합니다. 초저출생과 외동화 시대에 혼합연령반은 소규모 기관의 불가피한 편성이 아니라, 아이들이 형님·아우 관계 속에서 돌보고 기대며 자라는 중요한 교육환경입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유아중심·놀이중심·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적극적 운영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 교육적 의미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이 우수사례 발굴, 교사 연수, 현장

컨설팅, 운영 효과 연구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국 교직원 생태영유아교육 연수 체계와 상응하는 부모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태영유아교육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연수와 강사 양성과정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연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장애 영유아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생태통합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도 자연·놀이·관계 속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인력, 안전지원, 무장애 놀이환경, 특수교사·유아교사·보육교사의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장애 영유아 지원은 치료와 보정 중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활, 놀이, 자연,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는 생태통합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2.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제언: 지역 실천 모델 구축

전국 시·도교육청은 생태영유아교육을 지역의 조건 속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역의 숲과 바다, 하천과 공원, 논과 밭, 마을길과 시장, 지역 농가와 생태공원은 모두 훌륭한 교육자원입니다. 각 지역은 자기 지역의 자연과 문화와 교육 여건에 맞는 생태영유아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태영유아교육 교직원 연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단계적 연수 체계가 필요합니다. 입문 연수, 심화 연수, 원장 연수, 부모교육 담당자 연수, 강사 양성과정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수는 새로운 활동 몇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교육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생태교육과정 선도기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도기관을 지정하여 생태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사례를 축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달라지는 모델을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지역 생태교육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숲, 공원, 하천, 바다, 논, 밭, 마을길, 도서관, 생태공원, 지역 농가 등은 모두 교육자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자연자원과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결하는 생태교육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혼합연령반과 연령통합 단일 교육과정 시범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초저출생과 외동화 시대에는 연령통합의 교육적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형님과 아우가 함께 자라는 삶은 아이들에게 관계의 학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시범 운영, 교사 연수, 운영자료 개발, 사례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연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유보통합 시대의 핵심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 통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이 함께 연수받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사례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교육을 지역 단위로 확산해야 합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부모의 이해 없이는 깊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은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부모 강좌와 소책자, 영상 자료, 지역 생태부모 학교 또는 좋은부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초등 늘봄·돌봄과 생태돌봄을 연결해야 합니다. 방과후 돌봄과 늘봄이 단순한 학습 보충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놀이·자연·관계·생활리듬을 살리는 생태돌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유아기 생태영유아교육과 초등 돌봄의 연계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교사 업무를 줄이고 실천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기록과 평가와 행정 업무를 그대로 두면 현장은 지칩니다. 교사가 아이를 만날 시간을 확보하고, 산책과 놀이와 생활리듬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홉째, 지역 연구회와 실천사례 발표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책상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의 실천 속에서 자랍니다. 지역별 교사 연구회, 원장 모임, 실천사례 발표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 배움도 필요합니다.

열째, 영유아학교 6년 지역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학교 6년은 각 지역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영아, 유아, 혼합연령, 부모교육, 생태돌봄, 지역 자연자원을 연결한 지역형 생태영유아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3. 중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갈 생태영유아교육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아이의 삶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아이의 놀이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과 얼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교사를 살리고, 부모도 살리며,
모든 아이가 함께 자라게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현장을 지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은 현장이 살아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좋은 평가는 교사를 긴장시키는 평가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더 깊이 살피게 하는 지원입니다. 좋은 연수는 교사에게 일을 더 얹는 연수가 아니라, 아이를 다시 보게 하는 연수입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특색사업이 아닙니다. 영유아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선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교육권입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일부 지역의 실험이 아닙니다. K-영유아교육의 미래입니다.

Ⅶ. 신명나는 아이, 신명나는 세상 : K-영유아교육의 새 길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아이들에게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납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자랍니다.
아이들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됩니다.
아이들은 기다려 주는 어른 곁에서 자기 힘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믿어주면 스스로 자랍니다.
아이들은 살려주면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불안을 대신 짊어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경쟁의 출발선에 일찍 세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는 평가의 대상도 결과물도 아닙니다.

아이는 주체적 생명인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자라고 서로 살리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자연과 사람과 더불어 자라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미 존엄한 생명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은 다시 아이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제도는 아이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아이의 하루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자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아이가 생명답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와 자연과 생명이 함께 살아나는 미래로 가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아이의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놀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이 K-영유아교육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생명지혜와 40년 생태유아교육 실천이 만나, 이제 세계 미래교육에 답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뜻처럼 사람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천지인 생명사상처럼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살아나며, 동학의 삼경처럼 사람과 자연과 만물을 공경하는 교육이야말로 K-영유아교육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BTS가 한국의 노래와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이제 생태영유아교육은 한국의 생

명사상과 현장 실천으로 세계 영유아교육의 미래에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의 교육이 아니라 생명의 교육, 속도의 교육이 아니라 기다림의 교육, 머리만의 교육이 아니라 몸·마음·얼의 교육입니다. 신명나는 아이는 단순히 많이 웃고 활발한 아이가 아닙니다. 신명나는 아이는 몸에 생명기운이 돌고, 마음이 따뜻하며, 얼이 밝은 아이입니다. 자기 얼굴을 잃지 않고, 조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얼굴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신명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제 아이에게 놀이를 돌려줍시다.
교사에게 아이 곁에 머물 시간을 돌려줍시다.
부모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돌려줍시다.
장애 영유아와 느린 아이에게는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을 선물합시다.
자연과 놀이와 관계 속에서 함께 자랄 권리를 돌려줍시다.
모든 아이에게 몸·마음·얼이 살아나는 생태영유아교육을 돌려줍시다.

신명나는 아이, 신명나는 세상. 그 길이 생태영유아교육의 길이며 K-영유아교육의 미래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생태영유아교육 관련 문헌

교육부·보건복지부(2019).『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보건복지부(2019).『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2019).『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2020).『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살리는 생태놀이』.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백정이·임재택·이주희·이선화(2018).『자연·놀이·아이중심 유아교육과정』. 도서출판 공동체.

서울특별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9). 서울시 생태친화 어린이집 안내서: 자연·놀이·아이 중심[안내서].

서울특별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9). 자연·놀이·아이 중심 서울시 생태친화 어린이집 컨설팅 운영가이드: 컨설턴트용[운영가이드].

솔빛숲유치원(2021). 전국 최초 공립숲유치원, 첫이야기: 얘들아, 숲으로 가자!. 살림터.

임재택, 김은주, 이현정, 임지연, 조민영. (2019). 자연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세종형 생태유아교육 실행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위탁 연구 2019 최종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임재택 외(1997~2012).『산책 프로그램』,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몸짓놀이 프로그램』, 『손끝놀이 프로그램』, 『세시풍속 프로그램』 등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관련 저서.

임재택(2005).『생태유아교육개론』. 양서원.
임재택·조순영·김은영(2017).『생태유아교육기관 전환컨설팅: 우리 유치원·어린이집도 생태유아교육 할 수 있어요』. 도서출판 공동체.
임재택(2018).『생태유아교육 사상: 아이를 주체적 생명인으로 키우는 생태유아교육』. 한국생태유아교육 시리즈 제1권. 도서출판 공동체.
임재택·조순영·임지연·송주은·권선임(2021). 『생태어린이집 길라잡이』. 생태아이
임재택 외.(2021).『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실제』. 공동체
조송현(2025). 『임재택 평전』. 인저리.
임재택(2026). 「오래된 미래의 생명중심 문명교육: 한국 생태유아교육 40년 실천모형」. 바른역사학술원·한국·동아시아사 및 사회과학 세계학회 공동주최, 『제1회 한국·동아시아사 및 사회과학 세계학회 자료집: 좌우를 넘어서 민족공동체의 미래로』. 226-236. 2026년 3월 14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해운대구좌동·반여다함께돌봄센터(2026). 2021~2025년 초등 생태돌봄 운영 사례 자료.

한국 생명사상 및 교육철학 관련 문헌

송호수(1984). 『한민족의 뿌리사상』. 도서출판 인간연합.
안창범(2000).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 개정 5판. 도서출판 삼양.
안창범(2013). 『천지인 사상에서 한국 본원사상이 나왔다』 개정 4판. 삼진출판사.
정영훈 외(1999). 『홍익인간 이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 기획, 조광호·조미진 저(2012).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라이온북스.

정책 제안 및 보도자료

임재택(2026). 「교육부 정책간담회 별첨자료: 아이들의 그림이 말해주는 생태유아교육의 힘 - 2007년·2019년 생태놀이 운영사례집 수록 그림과 0~5세 연령순 연말 벽면 전시 자료 해설」. 2026년 3월 5일, 교육부 당국자 정책간담회 별첨자료.
임재택(2026).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 유보통합(영유아학교 0~5세) 실질 정착과 생태영유아교육 전국 실행 – 제도개혁(영유아학교 일원화)과 내용개혁(생태영유아교육) 동시 완성안」. 2026년 4월 26일, 민선 9기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 전달 정책제안서.
이유주(2026, 4월 9일). “난대로, 결대로”... 아이답게 자라는 생태유아교육 현장 가보니.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402
조송현(2026, 4월 8일). 교육부, 생태유아교육 현장서 ‘미래 교육’ 이정표 확인: 김해·부산 방문. 인저리타임. https://www.injurytime.kr/View.aspx?No=4033170

주제발표

생태영유아교육의 오늘과 내일: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공공적 확산을 위한 과제

김은주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명예회장

생태영유아교육의 오늘과 내일: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공공적 확산을 위한 과제

김은주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명예회장

Ⅰ. 들어가며

오늘날 영유아교육은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저출생,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영유아 인구수의 감소는 단순히 교육 수요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명의 아이가 지닌 존재적 가치와 교육적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성장과 경쟁을 강조해 온 교육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삶과 공동체를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영유아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봐야 할 때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다시 주목해볼 만한 것이 생태영유아교육의 의미와 가치다. *생태영유아교육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전환 요구에 이미 응답해 온 교육 실천 모델*이기 때문이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태영유아교육은 생명존중, 공동체성, 자연친화성, 영유아중심 및 놀이중심교육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에서 중요한 대안적 흐름을 형성해 왔다. 그동안 생태영유아교육은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상생을 지향하며 영유아가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실천하면서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다.

이제 생태영유아교육은 특정 기관의 교육철학을 넘어 미래 영유아교육 체제의 핵심 가치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태영유아교육을 일부 기관의 생태환경 부문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거나 특정 지역 중심의 실천으로 보는 등의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포럼을 통해 본 고에서는 생태영유아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확산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생태영유아교육의 오늘, 그 성과와 한계

1990년대부터 2026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태영유아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남겼는지 살펴보고, 오늘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생태영유아교육의 의미와 가치

가. 인간중심교육을 넘어서는, 생태적 세계관 및 생명존중 가치에 대한 인식 정립

생태영유아교육은 “생태적론 세계관”에 바탕을 둔 유아교육이라고 정의하면서 세계관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1] ‘생명’을 가장 우선적인 중심 가치로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온생명론’이라는 화두를 던진 장회익 선생님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생명은 ‘낱생명’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보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온생명’이다.

생태영유아교육에서는 이러한 온생명론적 관점에서 영유아를 스스로 창조진화하는 생명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 보는 관점을 일찍이 강조해왔다. 생태영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뭇생명과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교육계는 인간중심교육, 학습자중심교육, 아동중심교육이라는 비젼 아래에서 개인의 성장이 강조되고 그 속에서 경쟁이 심화 되어가는 현상을 겪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생명존중, 자연과의 공존, 공동체성 및 관계성의 회복,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한 성장,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 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러한 실천은 인간 이외의, 인간을 넘어서는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생태영유아교육의 생태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생명 가치에 대한 실천 노력들은 한국 영유아교육계에 생태적 세계관 및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실천을 앞당기게 해준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나. 환경교육을 넘어서는, 생태전환적 삶의 태도 및 방식의 교육적 실천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기후위기대비교육, 생태시민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for Sustainability) 중에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역량,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는 역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기는 이러한 역량의 기초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에서 주장해온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9월, 교육기본법 제22조 2항에 ‘생태전환교육(Education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을 명시하면서 환경교육을 넘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의 생태교육이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에 초점을 둔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인간 중심적 사고체계 자체를 성찰하고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명존중, 상호의존성, 관계성,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책임적 시민성 등이 생태전환교육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다.

---

1) 생태유아교육의 사상체계 및 실천원리를 연구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상체계의 첫 번째 원리로 인간중심 세계관에서 생태중심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김은주, 2003).

생태영유아교육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러한 가치를 실천해 왔다. 바깥놀이, 흙에서 놀기, 숲에서 놀기, 텃밭 가꾸기, 세시에 따른 삶, 세대 및 연령의 통합 활동 등은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기는 자연과 사람 간의 기초적인 관계 형성 뿐 아니라 생태감수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영유아교육을 통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로까지 생태적 삶의 태도 및 방식의 교육적 실천을 강조해온 점은 오늘날에 더욱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다.

2. 생태영유아교육의 실천 현황

가. 교육과정 운영 측면

생태영유아교육은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친화적 일과 운영*이다. 바깥놀이, 텃밭 가꾸기, 숲체험 활동, 세시절기 활동 등 자연과 함께 하는 활동들이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생태적 생활교육*이다. 일상적인 몸짓놀이와 손끝놀이, 제철 재료 및 텃밭 수확물로 하는 음식 만들기, 산책지에서 생명(동식물)과의 만남, 자원순환 실천, 절제와 나눔 등 생태적인 가치가 의연 중에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관계 중심 교육*이다. 연령간 통합(언니오빠 활동), 세대 간 교류(노인아동 상호교류 활동), 도농교류 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언니오빠가 동생과 만나고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장을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기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친화적 일과 운영 및 활동뿐만 아니라 생태적 생활교육과 관계 중심 교육을 강조해 왔으나 생태영유아교육의 이름으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온 측면이 있다.

나. 교사 실천 측면

생태영유아교육에서는 “삶의 동반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강조한다(김은주, 2003).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실천해오고 있다.

첫째, *영유아 주도의 자유놀이에 대한 존중*이다. 생태영유아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내세운 주장은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자.”였다. 첫 생태영유아교육의 실험기관이었던 부산대학교부설어린이집에서는 개원 준비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놀이에 대한 존중은, 아이들은 먼저 놀고 그 논 것을 교사가 기록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했고, 그 결과 일일교육계획안 대신 교육일지, 월간교육계획안 대신 한달살이를 기록에 담은 학급신문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임을 선언한 2019 개정 누리과정 이후 교육일지와 학급신문은 놀이중심교육을 위한 실천사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둘째, *기다림과 경청의 교육방법*이다. 생태영유아교육에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아이와 교사가 서로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교사는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 기다리고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교육공간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실천*이다. 생태영유아교육이 있기 전에 한국 영유아교육 현장은 교실중심, 실내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생태영유아교육에서는 실내중심을 실외로, 교실중심을 자연으로 교육공간을 확장시켰다. 교사들은 자연을 교육내용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을 벗어나 바깥놀이터로, 동네로, 숲으로 찾아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현장에 유럽의 숲유치원이 소개되면서 영유아를 위한 숲생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넷째, *공동체적 교육관의 실천*이다. 생태영유아교육에서는 교사만이 영유아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유아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공동의 육아 및 교육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육활동에 깊숙이 개입시키고자 하였다. 부모청소를 하도록 권하고 세시잔치 날 부모가 초대해서 일과를 함께 하거나 아빠와 함께 점심 먹는 날 등의 행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3. 생태영유아교육의 성과와 한계

가. 현장 실천의 성과

생태영유아교육의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의 성패를 평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영유아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이 어떤 교육적 전환을 이끌어 왔으며 무엇을 아직 이루지 못했는가를 성찰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영유아교육이라는 이념과 방향에 동의하면서 실천해 온 기관들을 통해 이룬 교육적 성과를 살펴보자.

첫째, *자연과 놀이를 영유아교육의 중심으로 회복*시켰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영유아교육은 조기학습과 인지중심교육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은 자연, 놀이, 삶, 관계를 교육의 중심에 놓으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교육관을 확산시키면서 영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바깥놀이, 텃밭활동, 숲활동 등은 이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2]. 생태영유아교육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놀이의 자발성 확대 및 질적 심화가 보다 풍부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정형화된 교구보다 자연 환경이 주는 훨씬 풍부한 놀이 맥락을 제공할 수 있었다[3].

둘째, *영유아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겪는 각종

2)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위한 현장 지원자료로 교육부가 발간한 놀이운영사례집 5종에, 「자연과 아이다움을 살리는 생태놀이」 사례가 포함된 것은 국가 수준 교육체계에 공식적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을 알린 계기가 되었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0).

3)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필자는 생태유아교육이 한국 사회 및 유아교육에 던진 3가지 화두로, “밖, 놀이, 살림”을 제안한 바 있다(김은주, 2022).

신체적·정신적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4]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자연에서의 놀이시간을 제공하고 생명 가치를 강조해 온 것은 생태영유아교육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결과이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자연 경험이 영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 안정,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듯이[5], 생태영유아교육은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 및 회복 탄력성 형성 등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생명존중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생태영유아교육은 환경보호를 넘어 생명존중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영유아기에 자주 자연으로 나가서 다양한 생명들과 만난다는 것은, 공감, 배려, 돌봄, 책임 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상호의존성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시민으로 자라날 기초를 배워간다. 이는 오늘날 강조되는 생태시민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써 유아교육현장은 생태영유아교육을 통해 이미 실천해 온 것이다.

넷째, *공동체적 교육문화를 형성*하였다. 생태영유아교육은 경쟁보다 협력을, 소비보다 나눔의 가치를 강조해 왔다.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면서 영유아교육을 기관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확장하고, 공동체 의식의 형성 및 관계성 회복에 집중하였다. 이는 현재 논의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역기반 교육, 돌봄 공동체 논의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의 교육철학을 변화*시켰다. 생태영유아교육은 교사를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재정의하였다. 교사들은 기다림, 경청, 존중, 관계 맺기 등을 실천하는 교육자로 변화하였다. 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이후의 놀이중심교육과 영유아의 주도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끝으로, *한국형 영유아교육(K-영유아교육) 모델을 구축*하였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외국 모델을 단순 수용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절기, 공동체적인 육아방식에 동서양의 생명담론을 결합한 한국형 영유아교육 모델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6]. 이는 한국 영유아교육의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조명받을 만한 일이다.

나. 실천의 한계

생태영유아교육은 그동안 한국 영유아교육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긴 했으나, 실천 기관의 지역 편중, 기관 및 지역 간 실천 격차, 교사 개인의 철학 및 역량에 의존, 교사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 지원 부족, 평가체제와의 충돌 및 부조화, 안전관리 부담 증가, 정책적 지원 부족, 부모 인식

4) 「도둑맞은 집중력」, 「불안세대」, 「경험의 멸종」, 「도파민 가족」, 「조용한 붕괴」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간된 다수의 저서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아이들의 질환을 지적하면서 직접 경험의 중요성 및 놀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신선호, 2026; 이은경, 2025; Christine Rosen, 2025; Johann Hari, 2023; Jonathan Haidt, 2024).

5) Shaivya Singh(2023)은 그린러닝(Green Lear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유아기 및 초등 시기에 자연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의시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에 매우 필요하므로 자연 속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탐구하고 실험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2007년에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저널인 『Young Children』에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A New Paradig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생태유아교육을 소개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한국 유아교육의 독자적인 철학과 실천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을 준 바 있다(Eunju Kim·Jaetack Lim, 2007).

의 차이 등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해보도록 하자.

첫째, 생태영유아교육은 짧은 기간동안 한국 영유아교육현장에 정착되긴 했으나, *제도화에는 제한적*이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2014년부터 숲생태 거점유치원을 지정하고, 세종시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세종형 생태유아교육을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생태친화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의 기본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등 일부 도시에서 부분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여전히 특정 지역, 특정 기관, 특정 교사 집단 중심의 실천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와 생태유아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국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현장 실천 사례를 축적했음에도 국가 수준 교육체계 속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

둘째, 생태영유아교육을 *자연체험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태영유아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숲에 가기, 텃밭 가꾸기, 자연물 놀이 등의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러나 생태교육의 핵심은 자연 체험이 아니라 관계성, 순환성, 다양성, 영성, 상호의존성, 지속가능성, 생태적 시민성 등이다. 이러한 생태적 원리 및 철학이 약화되고 산책, 텃밭, 세시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만 남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자연을 넘어서는 생태적 원리 및 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강조되거나 환경과 유사한 개념의 생태교육 정도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확장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오늘날 생태위기는 기후위기, 환경정의, 소비문화, 사회적 불평등, 교육격차 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태를 자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환의 문제, 인식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끌어내지 못했다.

넷째, *연구 기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실천 사례는 풍부하지만, 장기 종단연구나 효과성 연구, 정책 연구 및 국제 비교 연구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부분이 정책 설득력 확보에 한계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섯째, *저출생 및 유보통합 시대의 새로운 의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 현재 영유아교육계의 핵심 의제는 유보통합, 공공성, 돌봄 및 교육격차 해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생태전환교육 등이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이러한 의제들과 철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아직 충분히 담론화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의제와의 접점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생태영유아교육의 내일, 공공적 확산을 위한 과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공동체 해체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는 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생태적 가치와 태도를 만들어가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영유아교육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생명의 존엄성 강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한 기초 형

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적 교육 체제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에 왜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적 확산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자.

1. 왜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적 확산이 필요한가?

가. 유보통합 시대,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성

생태영유아교육의 확산은 유보통합 시대가 요구되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 행정 통합이 아니다. 그 핵심은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유보통합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교육격차 없이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출생 시대에 한 아이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고 영유아의 교육적 권리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생태영유아교육에서 강조해온 생명존중, 공동체 의식,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철학으로 새롭게 주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한정된 교육 실천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가 누려야 할 공공적 교육 가치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영유아기 아이들이 자연과 놀이, 공동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영유아교육은 경쟁과 성과 중심의 교육을 넘어 협력과 배려, 지속가능한 삶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육적 토대를 제공한다. 생태영유아교육을 통해 영유아,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실질적 구현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의 확산은 모든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영유아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나.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적 책무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적 책무는 단순히 환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학습자들은 환경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전반에 생태전환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교육은 생태적 감수성과 책임감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영유아기부터 자연과의 긍정적 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를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유아교육기관은 이러한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첫 출발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시기부터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실천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교육에서 해야할 중요한 책무이며 생태영유아교육은 이미 그 실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다.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요구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은 인간 중심의 성장과 개발을 강조해 온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의 확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영유아기는 가치관과 생활습관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자연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태영유아교육 역시 지식 중심 교육에서 삶 중심 교육으로, 경쟁 중심 교육에서 공존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 방법으로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놀이를 통한 교육,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추구해 왔다. 또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어릴 때부터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교육을 넘어 삶의 방식과 세계관의 전환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생태전환교육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 생태영유아교육을 일부 기관의 실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여 미래세대의 생태시민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국가 교육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태적 가치와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생태영유아교육의 확산은 최근 국가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생태전환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연계교육, 지역기반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공동체, 민주시민교육 논의 등 최근 교육정책의 방향과 높은 정합성을 가진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자연 친화적 경험, 생명존중, 공동체적 삶을 중시함으로써 이러한 정책 방향을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강조하는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도 높은 연계성을 가진다. 생태유아교육은 유아의 자발적 탐색과 자연 속 놀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국가 교육과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학교, 생태환경교육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이 걸어온 길은 국가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생태영유아교육의 확산은 국가 교육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2. 어떻게 생태영유아교육을 공공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

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영유아교육의 기반 구축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인정하는 편이나, 현재 일부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영유아가 생태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생태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모든 기관에 공공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적 확산이란, 좋은 성과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함께 활용하도록 널리 보급하는 것이므로 생태영유아교육의 우수한 교육 실천 사례나 연구 결과를 여러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보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모든 아이는 자연과 만나고 생명과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은 특정 기관이나 계층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적 권리*이다.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 내의 바깥놀이터나 가까운 거리에 자연친화적인 생태교육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숲과 공원, 하천과 마을 등 지역의 생태적 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영유아교육의 효과 연구나 평가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 등과 같은 정책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나.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체계 속에 생태적 관점 내재화

생태영유아교육은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개별 교사의 실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유아교육의 생태적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므로 국가 수준 영유아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생태를 하나의 영역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를 생명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생명존중, 자연과의 관계 맺기,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 공동체적 책임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바깥놀이를 일상화하고 지역의 생태자원 활용을 모색하고 계절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생태적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상적 교육활동 속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목표 또한 '무엇을 더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수준 영유아교육 정책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7]. 이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생태영유아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생태적 교육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반영할 수 있다.

---

7) 필자는 학술대회 발제와 토론, 기고문 등을 통해 영유아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영유아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은 영유아교육정책의 내용 개혁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김은주, 2024, 2025.09.10., 2025).

다. 영유아교사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생태영유아교육은 단순히 자연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철학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 때 교사는 생태전환의 실천가이자 문화 창조자로 성장해야 한다. 생태교육은 새로운 교수기법의 습득만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 스스로 생명의 가치와 자연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생태철학, 생태윤리, 생태교육론, 공동체교육 등을 포함하고, 현직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8]. 또한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에 대한 고민하는 교사실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유아교사가 자연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성찰하는 생태적 성장 과정이 병행될 때 교육 현장의 변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

라. 지역 기반의 생태영유아교육 거버넌스 구축

생태영유아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텃밭 가꾸기, 자연놀이, 절기 생활, 공동 식사, 나눔과 돌봄의 경험은 생태적 시민성을 형성하는 교육적 토대가 된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연결된 생태공동체로서 기능해야 하며, 교육기관 자체가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생태영유아교육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와 교사,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문화이다.

생태영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숲, 하천, 공원, 텃밭, 마을공동체 등 지역의 생태적 자원을 교육과 연결하는 지역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가정,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영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만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역 기반의 생태영유아교육 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하면서 그 확대 방안을 모색해볼 만하다.

마. 부모와 시민사회의 인식 전환

생태영유아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의 결과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쟁과 성취 중심의 교육관을 넘어 생명과 관계, 돌봄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시민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실천 사례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적 확산은 교육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중심의 성장과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문화의 형성 과정이다. 영유아기의 생태적 경험은 미래시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공공적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8) 최근 국외의 관련 연구도 교육과정에 생태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연수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bdelrahim Fathy Ismail 외, 2026).

Ⅳ. 나가며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공동체 해체와 돌봄의 위기라는 복합적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지탱해 온 근대 문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삶과 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영유아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더 이상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성화 교육이 아니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공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과 공존의 가치에 기반한 교육철학이며, 생태전환 시대를 살아갈 시민을 길러내는 미래교육의 토대이다.

지금까지 생태영유아교육이 선도적 실천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성과를 보다 넓은 교육 현장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즉 생태영유아교육을 일부 실천가들의 운동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모든 영유아가 누려야 할 교육적 권리로 확장하는 데 있다.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적 확산은 양적 확대가 아니라 공공교육 체계 자체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영유아교육은 성장, 발달, 경쟁, 성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생태문명 시대의 교육은 생명, 관계, 공존, 돌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아이는 미래의 인적 자원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이며, 자연은 교육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영유아교육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생명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영유아교육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목적 중에는 미래 사회를 위한 생태시민의 형성에 있다. 생태시민은 자연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며, 경쟁보다 협력을, 소비보다 절제를, 지배보다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영유아기의 경험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거대한 제도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관계와 돌봄 속에서 시작된다. *영유아교육은 생태문명의 씨앗을 심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 영역*이다. 이제 생태영유아교육은 주변적 대안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적 확산은 기존 교육체계 안에 생태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에 두고 영유아교육 자체를 새롭게 전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생태교육의 보급이 아니라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영유아교육의 공공적 재구성에 있다. 생명과 공존의 철학 위에 영유아교육을 공공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장 근본적이고 희망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보건복지부(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자연과 아이다움을 살리는 생태놀이. 세종: 교육부.

김은주(2003). 생태유아교육의 사상체계 및 실천원리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주(2022). 생태유아교육이 한국 사회 및 유아교육에 던진 화두와 의미.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생태유아교육의 20년, 그리고 새로운 도약. pp.29-50.

김은주(2024).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소고.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24년 추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아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간-자연 공존을 위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pp.230-236.

김은주(2025.09.10.). [기획특집-유보통합]-⑩ 영유아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절실하다: 유보통합, 제도 개혁 넘어 내용 개혁으로 나아가야.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57

김은주(2025). 유보통합의 내용 개혁, 통합 영유아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을 향하여.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새 정부 유아교육에 바란다: 영유아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pp.29-50.

신선호(2026). 조용한 붕괴: 교실의 다수를 차지하는'정상군'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이은경(2025). 도파민 가족. 서울: 흐름출판(주).

Abdelrahim Fathy Ismail, Ghada Nasr Elmorsy, Mahrous Mahmoud Alkolaly, Amro Hassan Badran, Ghada Elnour Abdelrhman, Samia Mokhtar Shahpo(2026). Approaches for integr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s into early childhood curricula: Paradoxes of theory and practice. *European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10*(1), 1-14.

Christine Rosen(2025). 경험의 멸종(원제: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이영례 역. 서울: 아크로스출판그룹(주). (원전은 2024년 발행)

Eunju Kim·Jaetack Lim(2007).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A New Paradig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uth Korea. Young Children, 62(6), pp.42-45.

Johann Hari(2023). 도둑맞은 집중력(원제: Stolen Focus). 김하현 역. 서울: 아크로스출판그룹(주). (원전은 2022년 발행)

Jonathan Haidt(2024). 불안 세대(원제: The Anxious Generation). 이충호 역. 경기: 웅진지식하우스. (원전은 2024년 발행)

Shaivya Singh(2023). Green learning: Teaching young learners through nature for a sustainable education. *Journal for Research Scholars and Professionals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7*(36), 1-5.

사례발표 1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

어린이집형:
아이다움이 살아나는 일상

이수진
충북,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원장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
어린이집형: 아이다움이 살아나는 일상

이수진 | 충북, 국공립 송면어린이집 원장

1. 들어가며 – 깊고 깊은 산골에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송면어린이집은 충북 괴산 산골에 있는 20인 이하의 작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17년 전 2009년 생들의 연이은 출산은 산골 마을의 커다란 뉴스가 되었다. 1년에 8명이나 태어났으니 말이다. 솔맹이골 8개 마을에서 태어난 아가들의 울음소리에 마을은 들썩였고 산골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각 마을 이장님들은 어린이집 유치를 주장했고 그 주장이 중앙정부에 닿아 그로부터 4년 후 2013년 괴산 산골 마을에는 아주 작은 어린이집이 생겼다. 오래되고 낡은 복지회관 건물 한켠을 리모델링해 만든 농촌아이공동돌봄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말이다.

80년대 새마을 유아원었다가 2000년대 초반 찜질방으로 용도가 바뀌었던 복지회관 건물은 또 다시 새 주인을 맞이했다. 한참 동안 비어 있고 쓰임새가 다할 때쯤 농촌소규모어린이집인 송면어린이집이 그 자리로 간 것이다. 낡은 찜질방 실내 벽을 깨고 칸을 막아 공간을 분리하며 그럭저럭 모양을 갖추는 정도로 시작했다.

이쯤 되면 송면어린이집은 지역과 마을의 응원으로 탄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보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에 다들 동의 했지만 막상 어린이집이 생기고 나니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사업 취소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막강한 힘으로 주민들과 학교에서는 어린이집 개원을 필사적으로 막았고 얼떨결에 원장이라는 위치에서 사업을 받았다는 책임으로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항상 그렇듯 한다? 하지 않는다?에서 나의 선택은 '한다'였다. 안하고 후회하기 보다 하고 후회하기로 했다.

커다란 진통을 겪은 후 송면어린이집을 선택한 아이들은 단 6명. 이 중 3명은 교직원의 자녀. 유기농 먹거리를 먹고,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짜임새 있게 운영하려던 계획은 조금 수정되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먹거리를 최우선에 두었고, 무슨일이 있어도 교직원 처우를 위한 돈은 아끼지 않기로 했다. 보육프로그램으로는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의 가치를 더 극대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먹고, 자고, 쉬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마을이 품은 다양한 장소과 자연환경을 이용하기로

했다. 날씨의 변화와 자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작은 변화를 아이들의 삶으로 들이기 했다.

점차 아이 중심의 하루 흐름과 일과 구성은 자연, 계절, 날씨 등을 살피는 매일의 나들이와 산책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을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였다. 차츰 송면어린이집은 매일 마을로, 들로, 산으로 나가 노는 어린이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봄에 뜯은 쑥으로 쑥개떡을 만들어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나눠드리는 아기들로도 유명했다. 닫히지 않고 열려진 구조의 교육과정과 개방적 교실 모델을 실험한 것이다. 작은 공간에서 생기는 갈등은 좀 더 넓은 마당으로 나아 놀면 해결되었다. 교재교구 대신 지천에 널려있는 자연물을 발견하고 관계하며 놀이하는 재미가 아이들의 일상을 채웠다. 시골에서 아이들의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킬 만한 조건으로 자연만큼 훌륭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비가 오면 물웅덩이를 찾아 놀고, 오디와 산딸기가 익어가는 계절이면 땀나는 줄 모르고 열매를 찾아 다녔고, 눈이 소복이 내린 겨울에는 눈과 얼음 속에서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을 보냈다. 자연이 아이들인지, 아이들이 자연인지 모를 만큼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말이다. 이것이 송면어린이집, 13년 전 초창기의 모습이다.

2. 송면어린이집 보육과정 품고 있는 것들

자연 속 아이들, 자연의 아이들

송면어린이집에서는 자연의 흐름, 세시와 절기에 따른 보육과정을 지난 14년간 실천해 왔다. 아이들의 삶이 자연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하고 교류하며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생태유아교육이라 여겨왔다. 1회성 체험보다 생활 속 경험이자 아이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숲나들이나 텃밭활동이 그것이다. 반복적이지만 예측 가능하고 미리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제공된다. 마을속 익숙한 곳을 가는 산책이 그러하다. 계절에 따른 다양한 놀이와 관계가 펼쳐지는 공간도 마련했다. 앞마당 모래밭과 뒷마당 흙놀이터, 그리고 정원텃밭이 그것이다. 놀이가 삶인 아이들에게 뒷마당에 피고 지는 들꽃과 계절 꽃들은 전부 소꿉놀이의 재료도 되고 다양한 감각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기회도 된다.

아이다움이 피어나는 순간들

오르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매달리고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다소 위험하더라도 흔들리는 배 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아이들, 겨울날 불을 지피면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불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나들이 길에서 발견한 산딸기를 한가득 입에 넣고 동생들과 친구들을 위해 따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아이들, 진달래를 따러 간 뒷산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를 모든 친구들이 지나갈 때까지 잡아주는 마음이 요즘 송면어린이집 6, 7세 친구들의 마음이다. 교실을 너머 마당으로 마당을 너머 마을로 영유아의 세상이 확장되고 있다. 아이들의 신체, 정서, 사회적 관계, 예술적 감각 등이 다채롭게 자극되고 더불어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년간 송면어린이집이 선택하고 집중해온 보육과정의 내용과 원칙들

중요하다고 다 선택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다. 스스로 예측하고, 구상해서 놀이를 계획하고 평가하며 또 다른 형태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루가 흐르고 한달을 보내고 1년을 살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한 보육과정의 내용과 핵심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이것은 아이들의 놀 권리와 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송면의 선택이다. 원훈인 '자연 속에서 스스로 놀며 배우는 신명나는 어린이'로 키워내기 위한 우리의 철학이기도 하다.

(1)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사는 하루, 한달, 일년 그리고

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세시와 절기, 산책 및 바깥놀이를 보육과정에 적용한다.
② 매일 반복적으로 산책하며 작은 변화와 달라짐을 경험한다.
③ 들여다본다, 들어본다, 심어본다, 따본다, 만져본다, 먹어본다, 직접 해본다.
④ 텃밭, 몸짓놀이, 손끝놀이는 하루 일과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구성한다.
⑤ 텃밭 작물들의 심기, 가꾸기, 수확하기, 제 몸에 모시기의 전 과정에 모두가 참여한다.

(2) 영유아 스스로 주도하는 일상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주인이다.
② 모든 원아가 스스로 신고, 벗고, 입고, 먹고, 정리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힌다.
③ 영유아들은 자신의 생활 공간이자 놀이공간을 충분히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④ 텃밭에 핀 모든 식물들은 소꿉놀이를 위한 재료로 쓰일 수 있다.
⑤ 충분한 자유놀이를 보장한다.
⑥ 앞뒷마당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할 수 있도록 흙과 물을 넉넉히 준비해두고 삽을 비롯한 다양한 도구들을 충분히 갖춰둔다.
⑦ 날씨와 계절에 따라 마을 이곳 저곳을 즐겁게 탐험하고 모험할 수 있다.

(3) 전연령 통합활동 핵심은 영아

① 영아의 보육과정은 형님들의 활동을 지켜보거나 모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연령 통합 활동으로 펼쳐지는 세시 잔치나 그 외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지켜보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몹시 중요한 '영아보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몸짓놀이는 전 연령이 함께 한다. 아주 어린 동생들이 할 수 있는 동작부터 동물형상 몸짓놀이, 리듬몸짓놀이까지 전 과정은 모두가 지켜보고 모두가 함께 한다.

(4) 날마다 달마다 잔칫날

① 생일잔치는 개별 원아의 생일에 한다. 충분히 축하하고 맘껏 즐기는 귀한 날이다.

② 생일인 친구를 위해 카드를 준비하고 생일인 친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정성껏 요리한다.
③ 그 외 모든 행사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잔치로 펼쳐낸다.

(5) 작은 어린이집 큰 세상, 지역연계가 생태교육

① 지역의 자원인 논, 밭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연결한다.
② 지역의 자원인 숲과 계곡을 제집 드나들 듯 다녀온다. 숲나들이 장소가 정해지면 1년 동안 지정된 숲의 4계절을 느끼고 배울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③ 숲은 또 다른 교실, 숲해설가 없이 발견하고 몰입하고 탐험하며 관계 맺는 유능한 아이들의 모습이 피어나는 곳이 숲이다.
④ 그 외 마을 곳곳을 배우고 놀이하는 공간으로 연결한다.

(6) 진짜 특별한 것만 하는 특별활동

① 특별활동은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격주로 진행하는 도예프로그램 1개로 제한한다.
②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일상을 끌고 다니지 않게 한다.

3. 송면어린이집 하루흐름

하루 기본 흐름

어린이집의 하루는 등원, 오전간식, 산책 및 바깥놀이, 점심식사, 낮잠 및 휴식, 오후간식, 바깥놀이 후 하원으로 이어진다. 차량운행은 없으며 부모나 양육자와 함께 등하원한다. 매일 비슷하게 반복된 하루를 보내며 텃밭과 세시활동은 산책 및 바깥놀이 시간에 진행한다. 오후 바깥놀이는 3시 40분부터 하원 전까지 진행되며 전 연령 통합 활동으로 앞뒷마당을 오가며 자유롭게 펼쳐진다. 마당에서 놀 때는 맨발로 놀 수 있다.

어린이의 시간, 실내 틈새 놀이

굵직한 하루 흐름 속에 영유아들은 실내 자기놀이 계획을 곳곳에 배치한다. 등원부터 오전 간식 전까지, 점심 식사 후부터 낮잠 전까지, 오후 간식 이후부터 바깥놀이 전까지 아이들의 놀이는 저마다의 내용들로 채워진다. 틈새놀이 전략은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영유아들의 몫이다. 마치 가장 북적이는 재래시장의 생동감이 여과 없이 느껴지듯 말이다.

교사의 시간, 모두의 시간

오전 간식을 먹고 난 후 방별로 담임교사와 함께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이야기 모둠이 진행된다.

어디로 산책을 나갈지 정하기도 하고, 안팎에서 준비된 세시활동이나 손끝놀이, 텃밭활동을 안내하기도 한다. 단, 월요일 몸짓놀이와 화요일 노래부르기와 같은 전연령 통합활동은 연령에 상관없이 담당교사가 전체를 이끌고 진행하며 협력교사가 그 과정을 지원한다. 이는 모두의 시간이다. 모두의 시간은 모든 교사들과 모든 영유아들이 꼭, 반드시, 모두 참여한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어린이의 시간, 세상 밖 관찰하기, 탐험하기, 발견하기, 관계하기

어린이집 실내를 벗어나는 순간, 어린이집 담장을 넘는 순간, 뒷마당 정원텃밭으로 발을 딪는 순간 어린이의 시간이 시작된다. 돌밑에 사는 곤충을 찾아보고 땅을 파고 물길을 만들며 세상을 창조한다. 소꿉으로 케이크도 만들고 텃밭에 익어가는 딸기도 따 먹는다. 잘 익은 오이도 따와서는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 빨래터, 정자, 버섯집, 창고와 같은 나들이 장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잡기놀이는 버섯집, 빨래터는 물놀이, 정자는 여우야여우야, 창고는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놀이 상관관계를 이루는 곳이다. 나들이를 다니는 장소는 수년간 영유아들에게 각인된 기억들과 감각들이 섞여 의미있는 장소로 재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4. 하루, 한달, 일년이 연결되어 만드는 아이들의 삶

즐겁게 논 하루가 연결하는 그 다음들

날씨와 계절이 변할 때마다 아이들의 일상과 놀이는 새롭게 채워진다. 경칩에 숲으로 가 개구리 알을 찾아보고 봄을 알리는 숲의 장면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개구리 뒷다리가 나올 쯤에 만개한 진달래를 발견하고 꽃을 한 잎 따 먹으면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했다는 것을 안다. 매주 가는 숲에서 개구리 알이 부화하고 어느새 뒷다리와 앞다리를 내보이며 세상살이 준비를 하는 개구리를 보며 더없이 반가움을 느끼는 아이들이다. 올챙이를 찾으며 물방개, 물자라도 만난다. 채집할 어떤 통도 들고 가지 않은 걸 후회하고 그 다음주에는 꼭 플라스틱 두부곽이라도 들고 갈 것을 다짐하는 아이들이다.

한달은 놀아봐야 제대로 놀지!

개구리 알을 만났던 계곡 아래 넓은 자연 물놀이장이 있다. 여름이면 매일 오전 그곳으로 간다. 수영복을 원복 삼아 갈아입고 물놀이를 한다. 수영도 하고 물고기를 잡거나 수생식물들을 찾는 놀이도 한 달 내내 펼쳐진다. 이제 갓 등원한 아가들은 발 담그는 것도 무섭지만 여름이 지날 때쯤 물속 한켠을 차지하고 앉아 첨벙거리며 놀게 된다. 물과 자신을 혼연일체한 모습으로 말이다. 한 해, 두해가 지나면서 큰 아이들의 물놀이 솜씨는 완전한 자기조절과 자신감으로 꽉 차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 줄 아는 형님으로 자라있다.

놀이와 연결된 나들이 장소, 비오는날엔 창고지!

장마철에 놀 곳이 필요하다.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면 잠시 기다렸다가 창고로 간다. 창고는 마을에 있는 공동 집하장 같은 곳이다. 창고 앞마당에 지붕이 있어 꽤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비가 오면 아이들은 창고로 향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늑대야 늑대야 지금 몇시니?, 여우아여우야” 등 각종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옆에서 구경만 하더라도 동생들도 따라간다. 우루루 몰려다니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 깍두기가 되어 뛰어다니는 것만으로 배움이기 때문이다.

밤 좀 줍는 어린이들, 밤송이는 형님이 깔께!

어린이집 뒷마당에 밤나무가 4그루가 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다양한 크기의 밤이 쏟아진다. 첫밤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은 설레기 시작한다. 2, 3살부터 다닌 6,7세 친구들은 생밤의 맛과 찐밤의 맛, 군밤의 맛을 기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밤 줍는 재미 푹 빠져 논다. 줍는 것보다 밤송이에서 밤을 까는 재미를 더 즐기기도 한다. 제 발을 조절하고 손을 조절하며 밤 송이에 밤을 빼내는 일련의 과정이 무척이나 진지하고 흥미롭다. 그 모습을 보며 크는 아주 어린 동생들은 그 행동을 기억하고 훗날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때 쯤이면 어김없이 따라 할 것이다.

콩은 삶아야 맛있고 메주는 밟아야 맛이지!

입동 즈음에는 김장도 담그고 메주콩도 삶는다. 아이들은 산책을 다니면서 꽤 좋은 뗄감들을 주워 온다. 물론 그 뗄감들이 반드시 좋은 장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중한 불 소시개로 이용되곤 한다. 다음해에 먹을 된장을 만들기 위해 콩 삶는 과정을 모든 아이들이 지켜본다. 불 곁에서 불장난도 하고 적당히 익은 콩 맛도 본다. 아기 제비들처럼 입을 벌리고 콩을 받아 먹는다. 이 때 콩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콩을 싫어하는 아이가 되기 무척 어려우며 오히려 콩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기가 더 쉬워진다. 두발로 다져 만든 메주는 잘 말려 이듬해 봄 장항아리에서 숙성된 후 된장과 간장으로 만들어진다. 이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참여한다.

얼음과 눈 세상이 키우는 아이들

한 겨울에는 마을 전체가 눈과 얼음 세상으로 변한다. 일년 내내 나들이 다니던 마을은 꽁꽁 얼어 붙었다. 추웠다 풀렸다는 반복할 즈음에는 고드름도 열리고, 여름에 배도 타고 수영도 했던 개울은 어느새 얼음판으로 변해 있다. 아이들은 매일 모자와 두꺼운 외투, 장갑을 끼고 커다란 썰매를 끌고 얼음판으로 향한다. 나무 썰매를 꼬챙이를 눌러가며 타 보기도 하고 플라스틱 썰매에 올라타는 동생들을 끌어주기도 한다. 겨울되면 한해동안 성장한 아이들의 진면목이 보인다. 지난해 놀았던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 더 즐겁고 신나게 노는 방법을 찾아 낸다. 그렇게 아이들은 겨울 속에서도 자라난다.

겨울을 준비하는 특별한 하루

어린이집에 3, 4년쯤 다닌 아이들이 있다. 상강 즈음에 곶감깎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앉아있는 아이들이 이들이다. 1, 2개를 깎고 그만하겠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하나까지 끝을 봐야 끝내는 아이들이 있다. 이게 뭐라고 열심히 깎는다. 정확하게 껍질을 벗기고 깔끔하게 작업을 한다. 한번 훑어보며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다음 목표물을 또 깎는 것이다. 생태교육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무언가를 끝까지 해보는 힘이 생겼는가? 손끝이 야무지게 발달하는 수많은 생활 속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삶과 유리되지 않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가? 곶감철에 감을 깎아 말리고 찬겨울 밖에서 놀다가 하나씩 따 먹는 맛! 그것을 아는 아이들이 맺은 감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하지 않은가?

반복과 익숙함이 주는 선물

자연은 반복되고, 계절도 반복된다. 아이들의 경험도 반복되지만 다른 게 하나 있다. 그것은 경험의 깊이와 넓이다. 더 깊고 넓게 확장된다. 자연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는 아이들에게 '때가 되었다'는 것은 신나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여름날 매미가 울 때 아이들이 달려가는 곳은 해마다 매미 허물이 발견되는 이평리 마을 개나리 담장이다. 그곳에 가면 어김없이 매미 허물들이 매달려 있다. 이를 발견한 아이들은 훈장처럼 제 가슴에 매미 허물을 달고 서 있다. 동생들 가슴에도 붙여준다. 이게 뭐라고 매미와 자신의 관계를 연결 짓고 행복 해 한다.

5. 아이들이 진짜 배우고 있는 것

제 마음을 꺼내고 만족할 만큼 표현하더라.

할아버지와 등원한 해빈이가 대문을 열고 빠르게 달려 현관으로 들어왔다. 무엇이 생각난 건지 이면지를 꺼내 들고 책상에 앉더니 큰 얼굴을 가진 고양이를 그린다. 한 10분쯤 지나고 서너장쯤 그렸을까? 다 그린 그림을 교사에게 보여주며 "선물이야."하며 건낸다. 마음 같아선 저 벽에 모두가 보라고 붙여두고 싶지만 아이는 그저 그 행위, 그림을 그린 그 순간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림을 다 그리고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 논다. 집에서부터 고민했을 아이의 마음. 고양이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잊지 않게 구현하려던 아이의 마음이 전해졌다.

성공의 경험을 또 다른 놀이의 지지대로 삼더라.

"난 안돼. 긴 줄넘기 너무 싫어. 자꾸 않되니까 속상해." 속상해서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의기소침에 있기도 하고, 심통도 냈던 아이가 있다. "어? 원래 다섯 살은 어려운 건데? 6, 7살쯤 되어야 잘 할 수 있어. 그래도 도전하는 건 응원해. 어때 해볼래?" 형아들 만큼 긴줄넘기를 잘 넘고 싶었

던 다섯 살 지원이. 매일 형님들이 폴짝이는 것을 보았건만 자기가 하는 것은 안되는 거다. 포기하고 울기를 반복했지만 틈만 나면 긴줄 위를 뛰어 올랐다. 그러던 어느날 아주 우연히 성공했다. 무려 10번 이상 성공. 모두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축하를 해준다. 그 후 아이의 긴 줄넘기 신공은 차고 넘치도록 늘어났고, 짧은 줄넘기를 비롯해서 줄넘기 돌리기도 제법 수준급이다. 잘 안되 도전을 주저하는 동생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준다. “원래 어려워. 연습하다보면 언젠가 될 수 있어. 7살이 되면 더 쉽게 되더라고.”

대장도 되고 안내자도 되더라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아이들은 나들이 장소를 교사들에게 안내한다. “여기는 지난 봄에 개구리가 알을 낳았던 곳이라 한번 보고 가야해요. 이쪽으로 와요” “진달래가 많이 피는 곳인데 과자에 생크림이랑 꽃을 놓고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는데.” 벌레들을 발견한 이야기도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제법 잘 말해주는 아이들이다. 꼬꼬마 아기였을때 유모차를 타야 겨우 갔던 그 길에서 최고의 대장 노릇을 하는 여섯 살 지한이는 숲대장이다. 뱀이 나올 줄 모르니 막대기를 들고 땅을 울리게 해야 한다든지, 발걸음을 세게 내야 한다든지 잘 알고 있다. 반복된 경험이 어느새 아이의 감각과 기억에 잘 쌓여 있고 그것을 꺼내어 골고루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배려가 힘든 순간일지라도 동생들을 배려하더라.

큰 아이들이 노는 곳에 달려드는 만0,1세 아이들이 있다. 큰 아이들의 표정이 곤혹스럽다. 동생들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를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는데 더 몰두하는게 보인다. 교사에게 동생들이 달려오고 있음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두팔을 펼치곤 접근 금지를 선언하기도 한다. 설명해도 안 되는 너무 어린 동생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번쩍 들려 제 교실로 옮겨지지만 통합형 실내에선 언제든 있을법한 일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아기들은 그럴 수 있어. 속상해도 어쩔수 없지 뭐.”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을 간다거나 바깥놀이를 할 때 가장 먼저 배려되는 대상은 동생들이다. 손을 잡아주고 챙겨주는 역할은 형님들의 가장 최고의 역할이자 몫이 되고 있다. 사랑받아본 경험을 기억한 형님들은 자기들이 배려받았던 마음을 기억하듯 동생들을 챙겨준다.

놀이를 기획하고 구상할 줄 알더라

매일, 매달, 매년 반복되는 일상은 아이들을 더 깊고 넓게 성장하고 배우게 하는 기반이 된다. 3살 단오 때 씨름을 했던 아이는 삿바를 메고 모래밭에 그저 서 있는게 최선이었다. 이 아이가 5,6,7살이 되었을 때 점차 겨루기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견디고 버티는 놀이로 받아들이게 된다. 어린이집배 씨름대회 천하장사가 타이틀이 붙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게 된다. 씨름판이 벌어지면 작년까지 멀뚱하게 있었던 한 친구가 징 앞으로 다가와 징잽이

가 된다. 보고 기억하며 자기 역할로 들이는 과정이다. 씨름 각축전을 보며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할지 배우는 아이들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응원전이 펼쳐지고 징소리가 퍼진다. 팽이치기, 딱지치기, 긴줄넘기도 그렇하다. 재미의 순간을 더없이 잘 알게된다.

위험에 대처하고 조절할 줄 알더라

높은 곳에 오르고 내리는 모든 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좋아한다. “안돼, 위험해.”하는 제지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아이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지만 그 말에 약해지는 순간 끝까지 해보는 경험은 포기하게 된다. 송면에서는 위험한 놀이가 시작되기 전 이 말을 자주 한다. “네 몸은 누가 지키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가”라고 외친다. 어린이집 마당에 있는 바위와 뒷마당에 있는 다빈치 다리를 오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명확한 선을 정했다. “혼자 내려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혼자 못 내려오는 친구들은 올라갈 수 없어. 선생님들은 도와줄 수 없거든. 이건 혼자 하는 놀이야. 어때? 도전해 볼래?” 자칫 단호해 보이는 이 말은 아이들에게 한번 더 안전을 감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바위에 오르다가도 아래를 쳐다보며 회기하는 순간을 정하는 아이들이다. 이것은 영유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하며 다치지 않고 노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제몸을 스스로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영유아 시기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자기이해의 과정이다. 손과 발을 잘 조절하고 역량있게 쓸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경험하며 수없이 많은 과정에서 조정하는 기회를 갖었을 때만이 배우는 것이다.

긍정적 예측과 기대, 아름다운 동기 부여가 연결되어 피어나는 놀이문화가 되더라.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반복되고 반복된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좋았던 기억과 감각들이 되살아 나는 과정이 된다. 아이들은 “아, 이건 이럴 거야. 이곳에 가면 이걸 찾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놀아볼까?” 해봤던 놀이를 기억하고 꺼내어 현재 시점을 다시 확장하는 것이다. 2세, 3세, 4세의 기억과 5,6,7세의 경험이 같지만 다르다. 누가 주도했는지, 어떻게 주도했는지, 손끝만 썼는지 온 몸으로 만났는지에 따라 같은 경험도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긍정적 감각이 기억하는 예측이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놀이로이끌어 간다. 그것이 송면의 문화이자 힘이지 않을까 한다. 함께 놀면 재미있고, 같이 나누면 즐거우며 맛있는 건 나눠먹고 좋은 건 같이 노는 그것이 바로 송면의 문화인 것이다.

6. 나가며~ 우리 계속가도 되나요?

지난 정부에서 말한 유보통합이 답보 상태로 3년 정도 지났다. 통합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는 차치하더라도 유치원 교육과정 중심으로 유보통합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보육은 영유아의 삶이 어떻게 아이답게 피어나고 영유아가 고유한 존재로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

지 고민한다. 하루를 중심에 둔 삶에서 말이다. 하지만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점이 다소 고려되지 않는 듯 해 아쉬움이 크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시간이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놓이는 것 같아 더 그렇다. 아이들은 지금 이대로 현재를 살면 되는데 말이다.

꽉 짜여진 시간표보다 틈새가 놀이로 펼쳐지고 하루의 리듬이 영유아의 몸과 마음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연의 흐름, 날씨의 변화, 계절의 달라짐처럼 아이의 세계도 변화무쌍하니 말이다. 하늘과 바람, 땅과 물이 키워내는 대자연이 결국 우리 아이들도 키우는게 아닐까 한다. 자연을 들이고 만나는 일, 작은 변화와 달라짐을 발견하는 일, 무심코 도시숲에 피어난 이름모를 꽃들에 환호하는 일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송면어린이집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응원한다. 오래도록 지켜보고 발견하며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아이들의 세상이 아름답다. 굳이 놀이라 지칭하지 않아도 모든 삶을 자신의 놀이 영역으로 들일 줄 아는 아이들의 유능함을 믿는다. 그래서 계속 지금처럼 가려고 한다. 아이들의 삶이 분절된 시간으로 나뉘지 않고 항상 연결되는 순간임을 존중한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례발표 2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I

유치원형:
혼합연령반으로 관계가 살아나는 교실

강창아
세종, 공립단설 두루유치원 교사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I
유치원형: 혼합연령반으로 관계가 살아나는 교실

강창아 | 세종, 공립단설 두루유치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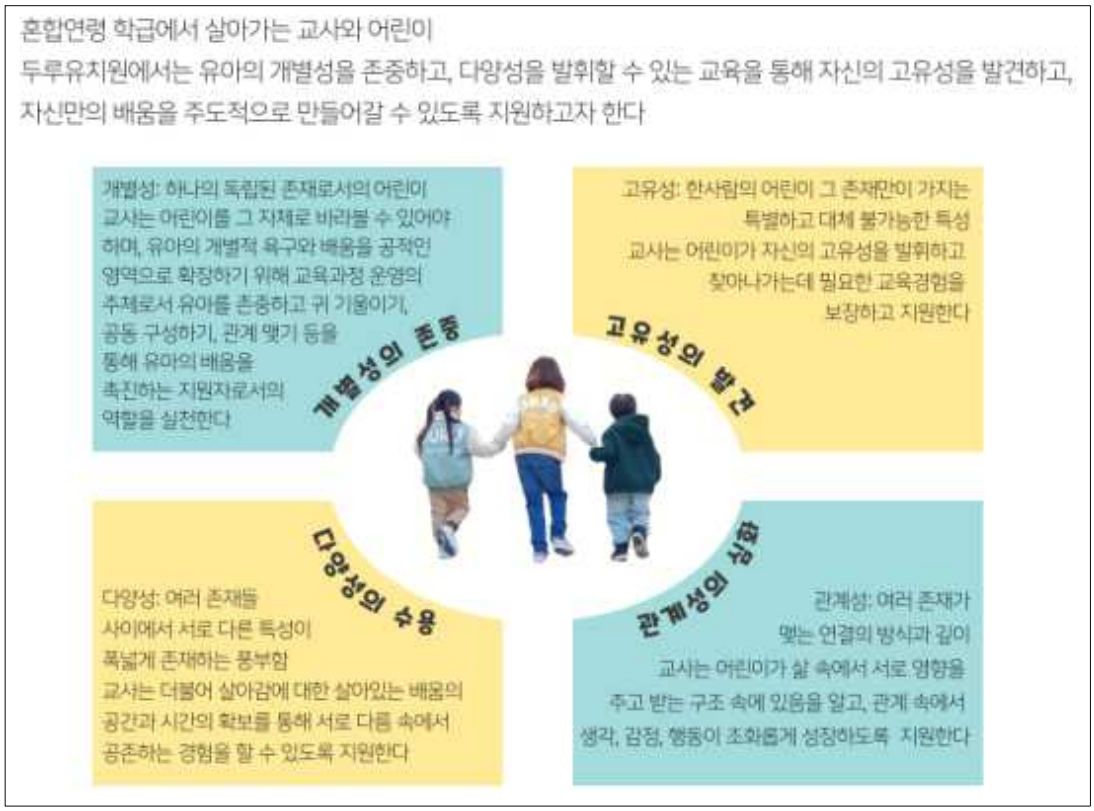
1. 혼합연령 학급구성으로의 변화

2015년 문을 연 두루유치원은 2016년 세종혁신유치원, 2020년 세종혁신자치유치원을 거치며 끊임없이 교육의 본질을 탐구해 왔다. 2021년에는 기존의 단일연령 학급구성을 탈피해 '혼합연령 학급구성'이라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전국 공립 단설 유치원 중 유일무이한 행보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루유치원은 2026년 현재 '전환형 숲생태유치원'으로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 중이다. 혼합연령으로 다져진 아이들의 연대감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자연이라는 드넓은 캔버스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확실하다. 진정한 교육적 혁신은 화려한 기자재나 값비싼 프로그램의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구조의 변화가 행동을 바꾼다.

단순한 교육과정 수정을 넘어, '혼합연령'이라는 학급 구조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아이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와 배움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두루유치원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이다. 어린이를 연령에 따른 기준이 아닌 개별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고유성과 다양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두루유치원의 철학과 이를 온전히 존중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적 방향성을 펼칠 수 있는 장, 교육적 효과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혼합연령 학급구성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래는 2026학년도 두루유치원 교육계획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혼합연령 학급편성의 배경 _ '나와 너, 우리' 함께 걷는 길을 만들다
유아를 연령에 따른 기준이 아닌 어린이 개별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고유성과 다양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온전히 존중하고자하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 혼합연령 학급구성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어린이의 배움을 가장 중심에 둔 학급구성 방식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혼합연령 학급 속 어린이들은 연령간 경계를 벗어난 관계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해나간다. 유아는 개개인의 흥미, 관심, 발달 수준에 따른 독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며, 자신만의 특별함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과 속도로 놀이하고 배움을 만들어간다.



2. 혼합연령과 생태교육의 만남

유아 개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타인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유아교육 현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두루유치원의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혼합연령 학급구성'과 '생태교육'이 만나는 지점을 고찰하고, 이 두 가지 교육적 양식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와 교육적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혼합연령 학급구성과 생태교육은 상호 간의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 기저에 흐르는 철학과 지향하는 생태적 가치가 완벽히 맞닿아 있는 '닮은꼴 교육'이다. 이들의 만남은 다양성을 교육공동체의 풍성한 자원으로 변모시키는 강력한 기제가 된다.

3. 혼합연령 학급구성과 생태교육의 철학적 연계 지점

혼합연령 학급과 생태교육을 관통하는 본질적 가치는 '조화'와 '어울림'에 있다.

가. ‘생태공동체’로서의 자연과 ‘생활공동체’로서의 혼합연령 학급의 유기적 닮음

숲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에는 정해진 모범 답안이나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대한 아름드리나무부터 이름 모를 작은 풀꽃, 곤충과 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이 저마다의 모양과 속도로 존재한다. 만물이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이라는 하나의 유기적 질서 안에서 관계 맺고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자연은 그 자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생태공동체이다.

유아의 고유성을 존중하고자 시작된 혼합연령 학급 역시 이와 결을 같이한다. 서로 다른 연령과 발달 수준을 지닌 어린이들이 모여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두루유치원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결핍이나 차이가 아닌,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한다. 큰 나무와 작은 풀이 숲의 균형을 이루듯, 유아들 역시 다름 속에서 공존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습득한다.

나. 경쟁이 아닌 ‘관계와 상호의존’의 가치 발현

비교와 경쟁이 은연중에 체화되기 쉬운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혼합연령 학급과 생태교육은 분리보다 관계를, 경쟁보다 공존을 상위 가치로 둔다.

특히 정형화되지 않은 공간인 숲과 생태적 환경은 혼합연령 유아들이 협력하고 어울릴 수 있는 최적의 매개체이다.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경험이 축적된 유아들은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래를 이끄는 리더십, 배려, 책임감을 체득한다. 반면 생태적 경험이 아직 적은 유아들은 또래의 모델링을 통해 정서적 안도감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공동의 놀이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경험을 축적한다. 연령에 따른 격차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배움의 자원으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관계 중심의 배움이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다. ‘나와 너’를 넘어선 ‘우리’라는 공동체적 성장

자연 생태계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소통하며 공존의 질서를 스스로 형성해 나간다. 혼합연령 학급의 어린이들 또한 이와 같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성장한다. 초기에는 단지 ‘나’와 ‘너’라는 개별 존재로 인식되던 관계가, 숲과 교실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우리’라는 거대한 생태적 울타리로 확장된다. 결국 두 실천 양식은 다양한 존재들이 각자의 모습과 역할을 지닌 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이한다.

4. 혼합연령의 실천적 가치를 선명하게 만드는 생태교육 환경

다름에 대한 인정과 배려의 학습은 단일연령 학급에서도 실현 가능하다. “혼합연령이기에 생태교육이 특별해진다기보다, 숲과 자연이라는 열린 환경이 혼합연령 학급이 내포한 교육적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경이로운 생태 환경 속에서 빛나는 혼합연령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일상적 환경으로서의 '다름과 고유성' 수용

혼합연령 학급은 단일연령 학급에 비해 신체 발달, 언어적 역량, 인지적 경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환경이다. 그러나 숲과 자연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러한 '다름'은 비교나 서열의 기준이 아니라 유아들이 매일 마주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교육과정이자 환경'이 된다.

유아들은 자연 안에서의 연속적인 경험을 통해 타인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획일적인 기준이 부재한 공간이기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저마다 가진 모습의 고유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갈등을 조율하고 상호를 수용하며, 다름 속에서 공존하는 문화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나. 교실 안팎에서의 자발적인 배움과 지식 전수

정형화된 교실 공간을 벗어난 자연 환경은 매 순간이 탐색과 도전의 연속이다. 이때 혼합연령 유아들 사이에서는 교사의 인위적인 지시 없이도 배움과 전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가파른 나무를 오르는 신체적 요령, 숨어있는 곤충을 발견하는 방법,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회피하는 지혜 등 먼저 경험을 축적한 유아들은 친구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며 나누는 기쁨을 누린다. 반면 경험이 부족한 유아들은 교사라는 성인이 아닌, 가장 가까운 근접발달영역(ZPD)의 모델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안도감을 획득하고 새로운 발달적 도전을 시도한다. 자연은 유아들이 상호 호혜적으로 소통하는 배움의 생태계가 된다.

다. 삶으로 실천하는 '돌봄과 배려의 문화' 형성

내 몸을 움직이고, 주변의 다양한 존재들을 관찰하며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상 속에서 배려는 관념적 구호가 아닌 실천적 삶의 양식이 된다. 자연의 지형지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걸음이 느린 또래를 위해 기다려주며, 타인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는 돌봄이 일상화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는 공동체 내에서 '역할의 순환'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도움을 받던 유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인에게 도움을 베푸는 유아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 나간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망 속에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함양하는 이 메커니즘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대자연의 생태계성과도 완벽히 맞닿아 있다.

라. 경쟁을 지우고 '협력 및 상호의존' 중심의 학급 문화 안착

생태교육과 혼합연령이 결합하는 순간 교사와 유아 모두의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난다. 교사는

유아를 연령이라는 제도적 틀이 아닌 개별적인 발달과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며, 유아들 역시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특정 영역에서는 자신이 우월한 역량을 보일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동생이나 형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놀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체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아들의 지향점은 서열 중심의 사유에서 벗어나, “어떻게 함께 놀이할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와 같은 협력적 사유로 전환된다. ‘누가’보다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는 이 협력 중심의 문화야말로 혼합연령 학급이 지닌 최고의 교육적 가치이다.

5.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생태교육은 혼합연령 어린이들이 가진 상호 간의 다름과 고유성을 가장 풍부하게 투영해 주는 거울이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촉진하는 매개체이다.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숲처럼, 우리 아이들 역시 다름 속에서 공존하는 방식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획일성보다 개별성을, 경쟁보다 공존을 지향하는 이 귀한 실천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 의미 있게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역할은 단순히 사회적 요구나 행정적 편의성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 공동체의 지혜와 연대가 두루유치원의 실천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례발표 3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II

지자체 연계형:
생태영유아교육 시범사업이 이끄는
생명살림·아이행복 도시

권선임
부산,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생태영유아교육 실천모델 III
지자체 연계형: 생태영유아교육 시범사업이 이끄는 생명살림·아이행복 도시

권선임 | 부산,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Ⅰ.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의 출발

생태영유아교육은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놀이·아이다움을 찾아주자는 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초기부터 현장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이러한 교육 철학과 방향에 뜻을 같이한 일부 원장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개별 기관 단위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처럼 현장 교직원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던 생태영유아교육은 지역 보육·교육의 질을 높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던 지자체의 정책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와 도봉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등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생태영유아교육을 통해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생태영유아교육의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의 출발점이다.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은 생태영유아교육이 정책과 제도의 기반 위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생태영유아교육이 개별 기관 단위의 점진적 확산 단계에서, 지자체의 공신력과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생태영유아교육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의 사업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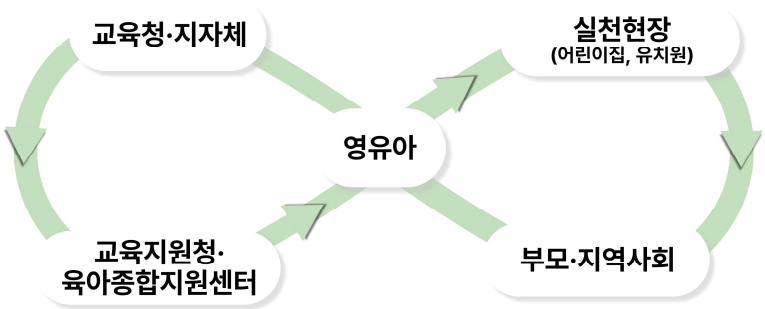
Ⅱ.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

1. 사업 목적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은 지역사회 내 개별 기관들의 생태영유아교육과정 전환을 지원하여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역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을 확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 추진 체계와 주체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은 사업의 단위가 '단일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기관이 동참하는 '지역사회'를 전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움직이는 힘은 영유아를 둘러싼 보육·교육 주체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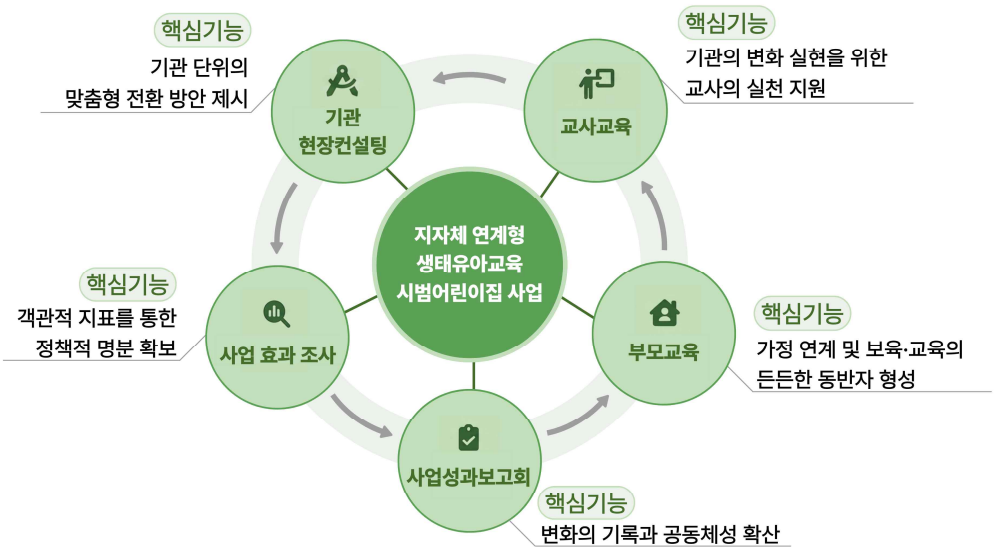


[그림 1]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의 추진 체계

○ 교육청·지자체: 정책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안정적 예산 및 행정적 지원과 공신력 확보,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당한다.
○ 교육지원청·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 실행과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컨설팅 및 교육 제공, 컨설턴트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 실천 현장(어린이집·유치원): 실질적이며 주도적인 실천의 주체이다.
○ 부모·지역사회: 공동 양육의 주체이자 동반자이다.

3. 주요 사업 요소

지역마다 사업 명칭과 세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은 대체로 다섯 가지 사업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업 요소들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기관들의 생태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순환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2]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의 사업 요소 및 핵심 기능

가. 기관 현장컨설팅

기관 현장컨설팅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아이들이 생활하는 실제 공간, 일과, 교사문화, 부모관계 안에서 운영 전반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이론적 이해나 획일적인 방법의 적용이 아닌 각 현장에 맞는 실천으로 정착된다.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 전문가인 컨설턴트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기관별로 실천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원장 교사가 감당 가능한 실천계획을 함께 만들어 간다. 사전컨설팅, 실행계획안내, 중간컨설팅, 사후컨설팅으로 4-5회기로 구성되어 기관의 준비, 실행, 보완, 정리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나. 교사교육

교사교육은 기관 현장컨설팅 사업과 함께 생태영유아교육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법들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관의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를 실행하는 교사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교사교육은 단순히 단편적인 프로그램 목록을 전달하는 기능적 연수가 아니라 교육관의 전환을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산책과 바깥놀이는 단순한 실외활동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몸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텃밭은 수확물을 얻는 활동이 아니라 흙을 만나고 기다리고 돌보는 과정이며, 세시풍속은 절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리듬 속에서 먹고, 놀고, 어울리는 잔치임을 인식하는 교사교육이어야 한다.

다. 부모교육

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온·오프라인 강의나 참여활동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에서 부모교육은 단순한 교양 강좌의 차원을 넘어, 부모의 양육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는 핵심적 동력이자 생태영유아교육 확산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전환을 이뤄내는 결정적 통로가 바로 해운대구와 도봉구의 '좋은부모자격과정'이다. 본 과정은 단발성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8회-10회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생태부모됨, 생태적 양육, 미디어교육, 건강한 먹거리 등)으로 진행되며, 부모들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관과 같은 결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가 된다. 생태기관 전환 시 가장 부담스러운 학부모의 우려와 오해를, 지자체가 공신력 있는 예산과 교육을 통해 설득하고 완충해 주기 때문이다. 부모가 든든한 아군이 된다는 확신이 되는 순간 현장의 사업참여 의지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체계적인 부모교육은 현장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의 전국 확산을 견인하는 기반이 된다.

라. 사업성과보고회

사업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교사와 아이, 부모가 함께 일구어낸 변화를 기록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장이다. 생태영유아기관으로 전환의 과정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를 알려 성과를 공유한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게는 실천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들에게는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불어넣으며, 나아가 우리 지역의 보육문화를 영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바꾸어나가는 공동체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마. 사업 효과 조사

사업 효과 조사는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 기관의 원장,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기관·교사의 변화와 부모의 인지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영유아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가졌어도, 그것이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감상에만 머문다면 공공 정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기관이나 부모의 현실적인 우려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안도감과 신뢰로 바꾸어 준다. 보육·교육 주체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생태영유아교육은 현실 가능하며, 실제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해법임을 설득하고 확산해 나가는 정책적 기반이 된다.

4. 해운대구 「생태유아교육[1] 시범어린이집」 사업

가.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해운대구는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의 최초 발상지로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선도 사례이다.

2016년 3개소로 시작한 사업은 2025년 10차년도까지 지속되었고, 누적 참여 기관수는 총 100개소에 달하며, 이는 관내 어린이집의 70%(2025년 12월 기준 관내 어린이집 총 143개소 중 100개소)가 생태유아교육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거쳐 갔음을 뜻한다. 물론 100개소 모두가 단기간에 완벽한 생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해라도 본 사업에 참여하여 생태보육의 실천 방식을 경험한 것 자체만으로도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우리 원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천의 용기를 얻는 마중물이 마련되었다.

나. 사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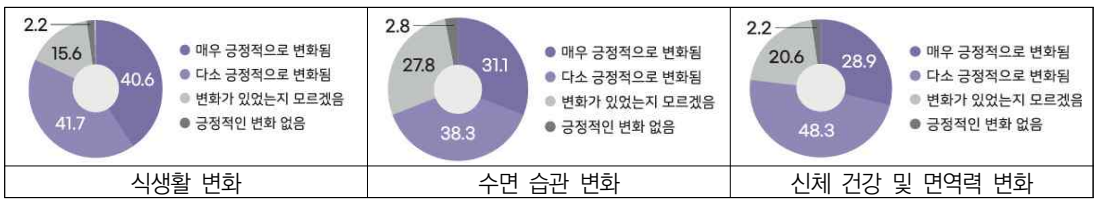
해운대구 생태유아교육 시범어린이집 사업은 지난 2016년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단절 없이 지속되어 왔다. 사업 초기에는 단편적인 만족도 조사 중심의 평가에 머물렀으나,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

1) 용어 표기 안내: 전체 원고에서는 '생태영유아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하였으나, 해운대구 사례에 한해서는 실제 공식 사업 명칭인 '생태유아교육'을 준용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 수집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2022년 이후의 데이터로 본 사업이 해운대구의 아이·교사·부모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를 통해 본)아이의 변화

(단위:%)



식생활 변화	수면 습관 변화	신체 건강 및 면역력 변화

매년 학부모 대상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수면 습관, 신체 건강 및 면역력 강화의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율이 매년 하락 없이 약 70% 이상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실질적이다. "채소나 과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깊이 잠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체력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는 생태유아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먹거리, 삶의 리듬, 건강이 회복해 가는 유의미한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생태유아교육의 효과는 원 내 보육과정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아이의 삶 전반으로 이어진다. 아이의 행복한 생활을 부모가 매일 집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본 사업이 거둔 가장 뜻깊고 본질적인 성과일 것이다.

2) 기관 및 교사의 변화

① '산책 및 바깥놀이'의 생활화

지난 4년의 데이터를 통해 보육 현장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산책과 바깥놀이'의 생활화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이 매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책과 바깥놀이에 대한 실천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책 횟수와 시간 늘려 실천하기', 산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해 5점 만점에 4.92점, 매일 산책을 나가는 '실천력(4.88점)'과 이를 능숙하게 운영하는 '자신감(4.56점)'까지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 점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환경·숲 체험 교육의 수준을 넘어, 아이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과 사람을 만나는 '생활 양식'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② '일과 운영'과 '놀이 시간'의 변화

○ 영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 강화

교사들은 매년 조사에서 어린이집의 가장 큰 변화로 '일과 시간의 변화'를 1위로 꼽았다. 다중응답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교사들은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을 주

고, 일상 속에서 여유를 주려고 노력한 점'을 가장 핵심적인 실천으로, 만족스러운 실천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하루 일과표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내어줄 때 비로소 고유의 놀이 본성과 생명력이 온전히 살아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들은 일과 시간의 변화를 통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영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 단회성 이벤트에서 '긴 호흡의 교육과정' 실현

참여 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기존에는 세시잔치를 추석, 설처럼 이벤트성으로 했었으나, 컨설팅 이후 긴 호흡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고, 만들고, 먹으며 잔치를 있는 그대로를 즐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생태어린이집의 텃밭가꾸기는 수확행사가 아니라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기다리는 '돌봄의 과정'이다. 세시풍속은 절기 수업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 속에서 먹고, 놀고, 어울리는 '삶의 잔치'이며, 산책은 단순히 걷기활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만물(자연·사람)과의 '관계 맺음'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3) 부모의 변화

① 부모의 신뢰 형성과 가정의 변화

부모는 설명만으로 설득되지 않지만, 매일 밖에서 놀며 건강해지고, 어린이집을 즐거워하며,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는 아이의 일상을 목격하면 설득이 가능해진다.

○ 아이의 변화가 가져온 흔들림 없는 신뢰

매년 설문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매년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5년 조사에서는 참여한 부모 전원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자체의 보육 정책에 대한 깊은 공감과 신뢰를 확인했다. 부모들의 생태유아교육 찬성 이유 1위가 '아이들의 건강', 그 다음 '아이가 행복하니까'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매일 밤낮으로 눈에 보이는 아이의 건강과 행복 자체만으로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켰고, 지자체 보육 정책을 믿고 지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현실적 우려를 넘어서는 '아이 행복'에 대한지지

부모(180명)들은 산책과 바깥놀이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44.7%)' 등 지극히 현실적인 염려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점은 불안감 속에서도 산책과 바깥놀이 실천에 대한 찬성률은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걱정은 되지만(61.6%) 찬성한다(98.8%)는 이 역설은, 아이의 긍정적 변화가 부모의 불안감을 이겼음을 보여준다. 또 해당 조사에서 '별달리 우려되는 점 없음'(27%)이라고 답한 부모들도 존재하였다. 이는 단순히 '걱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깥에서 매일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불안감이 안도감으로 바뀐 결과로 보인다.

○ 기관을 넘어 가정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실천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실천은 이제 각 가정의 일상으로도 스며들고 있다. 학부모의 100%가 생태유아교육에 대해 알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산책 및 바깥놀이'는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며, "가정에서도 실천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해운대구의 생태유아교육은 어린이집이라는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 가정의 일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Ⅲ. 타 지자체 사업

가. 서울시「도봉구 생태친화어린이집」사업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생태보육을 시도한 지자체이다. 2018년 생태유아교사교육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총30개소(2025년 기준)의 기관이 생태보육 전환에 참여하였다. 2023년 서울시 생태친화어린이집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좋은부모자격과정' 또한 중단없이 병행하여 현장 변화의 시너지를 더했으며, 이는 이미 2015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해 온 도봉구의 오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생태친화보육'이 맞물려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정책적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나. 서울시「생태친화어린이집」사업

서울시 생태친화어린이집 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광역지자체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확장 설계한 사례이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총 60개소에 3년간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서울시가 사업 총괄과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행을 맡으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내서 개발, 컨설팅 지원, 컨설턴트 양성,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광역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대도시인 서울시가 생태보육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매우 크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 환경 속에서도 자연놀이 중심의 생태보육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의 확산 가능성과 행정 체계는, 향후 17개 시도교육청이나 타 광역지자체가 공공 생태영유아보육 사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세종시「생태유치원」사업

세종시 생태유치원은 어린이집(보육) 중심의 전환 모델을 유치원(공교육) 영역으로 확장하여 영유아기 전반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

도 「학교사업 선택제」를 통해 공립 4개원과 사립 1개원, 총 5개원의 생태유치원을 선정하고, 기관 전환컨설팅, 교원 직무연수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숲·생태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시켰으며, 현장의 지속적인 확산 요구를 이끌어냈다. 이에 추가적인 숲·생태유치원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도시개발 계획, 송전탑 철거 등의 환경 요인으로 추가 설립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유치원을 확산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로 2024년부터 기존 유치원의 교육과정 전환을 통한 「전환형 숲·생태유치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공교육 체제 내에서 생태영유아교육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해 현실적인 돌파구를 만들고 실천해 온 사례로 큰 시사점을 가진다.

Ⅳ.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전략

1. 기관 맞춤형 현장컨설팅 전략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원리는 생태영유아교육 전환이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깊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컨설턴트가 현장에 들어가면 바꾸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기관의 준비도나 교사의 심리적 부담, 부모의 이해 수준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컨설팅은 표준 정답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별 우선순위를 함께 찾는 방식이어야 한다.

첫째, 한 번에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기관은 산책이 잘 되어 있지만 부모교육이 약하고, 어떤 기관은 식생활은 좋으나 놀이시간이 짧으며, 어떤 기관은 원장은 적극적이지만 교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기관의 강점과 수용력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병 준비, 산책가방 마련, 물티슈 대신 행주 사용, 창문 시트지 제거, 놀잇감 비우기, 부모 안내문 제공과 같은 작은 변화가 누적될 때 기관의 문화가 바뀐다.

셋째, 실천을 위한 서식과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컨설팅을 했으니 "알아서 해보라"라는 방식으로는 변화가 어렵다. 실행계획서, 부모안내문, 가정통신문, 세시풍속 예시, 텃밭 운영 예시 등 구체적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컨설팅은 평가나 지도점검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컨설팅의 목적은 현장을 지적하는 데에 있지 않고, 현장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관의 방어적 태도를 낮추고, 원장과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금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호기심으로 참여한 기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을 위해 하고 싶은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실전 전략이야말로, 향후 생태영유아교육 사업을 도입하려는 모든 지자체와 관리주체가 벤치마킹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성공 열쇠이다.

2. 가정과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전략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을 통해 생태영유아교육을 지원하는 궁극적 목적은 기후위기, 아이의 위기 시대 속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관의 생태영유아교육이 가정의 일상과 연결되고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부모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좋은부모자격과정」과 가정의 생활 양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태가정 전환컨설팅」[2]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이 두가지 전략을 통해 가정이 변화할 때 지역사회 전체로 생태적 양육문화를 확산시키는 동력을 얻게 되며, 비로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실현된다.

Ⅴ. 마무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생태영유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의 놀 권리와 행복, 삶의 질을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교사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며, 부모가 불안 대신 신뢰 속에서 아이를 기다릴 수 있도록 교육에 공신력을 부여하겠다는 의지이다.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 전문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다.

해운대구 생태유아교육 시범어린이집 사업은 그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제 해운대구에서는 오전 10시가 되면 산책을 나와 자연 속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눈으로 확인되고 피부로 느껴지는 일상의 변화는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이 단순한 프로그램 보급을 넘어 지역 보육·교육문화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누적 100개소에 이르는 참여기관, 교사의 인식과 실천 변화, 부모의 높은 사업 만족도와 필요성 인식, 아이들의 식생활·수면·신체건강 변화는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의 정책적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역(지자체)으로의 확산이다.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의 복제가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어떤 지역은 어린이집형으로, 어떤 지역은 유치원형으로, 어떤 지역은 교육청 중심으로, 또 어떤 지역은 지자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 원칙은 분명하다. 지자체 연계형 생태영유아교육 시범사업은 단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회기에 걸친 기관 단위 전환 사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장컨설팅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사업성과보고회와 사업 효과 조사를 통해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1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생태보육 공동체로 이어가야 한다.

---

2) 생태양육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환경 및 의(依)·식(食)·주(主)·의(醫) 생활의 변화를 안내하고, 생태적인 양육가치를 가진 가족들이 모여 자발적인 생태육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지원 사업이다.

생태영유아교육은 공공정책이 될 때 더 멀리, 더 오래 간다. 그럴 때 비로소 현장이 바뀌고 아이들의 삶이 바뀐다. 아이들의 건강, 교사의 전문성, 부모의 신뢰, 기관의 일과, 지역의 보육·교육문화가 함께 바뀐다. 공공의 책임과 현장의 실천, 지역의 지속적 지원이 만날 때 생명살림과 아이행복의 도시는 비로소 실제가 된다.

종합토론

- 전선영 | 경기, 조현초병설유치원 교사
- 윤수향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 강효민 | 충남, 생태유아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 김희연 | 세종대학교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아이들의 하루에서 시작되는 생태영유아교육

전선영 | 경기, 조현초병설유치원 교사

저는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사 전선영입니다.

먼저 「K-영유아교육의 미래, 왜 생태영유아교육인가」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발제를 해주신 임재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유보통합이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진정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은 어떤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이가 흙을 만나고, 바람을 느끼며, 친구와 관계를 맺고, 기다려주는 어른 곁에서 살아가는 것은 교육방법이 아니라 **교육철학의 문제**이며, 생태영유아교육이 단순한 자연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회복하는 교육**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아이를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로 존중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개미를 보며 "어디로 가요?", "가족이 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라고 묻습니다. 개구리를 위해 쉴 곳을 만들어 주며, 개구리가 얕은 물을 좋아하는지 깊은 물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며 개구리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직접 심은 씨앗과 나무를 돌보고 아끼고 꽃이 시들면 안타까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생태적 감수성의 출발이며, 동시에 인간이 아닌 존재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의 핵심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현재와 미래 세대,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텃밭에서 아이들은 감자 한 알이 자라기 위해 흙과 햇빛, 비, 바람, 벌레, 계절 등 수많은 존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며 상호연결성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인간 역시 수많은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생태영유아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배우는 생태전환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미래교육의 방향**입니다.

저는 현장의 교사로서 생태영유아교육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태교육을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 철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생태교육은 특정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유아를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자 존중받아야 할 생명으로 바라볼 때 교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놀이와 급식, 산책과 교실 환경, 또래 관계와 교사의 언어 속에서도 생명존중의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 버리는 것 하나에도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생태교육은 자연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생활 전반에 생태적 가치가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태교육을 교육의 근본 철학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산책과 놀이, 텃밭과 숲은 행사나 체험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아이들은 더 많이 흙을 밟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연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AI는 정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흙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AI는 계산하고 답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개구리가 살아갈 공간을 걱정하거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텃밭의 변화를 기다리고, 숲의 계절 변화를 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태감수성이 자랍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감 능력과 생명존중 의식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유치원의 마당과 숲길, 산책길은 특별한 체험장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배움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연이 일상이 될 때 아이들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교사에게 아이 곁에 머물 시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생태교육의 핵심은 활동의 양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하루를 살아냈는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아이 곁에 머물며 생각과 감정을 읽고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유아교사는 기록과 평가, 공문과 보고 등 수많은 행정업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이와 흙을 만지기보다 사진을 찍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문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교사의 시간이 행정에 소모될수록 아이와의 관계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경감이 아니라 생태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AI는 교사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의 본연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AI의 교육적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교사 정책은 새로운 업

무를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교사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AI는 관찰기록 초안 작성, 출결 관리, 행정 보고 보조와 같은 반복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를 관찰하고 대화하며 놀이를 함께하는 일은 여전히 교사의 역할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응과 관계 맺음은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더 집중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최소수집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교육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AI는 행정을 맡고, 교사는 아이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태교육에서 기술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AI와 함께 살아갈 세대이며, 기술을 배제한 채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기록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명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콩의 습도를 측정하며 물을 주는 경험은 기술을 통해 생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적 상상력을 담은 동화를 만들어 가족과 지역사회와 나누며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환경이 서로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디지털은 감응을 확장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영유아교육은 기술을 거부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명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미래교육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생태영유아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와 부모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아는 하루의 대부분을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보내며 교사와 부모의 삶을 자연스럽게 따라 배웁니다. 따라서 생태전환교육이 일상 속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사는 흙과 계절, 생명의 이야기를 교육과정 속 놀이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역시 가정에서 자원 절약과 생명존중의 태도를 실천하며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태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부모가 협력할 때 아이는 일관된 경험 속에서 생태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됩니다. 결국 생태전환은 교육기관과 가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끝으로, 생태영유아교육은 인간 중심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철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영유아교육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배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인간 중심의 생태교육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상호의존성과 공동체성을 배우는 포스트휴먼 생태전환교육의 방향입니다. 아이들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경험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개미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는 마음, 개구리가 쉴 곳을 만들어 주는 손길, 나무와 꽃을 친구처럼 대하는 태도 속에 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거

창한 이론보다 아이들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더 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 속에서 미래교육의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아이들의 하루가 온전한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고, 생명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루, 그리고 교사는 행정보다 아이 곁에 머물며 그 삶을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를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 자연, 기술과 생명은 서로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과거를 회복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이며, 그 하루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 또한 현장의 교사로서 아이들의 하루가 생명과 관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생태영유아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생태영유아교육 포럼 발제 및 사례 발표에 대한 토론

윤수향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Ⅰ. 시작하며: 아이들의 일상으로 들어온 생태영유아교육, 공공의 책임으로 마주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생태전환교육 및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윤수향입니다. 오늘 'K-영유아교육의 미래, 왜 생태영유아교육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진행된 임재택 이사장님의 기조발제와 김은주 교수님의 주제발표, 그리고 영유아교육 현장의 고민이 담긴 세 분의 사례 발표를 매우 감명 깊게 경청하였습니다.

임재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하루와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통찰은 생태전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실무자로서 많은 시사점과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은주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생태영유아교육이 일부 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넘어 유보통합과 기후위기, 저출생 시대에 응답하는 핵심 교육 의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충북 괴산 송면어린이집의 이수진 원장님, 세종 두루유치원의 강창아 선생님, 그리고 지자체 연계형 모델을 연구하신 권선임 연구자님의 발표는 생태영유아교육이 어떻게 유아들의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이러한 현장의 우수한 실천 사례들이 단지 몇몇 유아들만의 특권으로 남지 않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적 토대 위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안착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Ⅱ.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적 확산을 위한 3가지 실행 과제

1. 개별 기관의 실천을 넘어선 '공공적 지원 체계와 정책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과거 생태영유아교육은 확고한 철학을 가진 원장님과 헌신적인 교사들의 개인적 열정에 기대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권선임 연구자님께서 발표하신 부산 해운대구, 서울 도봉구 등의 '지자체 연계형 시범사업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이 단일 기관의

특색사업을 넘어 복수의 기관이 동참하는 지역사회 공공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역시 이를 잘 뒷받침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부터 유치원 텃밭 가꾸기와 인근 숲을 활용한 자연 체험 등 '자연친화적 경험' 중심의 생태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나아가 202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386호)」와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를 법적 기반으로 삼아,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기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5~2030)'을 수립하여 매년 11개원의 '생태전환교육 중점유치원'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및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체험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관 단위의 교육과정 전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인 컨설팅과 성과 관리를 제공하는 '공공 거버넌스'가 전국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과정의 유연화 운영과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됩니다.

강창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세종 두루유치원의 '혼합연령 학급구성' 사례와 이수진 원장님의 송면어린이집의 '분절되지 않은 시간 운영' 사례는 진정한 생태교육이 교육 내용의 추가가 아니라 '관계 맺는 구조와 환경의 변화'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은 동일 연령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소규모 학급 및 외동의 증가,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의 증가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혼합연령 학급 구성의 공감대 형성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규칙적이고 잘 짜여진 일과 운영과 더불어 유아가 자연의 흐름에 맞춰 공동체 속에서 개별성을 존중받으며 자라나는 환경이 바로 생태영유아교육의 핵심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기관별 여건에 따른 학급 편성 및 일과 운영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우수 사례 나눔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의 놀이와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 교육기관·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태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생태영유아교육의 안착 또한 교육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학부모의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인프라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생태전환교육 모델에서도 유치원 텃밭 가꾸기 등의 실천뿐 아니라 '지구 시민으로서의 가정 연계 교육'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인지 중심의 조기교육을 선호하여 생태교육으로의 전환에 관심을 기

울이지 않습니다. 영유아생태교육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생태영유아교육 관련 학습공동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숲체험원, 농장, 생태 전문가 등 인적·물적 자원을 유치원·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Ⅲ. 발제자 및 발표자를 향한 질의

이러한 정책적 고민을 바탕으로, 오늘 귀한 발제와 발표를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업무 담당자로서 현장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1: 임재택 이사장님, 김은주 교수님께] 최근 영유아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유보통합'입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체계의 통합을 넘어,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적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영유아교육이 유보통합 시대의 새로운 통합 교육과정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 2: 강창아 선생님, 이수진 원장님께] 현장에서 '혼합연령 학급'이나 '짜여지지 않은 일과' 등 기존의 틀과 다른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셨을 때, 동료 교사나 학부모의 반발, 혹은 행정적 어려움 등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권선임 연구자님께] 지자체 연계형 모델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교육·보육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와 '예산 확보의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 기존의 정량화된 지표(프로그램 건수 등)가 아닌 어떤 방식의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Ⅳ. 마무리하며: 아이다움이 살아나는 교실을 위한 실무자의 약속

오늘 포럼은 생태영유아교육이 단지 숲에 자주 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관계, 생명력과 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 교육의 본질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름 속에서 공존을 배우는 두루유치원의 아이들처럼, 그리고 틈새 시간을 자신만의 놀이로 채워가는 송면어린이집의 아이들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이 각자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이 그리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는 바로 우리 유치원 교실에서, 작은 손으로 텃밭의 흙을 만지고 전등을 끄는 아이들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를 아우르며 주도적인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앞으로도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안되는 여러 훌륭한 실천 사례와 혜안들을 교육청 정책에 깊이 새기고 반영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생태영유아 교육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생태영유아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여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푸른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삶의 전환을 위한 공공적 과제: 학부모 교육과 생태적 돌봄 공동체를 중심으로

강효민 | 충남, 생태유아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1. 서론: 시대적 위기 앞에 선 질문

우리는 흔히 생태유아교육을 단순히 '자연 체험 활동'이나 '특색 프로그램'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부모로서 경험한 생태유아교육은 아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부모와 공동체가 그 삶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삶의 철학이자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들은 참 무겁습니다. 기후위기, 저출생, 인구 소멸,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까지. 우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문제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당면한 현실입니다.

임재택 교수님께서 기조발제에서 말씀하셨듯, "제도가 바뀌어도 아이의 하루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도 개편이라는 '형식적 통합'을 넘어, 아이의 삶과 자연,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적 전환'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를 위한 교육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전환'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그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서 '학부모 교육'과 '생태적 돌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적 서사: 생태적 가치를 향한 이동과 깨달음

저의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확신은 이론이 아닌, 경험을 통해 얻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무렵,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생태적 가치관을 가진 어린이집을 수소문했습니다. 거주하던 지역의 어린이집 몇 군데를 방문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내 활동 위주의 시설에서 학습지를 풀며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잘 자라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연의 리듬을 배우고, 생명을 사랑하며,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찾는 교육 환경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바로 '강경 인동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인동어린이집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하며, 자연을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동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넘어 하나의 '생태적 거점'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생태적 실천은 학부모들과의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가정의 식탁을 바꾸고, 생활 양식을 바꾸며, 지역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이 초등 돌봄 과정에서도 그 생태적 흐름을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과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 '연결된 돌봄'의 모습은, 제가 꿈꾸던 생태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돌봄의 모델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결국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생태적 전환을 위한 최후의 보루

저는 생태유아교육이 공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이 반드시 정책적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생태유아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관의 실천과 가정의 삶이 분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에서는 아이에게 생태적 가치를 가르치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속도와 성취,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존 문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단순히 기관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양육 가치관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인문학적이고 사회적인 교육이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중독의 시대에서 아이의 생태적 감수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학부모 양육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모의 죄책감을 안도감과 신뢰로 바꾸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연에서의 활동이나 느린 성장을 불안해합니다. 지자체가 해운대구나 도봉구에서 시행한 '좋은부모자격과정'처럼, 부모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이의 생명 리듬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정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생태적 전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먹거리, 소비, 미디어 사용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생태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기관의 교육은 아이의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생태적 삶의 동반자가 될 때, 생태유아교육은 비로소 '기관의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의 문화'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제언: 지속 가능한 생태 공동체를 위하여

토론을 마무리하며, 생태유아교육이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적 해법으로 안착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생태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인동어린이집에서 경험했듯, 유아기의 생태적 경험이 초등 돌봄과 지역사회 생태돌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행정적 결합이 아니라, 영유아의 삶을 관통하는 교육적 가치의 통합이어야 합니다. 초등 늘봄학교가 단순한 학습 보충 시간이 아닌, '생태 돌봄'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생태 교육 자원을 공공화해야 합니다.

논산, 세종, 해운대구의 사례처럼 각 지역의 자연환경(숲, 하천, 마을길 등)을 공공의 교육 자원으로 선언하고, 이를 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 교육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아이 키우기 좋은 생태 도시'라는 강력한 브랜드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교사와 부모를 아우르는 '생태적 전문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에게는 기록과 평가의 부담을 줄여 아이 곁에 머물 시간을 돌려주어야 하며, 부모에게는 생태적 양육의 확신을 주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결론: 신명 나는 아이, 신명 나는 세상을 향하여

생태유아교육은 과거로 돌아가는 퇴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명이 주는 결핍을 채우고,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미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아이가 자연 속에서 신명 나게 놀고, 형님과 동생이 서로를 돌보며, 마을 전체가 아이의 생명을 함께 축복하는 세상. 그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기다림을 배우고, 지자체가 생태적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며, 교육이 아이의 삶을 온전히 지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이 생태적 전환을 통해, 아이들의 얼굴에 생명력 넘치는 미소를 되찾아주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된 미래교육”으로서의 생태영유아교육에 관한 일고

김희연 | 세종대학교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오늘 포럼의 다섯 편의 발표는 각각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 기반한 미래교육은 생명존중, 공존, 공동체, 돌봄, 절제, 지속가능성의 회복과 같은 **“오래된 가치가 미래를 만든다.”는 철학적 선언**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 나아가 **생태영유아교육**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독창적인 교육철학이자 교육실천**이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기후위기와 AI의 확산이라는 인류의 위협에 대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자 우리나라와 동양을 넘어 세계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태영유아교육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확산의 필요성과 실천적 가능성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조발제**에서는 생태영유아교육이 행정체계 통합 단계에 머물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유보통합 논의를 교육의 내용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진보된 미래 비전임을 천명하였다. 제도 개편을 넘어 아이의 삶·놀이·생명을 살리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바로 K-영유아교육의 미래임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실행전략을 중앙(교육부)과 지역(전국시도교육청)의 과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지난 30여 년간 생태영유아교육이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에 남긴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자연과 놀이의 회복, 생명존중 교육의 실현, 공동체 교육의 확산, 교사의 전문성 변화 등은 생태영유아교육이 이미 우리 교육에 독보적인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연구 기반의 부족, 정책화의 한계, 생태교육을 자연체험 수준으로 축소하는 문제 등을 성찰하며 향후 과제를 짚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의미 있었다.

세 편의 사례발표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철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는 실천적 도전이 어떻게 철학과 다시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례는 작은 농촌 어린이집의 일상을 통해 생태교육이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자체를 바꾸는 교육임을 보여주었다. 자연과 계절, 놀이와 공동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작동하는 모습은 생태유아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두 번째 사례는 혼합연령 교육과 생태교육을 결합하여 경쟁보다 관계, 동일성보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공동체를 제시하였다. 이는 생태교육이 자연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포함하는 교육철학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세 번째 사례는 이러한 실천이 개별 기관을 넘어 지자체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교사교육, 부모교육, 현장컨설팅, 정책평가를 하나의 순환구조로 설계한 점은 향후 생태영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현대교육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이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또는 제3세계 국가에서도 고대 사상이나 민족지적 지혜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다수 시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 출간된 『오래된 미래교육』(정재걸, 2010)**에서는 산업사회와 근대 문명의 가치에 갇혀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교육, 경쟁과 성취 중심의 교육, 시험과 평가 중심의 교육,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육,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생태위기와 공동체 붕괴, 인간소외, 정신적 공허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미래교육은**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존재 이유 자체를 바꾸는 일, 즉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저자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전통교육과 동양의 교육사상이었다. **경쟁보다 수양, 암기보다 성찰, 지식보다 인격, 성공보다 삶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서원교육, 불교교육, 마음공부, 정좌(고요히 앉아 마음을 닦는 수행) 등을 단순한 역사적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문명 전환을 위한 교육적 본질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 시도였다.

이 책에서의 특이점은 성리학자 주자의 마음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만두에 비유한 '만두모형 교육관'이다. 현대교육은 빈 그릇에 지식을 채우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만두모형에서는 인간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선한 본성, 진리, 지혜, 사랑, 공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교육은 그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따라서 교육은 **외부에서 주입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 즉 교육은 '무엇을 알기 위해 채워가는 과정'이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를 깨우쳐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학교는 배움을 채워주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수양하는 공간, 관계를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며 공동체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년 6월 오늘, 우리는 "오래된 미래교육"이라는 프레임에서, 생태유아교육 철학과 실천이 영유아교육 본질 회복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수월성에 대한 자신감을, 외래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독창성에 대한 자긍심을, 교육현장에서 오감각으로 느끼고 확신해온 충만감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태영유아교육 철학에서도 만두모형 교육관에서도 오래된 미래교육을 말한다. 그것은 오래된 가치의 영원함을 갈구하는 하나의 이념일까, 전혀 다른 종에서 파생된 유사 파편일까? 생태영유아교육의 자신감과 자긍심과 충만감이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로서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생각거리를 더해보고자 한다.

첫째, 생태영유아교육 철학을 보다 현대적인 철학의 언어로 확대·전개할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에서는 홍익인간, 천지인 사상, 동학, 몸·마음·얼 등 한국 전통사상이 생태영유아교육의 사상적 근거로서 풍부하게 연결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재걸(2010)이 '오래된 미래교육'이라는 철학적 선언에 있어 지목했던 조선시대의 정신적 축으로서의 주자의 성리학을 되돌아보기보다 동학사상에서 교육적 뿌리를 찾고자 했는지, 그 유성성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연결 지점과 단절 지점

의 핵심은 무엇인지와 같은 철학적 논의보다는 규범적 당위론을 제시하는 데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히 근원이 중국사상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거나, 사료나 증언에 기반한 연결성을 찾지 않는 선언은 교육운동에 쏠려있는 배타적 에너지로 오작용하거나 오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이 생태영유아교육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라는 자긍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와 학문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 서양철학과의 접점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이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사한 국지적 움직임에 대한 공유와 포용이다(이는 주제발표에서 일부 문제제기되었다). 생태영유아교육은 현상학의 몸의 철학, 듀이의 경험철학,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 복잡계 이론, 포스트휴머니즘, 신유물론, 관계존재론, 돌봄윤리 등 현대 철학 및 사회과학 이론들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철학적 논의라는 학문적 깊이가 더해져 재해석할 때 비로소 K-영유아교육은 세계 교육학계와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천 사례의 축적과 더불어 과학적 이론화를 위한 연구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오늘 발표에서는 매우 감동적이어서 실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현장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축적될수록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사들이 담아내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전언은 힘 있는 실행연구이자 영유아교육계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 발표된 실천사례는 생태영유아교육의 실천이 자체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원이 다른 교육실천과도 연결되고 융합되어 증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제적 담론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태영유아교육 실천을 설명하는 이론모형과 다각적인 실증연구가 함께 축적되어야 하며, 현장 실천 가운데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이 함께 축적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국제사회는 생태전환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생태영유아교육도 이러한 국제 담론 속에서 한국의 지역적 사례를 소개하고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는 수준을 넘어, 세계 교육이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국내 담론 속에서도 국가수준 영유아 교육과정의 개정을 염두에 둔 학문적·실천적 논쟁이 정교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생태영유아교육과의 차이에 관한 치열한 이론적 검토와 실태 및 인식조사 등이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도한 기록에 대한 요구는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놀이 속 배움을 교사가 읽는다는 것이 놀이를 목표가 정해진 학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학계, 기관, 부모,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아이에게 공간과 시간을 돌려줘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 한 두개를 심는 것이 아니기에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모두에서 강조한 것이 '긴밀한 연결'이었고, 이 연결을 위해 교직원 연수, 선도기관 지정, 혼합연령/연령통합 단일 교육과정 개발,

부모교육 등의 세부 사항들이 촘촘히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숲, 공원, 하천, 바다, 논, 밭, 도서관, 마을동네, 마을길과 같은 '지역 생태교육망'은 생태적 삶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기반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교육자원들을 연대하도록 만드는 공공성의 공간이자 기다림 있는 여유를 아이에게 열어줄 수 있는 주체화된 시간이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이 생태영유아교육이 강조하는 자연 속 놀이, 생명감수성, 공동체 생활, 관계 중심 교육, 느린 배움, 몸의 경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 이 연결의 가능성을 실천사례들이 보고하였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 안에서 아이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면, 어른의 편의와 판단에 의해 구획되고 폐쇄된 공간을 넘어, 어른이 길들이려는 시계바늘에 의해 잘려지고 통제된 시간을 넘어, 어른과 아이가 자연과 함께 나누고 함께 향유하는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위해 각계의 연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도가사상에서는 宇宙를 공간과 시간의 총체(四方上下曰宇, 往古來今曰宙)(『淮南子』, 劉安 외, B.C. 179~122)로 본다. 사방상하, 즉 공간을 "宇"라 하고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즉 시간을 "宙"란 한다고 하였다. 우주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생명이 상호연결된 전체로 이해하는 이 오래된 동양의 철학적 탐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자연으로 확장된 관계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가깝고도 강력한 동반자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과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는가'가에 따라 아이들의 우주는 달라진다.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영유아교사의 숙명을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 돌려줄 공간과 시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통해 생태영유아교육이 단순한 대안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하루를, 어떤 삶을 헌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영유아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새로운 중심 가치로서 제도 전환을 이루고 산업사회의 교육의 틀을 통해 잃어가고 있던 인간성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시대의 인간성의 위기에 응답하는 생태적 삶의 경험이 자아(ego)를 넘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삶의 이야기로 온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해본다.

참고문헌

정재걸(2010). 『오래된 미래교육』, 살림터.
劉安 외(2014, 최영갑 역). 『淮南子』, 풀빛.

부 록

전국 생태영유아교육 실천 사례

전국 생태영유아교육 실천 사례 목록

연번	지역		제목	실천영역	소속 및 작성자
1	서울		아침 놀이터에서 시작되는 하루	☑ 놀이 살림 ☑ 부모·가정 살림	창3동어린이집 교사 이민경
2	부산		시냇물을 닮은 아이들의 매일 숲 성장 이야기	☑ 놀이 살림	수연어린이집 원장 곽문혁
3			한 장의 사진에 담기지 않는 아이들의 하루	☑ 부모·가정 살림	일광금호센트럴베이행복어린이집 원장 김현주
4			부모 민원 없는 어린이집	☑ 부모·가정 살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어린이집· 해운대아이랑어린이집 원장 위다겸·엄순정
5	대구		일단 나가보자! 교실 밖에서 자라난 놀이	☑ 놀이 살림	前) 옥빛유치원 現) 제일풍경채센트럴어린이집 교사 신점실
6			5세반 줄넘기의 일상화 과정	☑ 놀이 살림	대구동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백다현
7	인천		온종일 숲에서 놀자	☑ 놀이 살림	성모어린이집 원장 이명희
8	경기	안양	나무 팽이로 키워 가는 생태 감수성	☑ 놀이 살림	평촌더샵아이파크어린이집 원장 변정희
9	강원	강릉	하늘 아래 자연과 아이들, 사계절 텃밭에서 자라다	☑ 놀이 살림 ☑ 먹거리·생활 살림	한들어린이집 원장 양인순
10	충북	청주	건강한 먹거리로 먹어요	☑ 먹거리·생활 살림	가경아이파크어린이집 원장 이정분
11		청주	도심 속 생태어린이집 가능할까? 가능해!	☑ 놀이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가경아이파크어린이집 원장 이정분
12	전남	나주	아이들이 떠난 마을에서, 생태로 다시 피어난 어린이집	☑ 놀이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송현어린이집 원장 이성자
13		여수	작은 손으로 만드는 깨끗한 물, 건강한 지구	☑ 절제절약·지구 살림	베타니아생태어린이집 원장 이충경
14	경북	경주	점심시간 바깥놀이 30분의 힘	☑ 놀이 살림	모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신영
15		상주	세시풍속 놀이로 자연과 절친되기	☑ 먹거리·생활 살림	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태정
16	경남	김해	되살림 땋은 줄놀이로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 놀이 살림 ☑ 절제절약·지구 살림	해돋이유치원 원장 백정이
17		함안	놀이로 잇고, 되살림으로 키우는 지구살림 마을	☑ 놀이 살림 ☑ 절제절약·지구 살림	충무어린이집 원장 이은미
18	제주		단오 잔치에서 텃논으로 이어지는 생태영유아교육 실천	☑ 먹거리·생활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제주생태유아공동체 공동집필

아침 놀이터에서 시작되는 하루

- 바깥놀이로 살아나는 아이들의 리듬, 깊어지는 부모의 신뢰 -

서울 창3동어린이집 교사 이민경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서울시	연령	☑ 영아(0세~2세) ☑ 3세 ☑ 4세 ☑ 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바깥놀이) ☐ 먹거리·생활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 부모·가정 살림 ☐ 절제절약·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17년~현재(9년5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가정 ☐ 직장·법인	

1. 실천의 계기

우리 어린이집은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를 자연과 사람, 생활과 놀이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자라는 존재로 바라본다.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에게 하루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아침 시간을 보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경험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는 아이들이 실내 교실보다 실외 놀이터에서 훨씬 편안하게 몸을 움직이고 친구를 만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린 어린이집 실천의 출발점으로 아이들이 등원하면 바로 놀이터로 나가는 아침 바깥놀이를 실천하였다. 이는 아이가 자연 속에서 자기 리듬대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기다려주는 일이었고, 부모가 아이의 놀이와 교사의 관계 맺음을 직접 바라보며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2. 실천 내용

본 실천은 특정 행사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일의 등원 시간과 오전 일과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실천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먼저 실내 교실에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한다. 아이들은 가방과 수건을 정리하고, 물통을 챙겨 놀이터로 나온다. 놀이터에는 교사가 먼저 나와 아이들을 맞이한다. 교사는 자기 반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와 부모를 반갑게 맞이한다. “오늘 잘 왔어”, “아침에 기분이 어때?”, “물통 들고 나왔구나” 와 같은 짧은 인사 속에서 모든 아이의 컨디션을 살핀다. 이후 아이들은 정해진 활동을 기다리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를 시작한다.

3. 실천 과정

1) 전기 “문을 열고 놀이터로 나가다”

실천 초기에는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에게 적응이 필요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이터에 나와도 바로 놀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살피기도 했다. 영아의 경우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했고, 유아도 스스로 정리한 뒤 놀이터로 이동하는 동선을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부모 역시 걱정이 있었다. 아침부터 밖에 있으면 춥지 않을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지, 물놀이를 매일 해도 괜찮은지, 아이가 혼자 서성이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실외 놀이 중심 하루 일과의 의미를 안내하였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긴장을 풀고,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점을 부모와 나누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나오기 전 놀이터를 살폈다. 위험한 물건을 확인하고 물통 바구니, 새참 자리, 책상과 의자, 행주와 걸레를 준비하였다. 전반기의 핵심은 기다림이었다. 아이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놀지 않아도 기다렸고, 부모도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렸다.

2) 중반기 “놀이는 끊기지 않고, 아이들은 자기 리듬을 찾다”

이 시기에는 놀이가 짧게 중단되지 않고 오래 이어졌다. 아이들은 한 가지 놀이에 충분히 머물며, 친구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나누고 생각을 보탰다. 놀이의 방향은 교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말과 관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새참도 놀

이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놀이를 멈추기보다, 아이들은 자신의 배고픔과 놀이 흐름을 느끼며 새참을 먹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기다리고, 다시 시작하는 생활의 리듬을 경험했다.

3) 후기 "열린 문 안에서 함께 자라다"

실외 놀이 중심 등원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자연스러운 하루가 되었다. 놀이터는 놀이 공간을 넘어 생활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새참을 먹고, 때로는 작은 숲이나 놀이마루, 대문 앞 마루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식사 장소를 아이들과 정하고, 책상과 돗자리를 함께 준비하며 자연 속에서 먹는 일도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후반기에는 교사들의 협력도 안정되었다. 실외 공간에서는 한 교사가 모든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이동 시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였다. 영아반은 투담임 중 한 명이 반드시 아이들 곁에 있도록 하였다. 자유로운 놀이가 무질서가 되지 않도록 생활의 기본도 함께 세웠다. 개수대 밸브 잠그기, 빗물저금통 사용 후 전원 끄기와 뚜껑 닫기, 간이 변기 정리, 놀잇감 제자리 정리 등은 아이와 교사가 함께 지키는 약속이 되었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의 아침 표정이 달라졌다. 등원 후 교사의 안내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물통을 들고 놀이터로 향한다. "오늘은 모래 할 거야", "어제 만든 길 다시 볼래", "텃밭에 물 줘야 해" 하며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떠올린다. 초기 적응이 어려웠던 아이들도 실외 놀이 속에서 긴장을 풀었다. 부모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던 아이도, 울음을 멈추고, 친구의 놀이를 바라보다가 곁에 앉았다. 아이들의 놀이는 깊어졌다. 반복적으로 모래를 파고 물을 붓던 행동이 점차 길 만들기, 강 만들기, 다리 놓기, 밥상 차리기, 집 짓기 놀이로 확장되었다. 아이들은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며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몸을 충분히 사용했다. 뛰고, 파고, 나르고, 쏟고, 기어오르고, 균형을 잡는 과정 속에서 신체 감각과 조절력이 살아났다.

부모는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말로만 듣지 않고 직접 보게 되었다.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고, 교사를 만나고, 놀이터에서 놀이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며 안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옷이 더러워지는 것, 물놀이, 날씨, 안전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의 몰입을 보게 되었다. 부모의 질문도 처음에는 "오늘 옷이 많이 젖었나요?", "넘어지지는 않았나요?" 와 같은 질문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오늘은 무슨 놀이를 오래 했나요?",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바뀌었다. 부모는 교사의 태도를 직접 보며 신뢰를 쌓았다. 교사가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 위험은 살피되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모습, 갈등 상황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연결해주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집의 교육 방향을 이해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아이를 더 깊이 보게 되었다. 실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아이의 힘이 놀이터에서 보였다. 조용하던 아이가 놀이를 이끌고, 말이 적던 아이가 자연물 앞에서 풍부하게 표현하며, 산만해 보이던 아이가 물길 만들기에 오래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교사는 아이를 평가하기보다 읽게 되어 '왜 이 행동을 반복할까?', '내가 개입하면 놀이가 깊어질까, 끊길까?' 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디까지 갈까?",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해볼까?", "친구 생각은 어떨까?" 와 같은 말이 늘어났다. 교사 간 협력도 강화되었다. 실외 공간에서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 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며, 아이들 전체의 안전과 놀이를 함께 살피는 공동체적 태도가 자리를 잡았다.

시냇물을 닮은 아이들의 매일 숲 성장 이야기

- 도롱뇽알의 탄생을 통해 생명을 만나다 -

부산 수연어린이집 원장 곽문혁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부산시	연령	☑ 영아(0세~2세) ☑ 유아혼합반(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6년5월~현재(2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법인	

1. 실천의 계기

나이와 발달 수준이 다른 3~5세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어린이집 유아반은 매일 아침 숲으로 향한다. 아이들은 숲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걷기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형님이 손을 내밀어 주고, 앞서 걷던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친구를 기다려 주는 모습은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주변의 모든 생명을 품는 시냇물과 닮아 있는 것 같다.

시냇물이 생명을 품고 흐르듯, 아이들 역시 숲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이에 자연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숲과 시냇물을 삶의 배움터로 삼아 생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2. 실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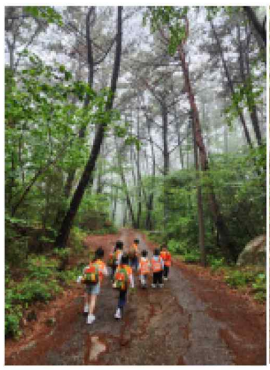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은 매일 원 근처의 금정산으로 향한다. 숲길을 따라 30~40분을 올라 도토리숲에 도착하면, 먼저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숲명상을 하고 자연과 친구가 되어 놀이를 시작한다. 운동화를 신고 땅을 밟으며 숲길을 오가는 일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소중한 습관이 되었다.

교사는 아이들이 흙, 나뭇가지, 돌, 곤충, 물, 바람 등 숲에서 만나는 자연을 놀이 매개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3~5세 혼합연령반의 특성을 살려 형님과 동생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숲속의 다양한 경험에서 친밀한 관계와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놀이를 지시하거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발견하는 공동 탐색자이자 조력자로 머물며,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고 질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리고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지원하고자 한다.

3. 놀이의 모습

1) 숲과 시냇물을 만나다

매일 숲길과 시냇가를 걸으며 아이들은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물이 반짝이는 모습, 나뭇잎이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습,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 진달래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아이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는 데 머물렀지만, 점차 작은 변화에 오래 머물며 탐색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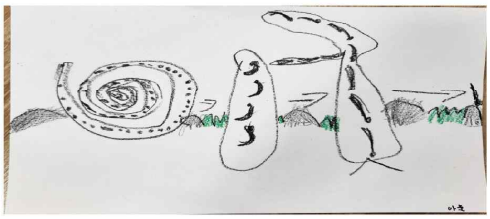




2) 시냇물과 숲에서 만난 생명

아이들이 자연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을 무렵,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투명한 알덩어리를 발견하였다. 도롱뇽의 알이었다. 아이들은 "젤리 같아요!", "까만 점이 보여요!"라며 매일 시냇가를 찾아가 알의 변화를 살폈다. 알 속 생명체가 조금씩 자라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도롱뇽 알이 자라는 과정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알 속 작은 생명체가 움직이고, 꼬리와 다리가 생기며, 마침내 아기 도롱뇽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며 아이들은 큰 감동을 느꼈다. 형님들은 동생들에게 도롱뇽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려 주었고, 동생들은 형님을 따라 물가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관찰하였다. 아이들은 숲에 도착하면 먼저 도롱뇽 알들을 한참을 살펴보고 다른 놀이하다가도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때면 어김없이 도롱뇽에게 인사하곤 했다.

아이들은 도롱뇽에게 밥을 주고 싶어 하거나, 잘 자라라고 인사도 하며 작은 생명을 친구처럼 대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만질 때의 약속,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 작은 생명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도롱뇽이 인상 깊었던지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4세 정아율 그림

3) 생명을 존중하는 아이로 자라다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돌을 이용해 도롱뇽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상상해 만들고, 작은 생명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서로에게 알려 주었다. 형님들은 동생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동생들은 형님의 모습을 따라 하며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방법을 익혔다. 어느 날은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돌돌 말린 나뭇잎 속 번데기를 발견하였다. 교사가 나비로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자, 작은 나뭇잎 속에도 생명의 변화가 숨어있다는 것에 놀라워하였다. 누군가 번데기의 탄생을 축하해 주자고 제안하자, 모두 함께 축하해 주었다.

아이들은 숲과 시냇물 속 작은 생명체를 만나며 생명을 지켜보는 법, 기다리는 법, 조심스럽게 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숲산책은 단순한 '자연 관찰'을 넘어 생명을 찾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워가는 경험이 되었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은 도롱뇽 알과 자벌레, 번데기 등을 만나며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풍부해졌고, 작은 생명의 탄생을 응원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형님은 동생을 챙기고, 동생은 형님의 모습을 따라 하며 협력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워갔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숲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도롱뇽 이야기를 들려주자, 주말에 가족이 함께 도토리숲과 시냇가를 찾는 일도 생겼다. 폭우가 내린 뒤 아기 도롱뇽이 떠내려가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어 비옷을 입고 아이와 함께 시냇가를 찾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이집의 생태교육이 가정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사는 계획된 활동보다 아이들의 발견과 호기심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가르치려고 앞서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놀라고 묻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숲과 시냇물이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배움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시냇물이 다양한 생명을 품고 흐르듯,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 가고 있다. 이것이 숲이 아이들에게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이다.

사진 한 장에 담기지 않는 아이들의 하루

- 부모와의 소통 전략을 바꾸다 -

부산 일광금호센트럴베이행복어린이집 원장 김현주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부산시	연령	☑ 영아(0세~2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바깥놀이) ☐ 먹거리·생활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 부모·가정 살림 ☐ 절제절약·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5년4월~현재(1년2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가정 ☐ 직장·법인	

1. 실천의 계기

우리 어린이집은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를 독립된 생명체로 바라보고, 아이 안에 깃든 자연성과 본성이 온전히 피어나도록 돕는 생명살림의 교육이라는 믿음으로 개원부터 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어린이집 하루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먹고 자고 숨 쉬며 친구와 자연을 만나고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일상이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기분, 놀이 이야기를 부모님과 공유하기 위해 한그루 앱으로 아이들의 하루를 전달하고 사진을 꾸준히 활용해 왔다. 부모님은 사진을 통해 아이의 하루를 보고 안심하였고, 교사는 아이의 놀이 장면을 기록하여 가정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은 아이의 하루를 이해하는 자료를 넘어, 어린이집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여기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모님 중에는 사진 속에 우리 아이가 몇 번 나왔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누구와 놀고 있는지, 사진의 구도와 화질은 어떤지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 때로는 사진에 담긴 한 장면만으로 아이의 관계나 어린이집 생활을 걱정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마음은 아이를 향한 사랑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 교사는 점점 아이 곁에 머무는 사람보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어갔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순간, 교사는 아이의 눈빛과 목소리를 온전히 마주하기보다 '보여주기 좋은 장면'을 찾게 된다. 아이들도 카메라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놀이를 멈추고 카메라를 의식하게 된다. 생태적 놀이는 흘러가는 삶의 과정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놀이가 사진을 위해 정리되고 연출되는 모순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아이들의 일상과 놀이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보여주는 보육'은 생태유아교육이 아니라 생각하고 아이의 실제 삶이 살아있는 보육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에 알림장과 사진 제공 방식을 바꾸기로 결단했다.

2. 실천 내용

① 보육교직원과 현재의 알림장 작성과 사진 제공 방식에 대해 솔직한 회의를 하였다.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교사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아이중심의 보육을 실천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② 어린이집 알림장과 사진 제공을 포함한 부모 소통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정하였다.

- 놀이 사진은 주1회 단위로 모아 제공한다.
- 아이 한 명의 연출된 표정보다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관계의 모습을 담아 공유한다.

③ 부모에게 친절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④ 매일의 사진 대신 눈빛과 몸짓, 아이의 변화를 따뜻한 문장 기록으로 전달한다.

3. 실천 과정

1)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해시키기

예상대로 부모님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아이와의 단절감을 느끼며 불안해하기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하며 아이의 하루를 알

기 어렵다고 항의하는 부모님들도 있었다. 한 번도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던 아버님께서도 걱정 어린 마음을 전해오기도 했다. 매일 보는 사진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아쉽다, 글보다는 사진으로 직관적으로 아이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아이의 놀이가 카메라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보여주기식 기록보다 진정성 있는 관찰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며 지지를 보내오는 부모님도 많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부모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아이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걱정으로 이해하였다. 동시에 사진을 줄이는 이유를 생태유아교육의 관점을 차분히 설명하며 함께 이해해 가는 시간을 가졌다.



2) 원장님, 사진으로 하루를 전달하는게 더 좋아요

사진으로 즉각적인 확인에 익숙한 부모님들 만큼 교사들 또한 직관적인 전달의 편의를 선호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편리한 사진 업로드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은 교사의 전문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채우는 성찰의 과정이었다.

3) 사진보다 아이들의 삶을 보기 시작하다

소통 방식을 바꾸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교사도 부모 역시 매일이 아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사진들에 익숙해졌다. 물론 여전히 사진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내비치는 부모님도 있으나, 그래도 어린이집의 운영 철학과 원칙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부모님들이시다. 교사 역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 있는 기록과 사진을 위해 고민하게 되었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멈추거나 포즈를 취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놀이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었다. 교사가 사진을 위해 놀이 흐름을 끊거나 장면을 만들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친구와 자연을 만나며 자기 방식대로 놀이를 이어 갈 수 있었다. 아이의 하루는 한 장의 사진에 담기지 않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었다.

부모는 처음에는 사진이 줄어드는 것에 불안과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점차 어린이집의 의도를 이해하고 지지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이의 하루를 사진의 양으로 확인하기보다, 아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놀고 자라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와 어린이집의 대화도 사진의 개수보다 아이의 삶과 놀이를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 갔다.

교사는 매일 올리는 사진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카메라를 내려놓은 뒤 아이들과 더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을 찍기 위한 연출과 긴장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더 많은 시선을 마주하고, 그 작은 속삭임을 더 자주 듣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깊이 머물 수 있었다. '찍사 "가 아닌 아이와 함께 눈 맞추고 생활하는 교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5. 마무리

이번 실천은 단순히 한그루앱 알림장 사진을 줄인 사례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과 놀이를 지키고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하루는 한 장의 사진에 담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실천이 마침표를 찍은 완성형이 아니라, 매일의 보육 현장에서 새롭게 살아 숨쉬는 '현재진행형' 의 여정이다. 앞으로도 부모님의 걱정과 기대, 응원과 조언을 소중히 여기며, 아이의 자연성과 본성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아가고자 한다.

부모 민원 없는 어린이집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어린이집 원장 위다겸 · 해운대아이랑어린이집 원장 엄순정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부산시	연령	☑ 영아(1세~2세) ☑ 연령혼합반(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해운대아이랑 2018년~현재(8년5개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20년~현재(6년5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법인	

1. 민원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겨우 모기요? 지금 애가 죽게 생겼어요!"

최근 큰 화제를 모은 '핫이슈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는 많은 교사들의 공감을 얻었다. 과장된 웃음 속에 담긴 부모 민원과 교사의 고충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부모 민원은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두 기관은 자신들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다. 생태영유아교육기관의 특성상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흙을 만지며 계절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기가 많으니 실외 활동을 줄여주세요.", "선크림은 어린이집에서 일제히 발라주세요."와 같은 부모의 요구와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요구가 큰 갈등이나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부모와 교사, 기관은 크고 작은 의견 차이를 경험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무엇이 부모의 요구를 민원이 아닌 대화로 이어지게 했을까? 지금부터 그 과정 속에서 실천해 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2. 민원의 반대말은 신뢰

부모 민원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두 기관은 부모 민원을 별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부모와 교사, 기관 사이에 신뢰와 공감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데 집중해오며 다음과 같은 실천을 이어왔다.

1) 오리엔테이션을 적극 활용하기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한다. 생태영유아교육의 가치와 방향뿐 아니라 모기 물림, 찰과상, 흙 묻은 옷 등 부모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가감 없이 안내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 가정과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부모가 교육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 뒤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입학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출발점이 된다.

2) 어린이집을 열고 또 열기

두 기관은 부모가 직접 등 · 하원하며 교실 안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모는 아이의 생활과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교사는 부모와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매일의 만남과 대화는 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적극적인 부모참여로 이어진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매월 부모청소를 실시하거나 연 1회 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대청소를 진행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가꾸며 교사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고, 어린이집을 단순한 서비스 기관이

아닌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로 인식하게 된다.

3) 함께 키우는 기쁨 나누기

생태영유아교육은 아이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두 기관은 생일잔치를 단체 행사로 진행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 날에 부모를 초대해 태몽 이야기, 영아기 사진, 부모의 편지 등을 나누며 아이의 삶의 역사를 함께 축하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관과 더욱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집밥 클래스'를 운영하여 부모와 함께 반찬을 만들고 가정에서 아이와 식사하는 경험을 나누며, 건강한 먹거리와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가치를 공유한다.




4) 어른의 편익보다 아이를 중심에 두기

원장은 교사의 편도 부모의 편도 아닌, 오롯이 아이의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 부모와 교사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의 입장을 우선하기보다 아이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조정한다. 이러한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아이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된다.

3. 함께 성장한 부모, 교사, 그리고 아이들

두 기관은 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와 가치를 실천해 왔다. 부모를 생태영유아교육의 동반자로, 교사를 아이 성장의 전문가로 존중한 결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일상과 교사의 수고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교사를 교육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 지는 전문가로 바라보게 되었다. 입학 초기에는 걱정과 요구가 많았던 부모들도 점차 신뢰를 쌓으며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라고 먼저 묻는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다. 또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생태영유아교육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부모의 불신과 과도한 요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신뢰와 지지는 교사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교육의 질을 높여갈 수 있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든 신뢰의 문화는 **아이들**의 삶 속에도 스며들었다. 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며 즐겁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였다. 또한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이에 몰입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성장하였고, 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통해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워 나갔다.

이처럼 신뢰와 공감으로 형성된 교육공동체 속에서 부모는 안심하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며, 아이는 행복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민원을 예방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었다.



일단 나가보자! 교실 밖에서 자라난 놀이

대구 前옥빛유치원 現제일풍경채센트럴어린이집 교사 신점실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대구시	연령	☐ 3세 ☐ 4세 ☑ 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5년11월(1개월)		
기관 유형	유치원	☑ 국공립(단설 유치원) ☐ 사립	

1. 실천의 계기

아이들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마음껏 뛰어놀고 있을까? 얼마나 자연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 아이들과 하루를 교실에서 생활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교실 안에서도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아이들은 종종 "언제 밖에 나가요?"라고 물으며 바깥을 기다렸고, 밖에 나가면 누구보다 환한 표정으로 뛰어놀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더 많은 자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큰 계획보다는 '일단 나가 보자.'는 마음으로 내가 담당했던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나가기 시작하였다.

2. 실천 내용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1시 20분부터 2시까지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과 꾸준히 바깥놀이를 진행하였다. 특별한 교구나 놀이 내용을 준비하기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가지는 데에 집중했다. 충분히 관찰하고 탐색하며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다.

바깥놀이가 여러 차례 진행된 후에는 안전을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정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바깥 놀이 후에는 보았던 것과 놀이했던 것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연 속 경험을 그림으로 다시 풀어내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였다.

3. 실천 과정

1) 마음껏 뛰어 놀다

처음 바깥놀이를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자연을 탐색하기보다 뛰어노는 것 자체를 즐거워했다. 놀이터에서 뛰고 달리며 몸을 움직이는 놀이가 대부분이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 저 진짜 빨라요.", "잡아봐요!"를 외치며 신나게 달렸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바깥 공간을 마음껏 누볐다. 열심히 뛰어노는 데 집중하던 아이들은 점차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조절하며 놀이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연과 친해지는 첫걸음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과 친해지는 첫걸음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노는 즐거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2) 작은 생명을 만나다

바깥놀이가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작은 생명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뛰어다니기 바빴던 아이들은 어느 순간 걸음을 멈추고 곤충과 식물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화단에서 개미를 발견한 아이가 친구에게 "개미다! 개미 밟을까?"라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부터는 개미를 피해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다친

벌을 발견했을 때는 "벌이 아픈가 봐요.", "꽃이 있는 데로 옮겨 주면 괜찮아질까요?"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무당벌레를 발견한 날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은 "밤에는 추울 것 같은데?"라며 낙엽을 모아 작은 집을 만들어 주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바라보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니 그동안 스치듯 지나쳤던 작은 꽃과 곤충, 계절의 변화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연은 아이들에게 관찰하는 즐거움을 알려주었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 주고 있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자연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작은 생명과 교감하며 자연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었다.

3) 자연 속에서 놀이와 이야기가 자라다

바깥 놀이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의 놀이는 더욱 풍성해졌다. 처음에는 자연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연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 놀이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낙엽은 음식이 되고, 열매는 반찬이 되고, 돌멩이는 식탁이 되었다. "선생님, 오늘은 캠핑 왔어요." "맛있는 밥 드세요." "불이 꺼질 것 같아요. 나뭇가지 더 가져와야 해요." 이처럼 아이들의 놀이는 주변의 자연물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 누군가 놀이를 시작하면 친구들이 생각을 보태며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특별한 교구가 없어도 낙엽 한 장, 열매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즐거워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연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이자 배움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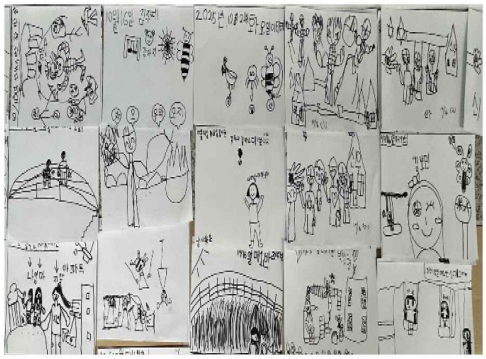




4. 실천 후 변화

1)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은 꽃과 곤충, 나뭇잎의 변화를 발견하며 자연을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다. 바깥놀이 후에는 보았던 것과 놀이했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관찰력과 표현력도 더욱 풍부해졌다.



아이들이 바깥놀이 후 그린 자유화

2) 든든한 지원군이 된 부모님

처음에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즐겁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바깥 놀이의 가치를 공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바깥 놀이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다.

3) 자연을 다시 바라보게 된 교사

아이들의 눈높이로 자연을 바라보며 그동안 지나쳤던 작은 생명과 계절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임을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5세반 줄넘기의 일상화 과정

대구 대구동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백다현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대구시	연령	☐ 3세 ☐ 4세 ☑ 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5년11월~12월(5주)		
기관 유형	유치원	☑ 국공립(병설 유치원) ☐ 사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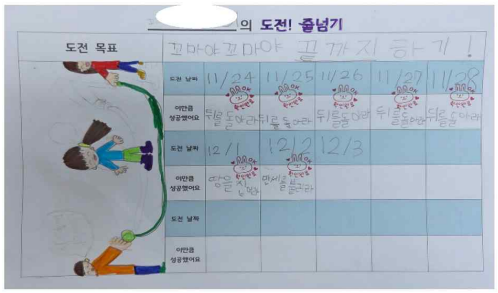
1. 실천의 계기

우리 유치원은 등하원시 차량 이용이 많은 편이였고 맞벌이 가정이 많아 유치원 마치고 대다수의 유아들이 학원으로 감에 따라 바깥놀이 기회가 감소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아들의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에 개인 줄넘기, 협동 줄넘기(꼬마야 꼬마야 등)를 실천하여 유아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2. 실천 내용

실천의 내용은 단순하다. 2025년 11월 1주부터 12월 1주까지까지 바깥놀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매일 바깥놀이 시간에 개인 줄넘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 협동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를 해본다.
- 나만의 줄넘기 목표를 정하여 도전하도록 하고 <도전 줄넘기표>에 기록한다.



3. 실천 과정

1) 마주하기 (11월 1주~3주)

- 줄넘기와 처음 만나다

처음 줄넘기를 시작했을 때 유아들의 수준은 다양하였다. 줄넘기를 처음 접해 줄을 넘기 어려워하는 유아도 있었고, 줄을 넘을 수는 있지만 연속해서 뛰기는 어려운 유아도 있었다. 능숙하게 두 발 뛰기를 할 수 있는 유아도 있었으며, 엑스자 뛰기나 뒤로 뛰기를 해 본 유아도 있었다. 그러나 줄을 넘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가 6명이나 있었다.

개인 줄넘기가 조금 되는 유아들에게 협동 줄넘기인 '꼬마야 꼬마야' 도 시도하였다. 아이들은 줄을 처음 접하고 줄을 돌려서 두발로 간신히 넘을 수 있는 정도였다. 대부분 첫 소절 일부만 따라 할 수 있었고, '뒤를 돌아라', '땅을 짚어라' 까지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줄이 돌아가는 순간을 바라보고, 들어갈 타이밍에 맞춰 함께 뛰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2) 노력하기 - 11월 4주

-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다

11월 4주가 되자 유아들은 자신의 줄넘기 수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교사는 유아들의 줄넘기 능력에 따라 목표를 세세하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유아에게는 줄을 넘기는 것 자체가 목표였고, 어떤 유아에게는 두 발 뛰기 1~3개, 또 다른 유아에게는 10개, 20개 이상 도전하기가 목표가 되었다. 목표가 작게 나뉘자 유아들은 부담을 덜고 다시 시도할 수 있었다. "나는 오늘 3개 해볼래요", "어제보다 하나 더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모습도 나타났

다.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에서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첫 소절 일부만 하던 유아들이 줄의 흐름에 맞추어 '뒤를 돌아라' 까지 도전하였고, 일부 유아들은 '땅을 짚어라' 까지 이어가며 협동 줄넘기의 리듬을 익혀 갔다.



3) 즐기기 - 12월 1주차

- 줄넘기가 놀이가 되다

12월 1주가 되자 유아들의 줄넘기 능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처음에는 줄넘기 5개만 해도 힘들어하던 유아들이 점차 10개, 20개 이상을 넘으며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줄을 넘길 수 있는 유아가 늘어났고, 두 발 뛰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유아도 많아졌다. 개인 줄넘기를 어려워하던 유아들도 자신에게 맞게 도전하며 줄넘기에 익숙해졌다.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유아가 나타났다. 줄넘기를 어려워하던 유아들도 점차 줄넘기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였다. 바깥놀이를 나가면 교사가 먼저 권하지 않아도 줄넘기를 찾고,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단계에서 줄넘기는 더 이상 교사가 정해준 활동이 아닌 유아가 스스로 찾고, 도전하고, 즐기는 놀이였다.

[표 1] 11월 1주~12월 1주 개인 줄넘기 모습 변화

줄넘기 가능 범위	11월 1주 인원	11월 4주 인원	12월 1주 인원
줄넘기 처음 해봐요 (줄을 넘기기 어려워함)	6명	0명	0명
줄을 넘길 수 있어요	7명	4명	3명
두발 뛰기 1~3개 할 수 있어요	7명	2명	3명
10개 이상할 수 있어요	1명	7명	5명
20개 이상할 수 있어요		7명	9명
엑스자, 뒤로 뛰기 5개 할 수 있어요		1명	1명

4. 실천 후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유아들이** 바깥놀이 시간에 먼저 줄넘기를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줄을 넘기 어려워하거나 금방 힘들어하던 유아들도 매일 줄넘기를 실천하며 개인 줄넘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줄넘기를 1~2분만 해도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더 오래 뛰게 되었고, 줄넘기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초체력도 함께 좋아졌다. 유아들은 줄넘기를 통해 도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매일 조금씩 시도하고, 어제보다 더 많이 넘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 친구의 성공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협동 줄넘기에서는 순서를 기다리고 리듬을 맞추며 함께하는 놀이의 재미도 배웠다.

[표 2] 11월 1주~12월 1주 협동 줄넘기 모습 변화

꼬마야꼬마야 가능 범위	11월 1주 인원	11월 4주 인원	12월 1주 인원
첫 소절 일부 할 수 있어요	14명	7명	5명
뒤를 돌아라까지 할 수 있어요	0명	5명	6명
땅을 짚어라까지 할 수 있어요	0명	2명	2명
만세를 불러라까지 할 수 있어요	0명	0명	0명
끝까지 할 수 있어요	0명	0명	1명

교사도 처음에는 "줄넘기를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유아들과 함께 줄넘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줄넘기는 유아들의 체력을 기르는 활동이면서 동시에 교사에게도 아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가까이에서 보는 기쁨을 주었다.

부모님도 아이들의 변화에 관심을 보였다. "유치원에서 꼬마야 꼬마야를 어떻게 하나요?", "유치원에서는 어떤 줄넘기를 하나요? 아이가 유치원이랑 똑같은 줄넘기를 사달라고 해요" 라며 유치원에서의 줄넘기 놀이가 가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실천을 통해 매일의 작은 바깥놀이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줄넘기는 매일 조금씩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뛰며 자라는 생활 속 놀이였다. 아이들은 줄을 넘으며 체력을 기르고, 친구와 함께 뛰며 관계를 배우고, 스스로 목표를 이루며 자신감을 키워 갔다.

온종일 숲에서 놀자

인천 성모어린이집 원장 이명희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인천시	연령	☑ 영아(0세~2세) ☑ 3세 ☑ 4세 ☑ 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바깥놀이) ☐ 먹거리・생활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 부모・가정 살림 ☐ 절제절약・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5년3월~현재(1년3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가정 ☑ 직장・법인	

1. 실천의 계기

본 어린이집에는 같은 재단인 '기도의 집'과 연결된 나지막하고 아담한 산책로가 있는 비교적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들은 매일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유보 통합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좀더 알찬 생태교육을 실현하고자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유아교육 활동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원 주변 산책로와 숲을 알차게 활용해 보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숲에서 좀더 오래 놀자는 교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을 숲에서 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도전이 필요하였고, 결국 월 1회 하루종일 숲에서 놀기를 실천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실천 내용

- **실천 기간:** :2025년 3월 ~ 2026년 6월 현재
- **실천 내용**

본 실천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숲에서 놀이하는 활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유아반은 주 1회 주변 산을 등반하며 숲과 자연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실천 방법**

온종일 숲놀이는 매월 1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숲에서 놀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식사와 간식은 평소와 다른 특별식으로 준비하였으며, 유아는 점심과 간식을 야외에서 먹고, 영아는 교실에서 식사한 뒤 낮잠을 자도록 하였습니다. 교사는 정해진 활동을 이끌기보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3. 실천 과정

1) 초기

실천 초기에는 교사들이 숲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교재와 교구를 충분히 준비하여 아이들의 흥미보다 사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 활동을 실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숲놀이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활동보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탐색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2) 중기

여러 차례 긴 시간의 숲놀이를 경험하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이 어디에서 발현되는지 조금씩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1회 주변 산 오르기와 연계하여 숲놀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교사의 개입 정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대신 유아들의 관심

과 호기심을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 지원하는 모습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 후기

2년 동안 온종일 숲놀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교사들의 숲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또한 숲에서 노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고, 온종일 숲에서 노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종일 숲놀이가 있는 날에는 다른 날보다 아이들이 더 밝은 표정으로 빠르게 등원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4. 실천 후 변화

1) 유아들의 변화

유아들은 숲에서 다양한 놀이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가면서 숲에서 노는 즐거움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발견하고, 탐색하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온종일 숲놀이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등원하고, 숲에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 떠올리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부모의 변화

부모들은 어린이집 주변 산책로와 숲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산책로가 개방되지 않고 부모참여수업 때 연 1회 정도만 개방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숲에서 어떻게 놀고 지내는지 더욱 궁금해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놀이한 이야기와 사진을 통해 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외에서 놀다가 다치거나 벌레에 물리지 않을까 걱정하던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실외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린이집의 방향을 신뢰하고 적극 지지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숲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복장과 준비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3) 교사와 원장의 변화

교사들은 항상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과제 중심, 결과물 중심의 사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대와 흥미를 따라가며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경험하였고, 아이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교사 자신도 숲에서 노는 날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더해지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깊이 지원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장은 숲놀이가 아이들에게 주는 이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어린이집 주변의 숲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사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지만, 여러 차례의 온종일 숲놀이 경험을 통해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자연이 주는 선물이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온종일 숲놀이는 아이들에게만 좋은 경험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 원장 모두가 자연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 팽이로 키워 가는 생태 감수성

- 작은 나무 팽이가 되찾아 준 아이들의 미소 -

안양 평촌더샵아이파크어린이집 원장 변정희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경기도 안양시	연령	☑ 영아(0세~2세) ☑ 3세 ☑ 4세 ☑ 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바깥놀이) ☐ 먹거리·생활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 부모·가정 살림 ☐ 절제절약·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5년3월~현재(1년3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가정 ☐ 직장·법인	

1. 실천의 계기

완성된 플라스틱 놀잇감과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보며 **'스스로 몰입하는 진짜 놀이는 어디로 갔을까?'** 고민하던 중, 소박한 **'나무 팽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짝이는 불빛도 소리도 없는 나무 조각을 보며 **"재미없어요, 안 돌아가요"** 하고 돌아설까 조바심과 고민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팽이가 바닥에서 도는 마찰음, 나무 고유의 따뜻한 질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팽이 돌리기를 수십 번 반복해 도전하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생기 넘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스스로 팽이를 돌리며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미소 짓는 덕분에 교사인 저 역시 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보람과 효능감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의 손길로 직접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빈틈 있는 놀잇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교사들은 처음에 **'과연 팽이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팽이 끈을 감고 돌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느새 교사들 사이에도 작은 도전 의식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팽이 돌리기 시합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가 더 오래 돌리는지, 어떤 방법이 더 잘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교사들 역시 놀이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놀이를 더욱 풍성하게 지원하기 위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과정은 교사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실천 내용

5세반 아이들의 놀이를 1개월 동안 관찰하고, 2개월째가 되자마자 교실에 다른 장난감 대신 나무 팽이를 슬며시 내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할 시간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줄도 없고 불빛도 안 나는 밋밋한 나무 조각에 시큰둥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교실 바닥에 아이들과 동그랗게 둘러앉아 온몸으로 시범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의 미세한 스냅을 보여주기도 하고, 줄팽이를 감을 때는 정성껏 줄을 감고 힘차게 아래로 내리치며 돌리는 시범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반복해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자신만의 방법으로 팽이 놀이에 무르익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팽이 돌리기 대회'**를 열거나, 친구의 팽이를 밖으로 밀어내는 **'팽이 씨름'**으로 놀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3. 실천 과정

1) 팽이 감기기

처음 나무 팽이를 만난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팽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놀아요?"** 라고 묻던 아이들은 교사의 시범을 따라 천천히 줄을 감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줄이 자꾸 풀리거나 엉키기도 하고, 감는 방향을 헷갈려 여러 번 다시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사와 시범과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방법을 익혀 나갔고, 조금씩 손끝에 힘을 조절하며 팽이에 줄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알려줄게"** 라는 말이 오가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 도전의 스냅기

줄을 감는 방법을 익힌 아이들은 팽이를 돌리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팽이가 금방 넘어지거나 제자리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팽이가 돌지 않자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시도하며 팽이가 조금 더 오래 돌기 시작하자 자신감을 보였고,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끈기를 키워 나갔으며,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는 탐구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 회전의 어울림기

팽이 돌리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혼자만의 놀이를 넘어 함께 어울리는 놀이를 만들어갔습니다. **"누가 더 오래 돌릴까?", "우리 같이 돌려보자."** 라며 친구들과 놀이를 확장했습니다. 여러 개의 팽이가 동시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친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팽이가 만들어내는 원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서로의 팽이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돌려보며 놀이의 폭을 넓혀 갔습니다.



4. 실천 후 변화

처음에 **아이들은** 팽이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놀이를 반복하며 스스로 방법을 찾고 여러 번 도전하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팽이 돌리는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집중력과 성취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나무팽이 놀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유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패를 극복하며 끈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과 자연 속 놀이에 몰입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며 성장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는** 아이들이 나무 팽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보단 과정을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연 재료를 활용한 소박한 놀이가 아이들에게 큰 배움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자연과 아이들, 사계절 텃밭에서 자라다

- 파종에서 김장까지 농촌 어린이집 생태이야기 -

강릉 한들어린이집 원장 양인순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강원도 강릉시	연령	☑ 연령혼합반(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04년~현재(22년 5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법인	

1. 실천의 계기

본원은 농어촌지역으로 개원 당시 72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현재 정원 52명으로 변경 조정하여 유치부 아동으로만 22명(만3~5세)이 재원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 외국인 아동, 발달장애 및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지리적 위치에 따라 원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안으로 본원에서는 자연과 생태 환경교육활동을 중점교육으로 선정하여 가족과 함께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 및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하늘아래 자연과 아이들' 이라는 설립이념에 따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연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중점교육 및 특색 교육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숲유치원 활동과 자연 생태놀이, 지구환경보호 활동 등으로 다문화 가족 및 언어소통이 어려운 발달지연 아동 및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외국인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가정을 지원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 하는 파종에서부터 추수까지 결과물이 교육활동에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요리활동 및 가족 참여활동으로 이음과 연계 활동이 순환적으로 매년 이루어 지고 있다.

2. 실천 내용

자연 생태 프로그램 월별 연간 계획안 따라 매주 화요일 진행하였다. 아동은 장화, 모자, 썬크림 등을 준비하고 원에는 텃밭용 장갑. 유아용 호미, 유아용 괭이, 유아용 삽, 유아용 수레, 유아용 쇠스랑, 유아용 곡괭이, 물주기 용기, 빗물 모으기통, 곤충관찰용 돋보기, 채집통 등을 비치해두었다. 매일 매일 산책을 통하여 자연을 느끼게 하고, 작은 텃밭은 운동장 옆에 항상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큰 텃밭은 원 주변에 넓은 텃밭을 구성하여 흙놀이와 곤충관찰, 채소 수확, 열매따기 등 자연을 더욱 가깝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배우며 자연스러운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3. 실천과정

1) 파종기: 텃밭 만들어 씨앗 뿌리기

매주 화요일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3월부터 텃밭 구성을 위하여 텃밭용 장갑과 텃밭용 유아 농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텃밭을 꾸미고 있다. 또한, 각 반별로 텃밭에 자기 반 만의 푯말을 만들어 운동장에서 가깝게 놀이하면서도 항상 작은 텃밭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파에서 직접 씨앗을 받아보고, 모종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고, 흙의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퇴비와 비료를 주며 새싹으로 자라는 과정을 함께 살펴 보며 햇빛과 물, 사랑이 꼭 필요함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가꾸기: 모종과 새싹 가꾸기

텃밭의 모종심기 및 새싹 심기 이후부터는 각 텃밭의 잡초 뽑아 주기, 고라니, 고양이들이 못들어 오게 울타리를 만들어 텃밭을 가꾸어 보았다. 물주기를 위하여 작은 텃밭은 수돗물과 빗물을 모아 주었으며, 큰 텃밭은 아이들

이 물조리개에 물을 담아 각각 들고 가며 “애들아 물 많이 먹고 쑥쑥 커라” 하며 물주기를 하고 있다. 제일 먼저 수확할 수 있는 상추는 화요일마다 반별로 상추를 따서 급식시간에 상추쌈도 먹었다. 물주기 하고 난 다음날은 아이들이 “비가 언제 올까요” 하며 날씨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생겼다. 또 상추 시식 이후에는 “선생님 상추 아빠한테 선물 하고 싶어요” 하기도 하여 상추가 더 자라길 기다리기도 하였다.



3) 수확기: 가을 열매 채소 수확하기

자연관찰과 생태관찰로 수확한 고구마나 땅콩, 감, 밤, 등의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수확한 열매로 요리활동을 연결하여 급식 및 간식으로 먹으며 다양한 감각놀이 활동과 창작놀이 활동으로 연결하였다. 텃밭에 사는 곤충과 생물에 대한 관찰로 사마귀, 메뚜기, 여치, 거미, 사슴벌레 등에 먹이와 특징에 대한 배움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고구마 수확과 땅콩 수확시 유아들이 “선생님 저 땅콩이랑 고구마 아빠 것도, 아기것도 있어요” 하며, 즐거운 수확의 기쁨도 나누었다.

4) 순환기: 겨울을 준비하는 텃밭

계절의 변화에 따라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모두 알아보며 배추와 무를 수확하여 어린이집 1년 김장을 부모님과 함께 담아 보았으며, 유아들은 직접 딴 배추를 안아 옮기며 절이는 과정 및 양념하며 김장하는 체험을 요리활동으로 직접하여 배운 김치가 아닌 맛있는 김치를 담아 보았다. 부모님들의 참여로 어떤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김치를 집에서도 달라고 해요.” 하며 또 다른 유아는 “어린이집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하며 김치 담그기 체험으로 직접 만들어 보아 좀 더 쉽게 김치에 대한 친근감을 과시하며 맞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들의 겨울 준비와 동·식물의 겨울 준비를 땅의 변화로 직접 관찰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연계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실천 후 변화

1) 유아들의 변화

자연과 동식물 곤충에 대한 관찰과 표현이 언어 활동으로 연계되었으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배움이 이루어졌다. 각 반 교실앞에 아이들이 직접 메모지에 “물을 아껴써요”, “전기를 아껴써요” 등 재활용과 자연보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재순환으로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만들어 진행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초적인 관심을 갖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2) 부모님들의 변화

유아들이 수확한 감자, 고구마, 무, 배추, 등을 각 가정에서 함께 먹어 보기도 하고,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부모님 또한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집에서도 유아들이 직접 식물을 재배하고 싶다고 하여 작은 화분에 콩, 딸기, 상추등을 직접 키우고 있는 모습들을 인증샷으로 보내 주셔서 모두 함께 자연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3) 선생님들의 변화

특별한 교재나 교구를 활용하여 인성과 감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연과 생태활동으로 자연속에서 언어나 문화가 다른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궁금함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의 뜻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자연의 소중함이 환경과 지구로 확장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지구환경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매주 진행하는 생태활동과 연계하여 우리 동네 쓰레기 줍기 등으로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로 먹어요

- 텃밭에서 밥상까지,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생태 -

청주 가경아이파크어린이집 원장 이정분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연령	☑ 영아(0세~2세) ☑ 유아혼합반(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5년3월~현재(1년3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법인	

1. 실천의 계기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면서 '진짜 생태'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태는 삶 자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아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생태적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기본인 '먹거리'와 식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잘못된 식생활습관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음식이 식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아이들이 참여하여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2. 실천 내용

아이들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수확하고, 요리하며 먹거리가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였다.

첫째, 텃밭을 마련하였다. 영아를 위해 교실 앞 작은 화분 텃밭과 단지 내에 있는 텃밭을 분양받아 농사를 지어보았다.

둘째, 먹거리의 생산과정을 직접 경험하였다. 씨를 심고 다 자란 작물을 수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얼마나 필요한지, 거름은 왜 필요한지 함께 알아가며, 토마토와 콩심기, 콩나물 키우기, 메주 만들기, 간장 · 된장 담그기 등 먹거리의 생산과정을 경험하였다.

셋째, 매일 산책하고 매일 자연을 돌보았다. 산책길에 텃밭을 둘러보고, 물 주기를 하는 등 특별한 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고 살피는 생활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형님 · 동생 · 가족이 함께하였다. 형님들이 흙을 뒤집으면 동생들이 흙을 고르게 펴고, 가정에서는 수확물로 요리하거나 콩나물을 집에서 키워보며 어린이집의 생활을 가정으로 이어가도록 하였다.

3. 실천 과정

1) 씨앗기, 뭐든 해보자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먼저 단지 내 텃밭을 분양받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도전하였고, 어렵게 텃밭을 양도받았다. 걷기가 어려운 동생반을 위해서는 교실 앞에 작은 화분 텃밭을 마련하였다. 씨앗은 졸업생 학부모에게 기증받고, 모종은 아이들과 "무엇을 키워보고 싶은지" 이야기하며 선택하였다. 이 시기의 핵심은 큰 계획보다 작은 시작이었다. 텃밭이 없으면 화분에서, 넓은 공간이 없으면 산책길에서, 많은 재료가 없으면 씨앗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고르고 심는 순간, 작은 화분도 아이들에게는 자기 삶의 텃밭이 된다.

2) 새싹기, 두려움을 넘어 배우다

3월 초에는 형님들이 텃밭의 흙을 뒤집고, 동생들이 흙을 고르게 펴 주었다. 처음에는 삽과 호미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교사가 땅을 파는 방법을 보여주고, 유아반 형님들이 먼저 해 보자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였다. 위험을 모두 없애기보다,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식물을 심기만 하고 잘 살피지 않아 말라 죽는 일도 있었다. 그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왜 죽었을까?", "물을 더 줘야 할까?", "거름이 필요할까?"를 함께 고민하였다. 토마토를 기르면서는 곁순을 꺾어 주어야 잘 자란다는 것을 단지 내 어르신께 배우기도 하였다. 어르신들은 농사 방법을 알려주시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콩을 심고 꽃 분재를 가꾸며 텃밭가꾸기에 함께 해 주셨다.

전통 먹거리 경험도 조금씩 깊어졌다. 처음에는 메주를 사서 간장·된장 담그기를 해보았다. 다음 해에는 메주콩을 사고, 콩을 고르고, 삶아 으깬 뒤 메주모양으로 만들어서 시골 할머니 댁에 보내 띄워 보았다. 한 번 해보니 메주 만들기는 아이들에게 기쁜 활동이 되었고, 이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메주를 띄워 보았다. 직접 만든 메주로 간장과 된장을 담그고, 장을 가르는 날에는 아이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맛있어진 된장으로 쌈장을 만들어 봄 채소쌈과 함께 가정에서 맛보는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3) 열매기(해보니 알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텃밭 돌봄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은 매일 산책길에 텃밭을 둘러보고, 효율적인 돌보기를 위해 텃밭 물 주기 담당을 정해 식물을 돌보았다. 휴일에도 산책길에 물을 주고, 콩나물 키우기는 주말 동안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이 함께 키우고 요리하는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아이들은 직접 키운 재료로 요리하며 먹거리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텃밭 채소, 콩나물, 된장과 간장은 식탁 위에 갑자기 놓이는 음식이 아니라 흙, 물, 햇빛, 농부의 손길을 거쳐 오는 생명의 결과였다. 아이들은 먹거리를 기르고, 기다리고, 나누어 먹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 생태를 몸으로 배워갔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은 자연과 먹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자신이 키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채소를 거부하던 아이들도 "내가 키웠지"라고 말하며 조금씩 맛보려 하였다. 넘어지면 울며 도움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툭 털고 일어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힘도 생겼다.

부모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생태적 삶을 가정에서도 이어가게 되었다. 주말에도 자연을 둘러보고, 아이와 함께 식물을 돌보며, 전통방식의 식재료로 요리하고 맛보는 시간이 생겼다. 어린이집과 함께 텃밭을 분양받고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도 어린이집 운영의 동반자가 되었다.

교사들도 아이들과 함께 전통 방식과 식물의 성장 과정을 알아가며 생태적인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이른 봄 산책길에서 냉이와 쑥을 뜯어 된장찌개와 쑥버무리를 해 보고, 교사 주도의 설명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관찰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되었다.

제철 식재료로 식단을 구성하며, 전통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직접 키우고, 만들고, 맛보면서 전통문화와 건강한 식생활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삶으로서의 생태, 실천하는 생태를 알아가고 있다.

도심 속에서도 생태어린이집이 가능할까? 가능해!

청주 가경아이파크어린이집 원장 이정분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연령	☑ 영아(0세~2세) ☑ 유아혼합반(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0년3월~현재(6년3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법인	

1. 실천의 계기

생태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숲속에서 노는 아이들'을 떠올린다. 산이 있어야 하고, 근사한 숲이 있어야 가능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아는 숲에 가기 위험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도심 속 아파트 단지 내 우리 어린이집 역시 어떻게 생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더하기 빼기와 한글을 더 많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배우는 주체적인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확실했다. 이러한 마음을 어린이집의 보육철학으로 삼아 개원 이래 6년간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배우고, 문화를 통해 배우고, 인간을 위해 배우길 바라며,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생태적인 삶을 모색해왔다.

2. 실천 내용

본 실천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도심 속 아파트 단지와 인근 자연환경을 아이들의 삶터로 삼아, 일상 속 생태적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산책과 텃밭 가꾸기를 통한 자연교육을 실천하였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산책길에서 만나는 식물과 곤충, 텃밭에서 나는 작물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아이들은 매일 밖으로 나가고, 매일 둘러보고, 매일 돌보며 자연의 변화를 알아갔다.

둘째, 전통과 세시풍속교육을 생활 속에서 이어갔다. 절기놀이, 단오, 동지, 민속놀이 등 선조의 지혜가 담긴 생활문화를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였다. 어느 날 하루 행사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보는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셋째, 형님 · 동생 · 노인 · 지역이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실천하였다. 형님이 하는 모습을 동생이 보고 따라 하며 배우고, 단지 내 어르신들이 텃밭과 화분을 함께 돌보며 농사 방법을 알려주셨다. 교실을 넘어 아파트 단지와 지역 어르신까지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었다.

3. 실천 과정

1)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처음부터 산책과 텃밭, 세시풍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산책을 쉬는 날도 있었고, 아이들은 줄을 맞춰 걷거나 잘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노는 것에 익숙했다. 작은 화분에 심은 작물도 아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마르기도 했다.

세시풍속 역시 처음에는 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참여하는 하루 행사에 가까웠다. 아이들은 '내 교실', '내 물건'에는 익숙했지만 다른 반 친구와 함께 나누고 어울리는 일은 낯설어했다. 이에 교사들은 생태유아교육을 배우고, 교사교육과 학습공동체, 부모 상담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어린이집에서 가능한 생태적 삶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2) 방법을 배우며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자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산책은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의 일과가 되었다. 감기 걱정

을 하던 부모님들은 적당한 옷을 챙겨오고, 위험하다 거부하던 놀이들을 아이들의 도전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텃밭의 농사 실패를 경험하며 식물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였다. 주중에 둘러보던 텃밭을 주말에는 돌보기 어려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가족들이 산책길에 빗물저장고의 물로 텃밭을 돌보았다.

절기와 세시풍속은 첫 해 단오와 민속놀이 체험만 하던 것이 곡우, 칠석, 동지 등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매년 늘어갔다. 반별로 나가던 산책은 형님과 동생이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배워갔다.

3) 조급하지 않게 우리 살림집을 꾸리자

지금의 아이들은 날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만나는 자연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주변 산과 공원, 꽤 먼 거리도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공간도 조심스럽게 탐색하며 매일 새로운 자연놀이터를 스스로 발견한다.

텃밭에서는 먹거리의 생산과정을 몸으로 배운다. 직접 기른 작물로 요리하고, 절기와 세시풍속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 간다.

또한 어려워하던 교사들도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텃밭과 화분을 함께 돌보며 농사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설명을 듣기보다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지켜보고, 따라 하며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다. 어린이집의 생태살림은 아이, 교사, 부모, 지역 어르신이 함께하는 삶으로 넓어졌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산책길에서 벌레를 보고 피하거나 밟으려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개미, 지렁이, 애벌레를 쪼그리고 앉아 관찰하며 작은 생명을 소중히 바라보게 되었다. 넘어지면 울며 도움을 기다리던 모습도 줄어들고, 스스로 툭 털고 일어나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힘이 생겼다.

부모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생태적 삶을 가정에서도 이어가게 되었다. 주말에도 자연을 둘러보고, 아이와 함께 식물을 돌보며, 전통방식의 식재료로 요리하고 맛보는 시간이 생겼다. 또한 산책 중 생기는 작은 상처나 흙 묻은 경험을 걱정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으로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었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식물의 성장과 전통먹거리의 과정을 알아가며 생태적인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교사 주도의 설명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관찰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되었고, 넘어질까 다칠까 조바심 내기보다 “그럴 수 있어”, “스스로 일어서 보자” 하고 기다려 주는 여유가 생겼다.

우리 어린이집은 도심 속 아파트 단지와 지역사회를 삶터로 삼아 생태살림을 실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주체가 되었고, 생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일상 속 삶의 방식임을 알게 되었다. 도심 속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생태적인 삶은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이들이 떠난 마을에서, 생태로 다시 피어난 어린이집

- ESG와 되살림으로 농촌 보육의 가치를 높이다 -

나주 송현어린이집 원장 이성자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전남 나주시	연령	☑ 영아(0세~2세) ☑ 3세 ☑ 4세 ☑ 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3년~현재(3년5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법인	

1. 실천의 계기

전남 나주 원도심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본 어린이집은 과거 '새마을 유아원' 시절부터 이 지역의 보육을 책임져 온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며 주변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남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혁신도시 조성으로 영유아 가정이 대거 이주하였고, 신축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신설과 민간의 국공립 전환이 맞물리면서 원아 수가 급감하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위기를 헤쳐 나갈 돌파구로 보육의 본질을 깊이 고민한 끝에, 늘 곁에 있던 주변 환경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 원 주변은 과실수 비닐하우스, 넓은 논과 밭 등 사계절 농촌의 정겨운 일상과 삶의 진실된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었다.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의 교육을 접하고 이 자연 환경과 생태교육을 결합한 차별화된 보육 브랜드를 만들고자 생태교육을 전격 도입하게 되었다.

2. 실천 내용

가장 먼저 보육 주체인 교사들의 역량을 다지기 위해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에 참여했고, 나 역시 생태유아교육 관련 자격과정과 컨설턴트 과정을 수료하며 전문성을 길렀다. 이는 원이 변화해야 할 부분을 알고 부족한 점을 교사들에게 알려주며 원의 생태교육을 이끌기 위함이었다. 2023년 초에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과감하게 생태교육 실시를 약속하며 공식 '산책 동의서'를 나누어 드렸다. 교사들에게도 원장이 부모님께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부탁했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매일 산책'이 확고한 교육활동으로 실천되기 시작했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 같은 따스함과 엄마가 차려준 정을 느끼도록 기존 식판 대신 개별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으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매일 차 마시기와 소금양치, 산양유 급식으로 면역력을 챙겼다. 한편, 생태교육 실천이 교사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첫해에는 사계절의 순리에 따라 천천히 따라올 수 있게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생태주간'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학부모 참여 단오 체험, 메주를 활용한 된장 · 간장 만들기 등 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세시풍속과 절기 교육을 차근차근 실행하였다.



3. 실천 과정

1) 인식 전환과 환경 조성기

생태교육을 시작한 첫해에는 우선 교사들부터 생태교육의 본질을 체득하는 데 전념하였고 '매일 산책'을 실천하고 원내 그릇 교체와 차 마시기, 텃밭 가꾸기, 단오행사 등 즉각 실천 가능한 기초 프로그램부터 점진적으로 시도했다.

2) 교육과정의 심화 및 ESG와 연결기

이듬해 '매일 산책'이 편안한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생태교육을 한 단계 더 심화시켰다. 특히 이 시기에는 EM 흙공 던지기, 플로킹 등의 환경 보호 활동과 상생(相生)을 실천하며 생태와 ESG의 연결을 시도했다. 전통적인 세시풍속(메주·된장·간장 만들기 등) 및 줄놀이, 전통무예를 연간 계획에 맞춰 본격적으로 실행했으며, 부족했던 입말이야기나 리듬몸짓놀이등을 추가로 실천해 나갔다.

3) 되살림 교육의 확장 및 정책적 성과기

교사들이 '자연의 관찰자'로 변화하면서 생태교육을 폐품 재활용 중심의 '되살림 교육'과 연결하여 심화시켰다. 교육부 공모전에서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한 생태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 지역 보육관계자들 앞에서 우수 사례를 당당히 발표하기도 했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의 변화 수동적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물을 스스로 관찰하고 능동적으로 질문한다. 되살림 교육을 통해 폐품과 자연물에 색을 칠하고 세심하게 형태를 만들어 자기가 놀 장난감을 스스로 창조하며 놀이를 확장한다. 텃밭 달팽이를 소중히 옮겨주고 쓰레기를 스스로 주우며 생명 존중을 몸소 실천한다.

부모님의 변화 아이들의 면역력 향상에 깊은 만족감을 보인다. 원의 미션을 통해 가정에서도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고, 아이들이 집에서도 폐품을 버리지 않고 요구르트병 등으로 업사이클링 놀이를 주도하자 부모님들도 생태적 삶과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교사와 지역사회의 변화 아이들과 함께 매일 걸으며 교사들의 면역력도 강화되었고 자연물을 만지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업체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생태 미술 활동을 스스로 연구하는 보육의 주체로 변화했다. 또한, 산책길에서 만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텃밭 농사 방법을 배우는 등, 어린이집 아이들과 고령화된 시골 마을 공동체와 소통하고 상생을 이끌어내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5. 마무리

현재 송현어린이집은 젊은 세대의 유입이 적은 농촌 지역에 자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계절의 자연환경과 마을 공동체를 보육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생태를 실천하는 어린이집'으로 인지도를 높여 왔다. 매년 원아 수 감소라는 농촌 보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심 어린이집 못지않게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농촌 어린이집의 강점을 살리고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생태교육이라는 보육의 본질을 꾸준히 지켜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송현어린이집의 실천은 위기 속 농촌 어린이집의 강점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려 가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사례이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생명 존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고, 부모는 가정 안에서 생태적 삶을 이어 가며, 교사는 농촌의 삶터를 교육과정으로 되살리는 보람과 전문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 사례가 전국의 농촌 지역 보육 현장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작은 격려가 되고, 지역 사회와 아이들의 삶을 살리는 생태유아교육 실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작은 손으로 만드는 깨끗한 물, 건강한 지구
- 장애영유아와 함께한 EM 환경실천 프로젝트 -

여수 베타니아생태어린이집 원장 이충경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전남 여수시	연령	☑ 영아(0세~2세) ☑ 유아혼합반(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바깥놀이) ☐ 먹거리·생활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 부모·가정 살림 ☑ 절제절약·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6년5월~현재(2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가정 ☑ 직장·법인(장애통합)	

1. 실천의 계기

베타니아생태어린이집은 "다름과 같음"의 철학을 바탕으로 20여년 동안 장애영유아 교육을 실천해 왔다. 이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생태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자연을 경험하고 환경을 지키는 활동 역시 일부 아이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장애영유아 모두가 누려야 할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본 어린이집은 15년 이상의 EM(유용미생물군)을 활용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참여해 왔다.

교사들은 환경보호 활동 속에서 장애영유아는 단순히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개별화교육계획(IEP)을 반영하여 **「우리는 EM지구수호대!」**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영유아들이 EM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생활 속 환경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2. 실천 내용

본 프로젝트는 EM활성액 만들기, EM흙공 만들기, EM활성액 활용하기, EM 나눔 캠페인 등으로 운영하였다. 장애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개별화교육계획(IEP)을 반영하여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의사소통·신체활동·감각탐색 수준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EM의 냄새와 촉감을 탐색하고, 직접 EM활성액을 만들어보고, EM활성액을 텃밭과 화단에 뿌려보고, EM흙공을 만들어 하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도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였다.

가정에서는 EM활성액 활용하기, 물 아껴쓰기 등의 연계활동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환경 실천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실천 과정

1) 만남기 - "EM이 뭐예요?"

프로젝트의 시작은 EM을 알아가는 것보다 '환경을 지키는 나'를 만나는 과정에 더 가까웠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EM활성액의 냄새를 맡고 색깔을 관찰하며 EM을 처음 접하였다. 특유의 시큼한 냄새에 거부감을 보이는 아이도 있었지만, 교사의 지원과 반복적인 탐색을 통해 점차 재료에 익숙해지며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교사들은 그림자료 등을 활용해 EM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유용한 미생물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아이들은 EM에 대해 점차 관심을 보이며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흥미 역시 키워 나갔다.

2) 성장기 -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아이들은 EM원액과 당밀, 쌀뜨물을 섞어 EM활성액을 만들고 변화 과정을 관찰하였다. 또한 EM흙공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여 흙을 만지고 굴리며 다양한 촉감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결과보다 참여 과정에 의미를 두었다.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는 교사와 함께 재료를 섞고 흙공을 만들었다. 거부감이 강한 아이들은 당밀의 향, 황토의 부드러움 등을 활용하여 재료에 점차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EM활성액과 EM흙공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에 큰 흥미를 보였고,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3) 실천기 - "우리가 환경을 지켜요!"

아이들은 직접 만든 EM활성액을 텃밭과 화단에 뿌려보고, EM흙공을 이용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EM활성액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알렸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아이들도 지역주민에게 EM활성액을 전달하며 "환경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는 지구수호대예요!" 라고 이야기하였다. 활동이 진행될수록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고, 자신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은 EM활동을 통해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장애특성으로 인해 표현이 어려웠던 아이들도 반복적인 체험과 실천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정에서도 EM활성액 활용과 환경보호 실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자녀와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장애영유아 역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장애영유아 역시 유능감과 잠재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활동을 거부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도 교사들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점차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며, 환경보호 활동의 대상이 아닌 실천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이는 "다름과 같음"의 철학이 교육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점심시간 바깥놀이 30분의 힘

- 구슬과 고무줄로 되찾은 아이들의 신명 -

경주 모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신영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연령	☑ 혼합연령(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5년11월(3주)		
기관 유형	유치원	☑ 국공립(병설 유치원) ☐ 사립	

1. 실천 계기

아이들에게 진짜 흙과 놀이를 돌려줄 수 없을까?

우리 반은 점심 식사 후 방과후 과정 시작 전까지 약 30분의 여유 시간을 대부분 교실 안에서 독서하거나 자유놀이 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그러나 방과후 과정 시간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을 금방 느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다움'을 되찾아주기로 마음먹었다. 짜인 일과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들에게 '이 30분만큼은 플라스틱 장난감 없이 바깥 공기를 마시며 맨몸으로 부딪히는 놀이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싸고 화려한 교구가 아닌, 흙바닥과 돌멩이, 고무줄 하나면 충분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 놀이. 그 전래놀이가 아이들에게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 세대 간의 정서적 유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훌륭한 생태교육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 실천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실천 내용

햇살 아래 흙먼지 날리며 노는 30분의 마법

우리 반은 3세부터 5세까지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11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 나는 11월 3주간, 주 3회 이상 점심을 먹고 난 뒤 12시 20분부터 50분까지 유치원 앞마당과 놀이터,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무작정 나가서 놀기로 했다. 놀이의 내용은 거창하지 않았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시작한 '구슬 던지기', 서로의 구슬을 따내는 '구슬 따먹기', 그리고 두 다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고무줄 놀이'가 전부였다. 시작 전 가정통신문을 통해 바깥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편안하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등원할 것을 안내했고, 유치원에서 한 놀이에 대해 가정과 공유하였다.

3. 실천 과정

낯선 놀이 맛보기로 시작해 끈기 있게 도전하고 다 함께 즐기다!

1) 전래놀이 맛보기

처음 며칠은 그저 전래놀이를 '맛보는' 시간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흙바닥에 털썩 주저 앉는 것조차 낯설어한다. 하지만, 막상 구덩이를 파고 구슬을 굴려보고 구슬을 따 먹는 경험을 맛보더니 불과 며칠 만에 바지에 묻은 흙먼지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놀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3살 은채는 언니가 자기 구슬을 따가자 삐치기도 하고, 질 것 같으면 "안 할래요!" 라며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2) 전래놀이 도전하기

놀이에 익숙해지자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도전' 하기 시작했다. 구슬을 따기 위해 몸을 거의 땅바닥에 붙여 각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승부욕에 불탄 5살 태현이는 "내일은 여준이 구슬 내가 다 딸 거야!" 라며 교실로 돌

아와서도 병뚜껑으로 구슬치기 맹연습을 하였다. 구경하는 초등학교 형님들에게 놀이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고무줄놀이에서도 4세 하율이는 처음엔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꾸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다시 해 볼래요!" 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를 보여주었다. 그 진지한 눈빛과 도전하는 모습들이 어찌나 뭉클하고 예뻤는지 모른다.




3) 전래놀이 즐기기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은 뒤, 아이들은 마침내 놀이 자체를 온전히 '즐기는' 단계로 나아갔다. 아침에 등원하면 "오늘도 밥 먹고 고무줄 해요? 오예!" 하고 좋아하는 아이들, "이거 성공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라고 기대감에 찬 얼굴로 묻는 아이들은 진정 이 놀이를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살 강한이는 구슬을 잃고 속상해하는 친구를 보며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위로하기도 하였다. 교사가 백 번 가르쳐 주는 것보다 놀이 속에서 스스로 깨친 이 한마디가 교사인 나에게 큰 감동이었다. 고무줄놀이를 할 때는 지나가시던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때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겠다!" 하시며 아이들 틈에 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승패를 뛰어넘어 아이, 교사, 그리고 이웃까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놀이를 즐겼던 경이로운 순간들이었다.




4. 실천 후 변화

신명 나는 아이, 보람 있는 교사, 편안한 부모

1) 눈을 반짝이며 도전하는 아이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표정과 내면의 단단함이었다. 아침에 등원하자마자 "선생님, 오늘도 고무줄놀이해요?"라고 묻는 아이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발달이 느려 의사소통이 어렵고 혼자 겉돌던 4살 주원이는 고무줄놀이 1, 2단계를 훌쩍 뛰어넘으며 처음으로 어깨를 으쓱거렸다. 놀이에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친구들 틈으로 들어와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5살 형들이 3살 동생들을 챙겨 놀이에 끼워주는 모습은 혼합 연령 바깥놀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2) 어린 아이의 마음을 되찾은 교사

솔직히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나까지 쉬지 못하고 나가면 더 피곤하지 않을까?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고무줄을 뛰고 구슬을 치면서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신나게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갈등 상황이나 소란스러움도 통제해야 할 문제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에너지의 분출이자 스스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하루 30분의 바깥 공기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까지 환기 시켜 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3) 아이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 주는 부모

흙 묻은 옷을 빨래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식탁에 앉아 아이가 들려주는 "오늘 구슬치기에서 이겼어!", "고무줄놀이 3단계 성공했어!"라는 무용담에 귀 기울이며 함께 기뻐해 주셨다. 스마트폰 게임 이야기 대신 엄마 아빠가 어릴 적 하던 놀이를 자녀와 공유하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흙먼지를 묻혀와도 건강하게 뛰어놀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편안한 부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시풍속 놀이로 자연과 절친되기

상주 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태정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경북 상주시	연령	☑ 유아혼합반(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5년3월~2025년10월(8개월)		
기관 유형	유치원	☑ 국공립(병설유치원) ☐ 사립	

1. 실천의 계기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고 나뭇잎의 색깔이 달라져도 유아들은 계절의 변화를 모른 채 미디어 속 영상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유아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을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찾아보다가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세시풍속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세시풍속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행해 온 고유의 풍속으로 놀이, 먹거리와 관련한 풍속이 전해오고 있다. 유아들이 세시 풍속 놀이를 통해 계절별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를 체험하며 자연을 나와는 별개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시풍속 놀이로 자연과 절친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2. 실천 내용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에 친숙해질 수 있는 세시풍속 놀이는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계절에 따라 명절이 있는데 봄에는 삼월 삼짇날 놀이, 여름에는 단오 놀이, 유두절 놀이, 칠월 칠석 놀이를 하였고 가을에는 추석과 중양절 놀이를 실시하였다. 세시풍속과 관련된 자연 놀이는 명절 당일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유치원 주변 산책하기, 자연 관찰하기, 식물 및 자연물 채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유아들이 자연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절별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유아들은 매일 산책을 하며 다양한 날씨를 느껴보고 계절마다 피는 꽃과 풀 등 식물을 직접 관찰하여 세밀화를 그려보고 쑥 등 과 같은 식물 캐기 및 나뭇가지, 솔방울 등과 같은 자연물을 채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명절이 다가오면 그와 관련된 놀이와 먹거리 체험을 진행하였다. 가정에 세시풍속 안내장을 배부하여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하여 세시풍속 놀이를 진행하였다.

3. 실천 과정

계절에 따른 명절이 다가오면 유아들에게 명절과 관련된 영상 및 그림책을 보여주고 명절에 할 수 있는 놀이와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 따뜻한 봄을 느껴요

제비가 돌아오며 봄을 알리는 명절인 삼월 삼짇날(음력 3월 3일)이 되기 3주 전부터 유아들은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며 민들레 꽃과 민들레 잎을 관찰하고 이를 뜯어 민들레 화전을 만들었다. 유아들이 만든 민들레 화전은 다른 반의 선생님, 친구들과 나눠서 먹었다. 그리고 솔잎을 엇갈려 걸어서 친구의 솔잎을 먼저 끊으면 이기는 솔잎 씨름을 하였고 봄을 알리는 새인 제비를 만들어 운동장에서 제비 날리기를 하며 봄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2) 싱그러운 여름을 느껴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인 초여름에 지내는 명절인 단오(음력 5월 5일)에는 유아들이 쑥을 뜯어 쑥 인절미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나눠서 먹었다. 그리고 머릿결이 좋아지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엉덩이 씨름을 하였다. 단오 부채 꾸미기를 하여 친구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잘 보내라고 서로 부채질을 해주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명절인 유두절(음력 6월 15일)에는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계곡에 가서 물놀이하기, 유두 국수 먹기, 오방색 유두 목걸이 만들기를 하였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명절(음력 7월 7일)에는 앙말목 직조 체험과 견우와 직녀 그림책을 읽고 동극하기, 초등 형님에게 사랑의 떡 전달하기를 하였다.



3) 시원한 가을을 느껴요

추석(음력 8월 15일)에는 유아들이 다양한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기, 한복 패션쇼, 강강술래 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중앙절(음력 9월9일)에는 산책을 하면서 가을 풍경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하며 동시 짓기를 하였고 산책 장소에서 가을 풍경을 보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초등 형님들 앞에서 동시 낭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책 중에 유아가 직접 따고 말려서 우린 국화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실천 후 변화

유아들은 세시풍속 놀이를 실천 하면서 사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자연을 살아 숨 쉬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보였다. 유치원 정원에서 꽃을 꺾으려는 유아를 보고 다른 유아가 "꽃도 생명이야 꺾으면 안돼" 라고 말하는 모습과 같이 스스로 생명을 돌보고 아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실시한 연간 세시풍속 놀이가 아이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한 학부모는 산책 중에 아이가 죽어있는 지렁이를 보자 "지렁이 불쌍해" 라고 말하며 지렁이 돌무덤을 만들고 줬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죽은 지렁이를 밟으며 놀던 아이가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를 기특하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늘었다.

유치원 교사로서 사계절 세시풍속 놀이를 진행하며 느낀 것은 유아들은 자연 속에 있을 때 천진난만한 아이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는 점이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교사인 나도 행복했다.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실제」를 참고하여 연간 세시풍속 계획을 미리 짜두고 유아들과 산책을 자주 하다 보면 힘들이지 않고 세시풍속 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사계절 세시풍속 놀이는 앞으로도 계속 유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되살림 땋은 줄놀이로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 연령통합으로 신명나게 놀아보세! -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 백정이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연령	☑ 3세 ☑ 4세 ☑ 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바깥놀이) ☐ 먹거리·생활 살림 ☐ 마을·공동체 살림 ☐ 부모·가정 살림 ☑ 절제절약·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10년~현재(16년5개월)		
기관 유형	유치원	☐ 국공립 (병설 유치원) ☑ 사립	

1. 생태유아교육 철학에 맞게 실천하게 된 계기

땋은 줄놀이를 현장에 실천하게 된 동기는 15~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에서 실시하는 일본 유아교육기관 방문 연수에서 줄넘기하는 시간을 참관하였다. 그 때 느낀 건 한국에 돌아가면 현장에서 생태유아교육의 철학에 맞게 '스스로 살아가는 힘',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집에서 만들어 오기보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되살림천을 이용하여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직접 땋아 개인 줄넘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개인 줄넘기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평소 아이들의 놀이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줄넘기를 이으면 2인 3각, 기차놀이, 줄다리기, 꼬마야 꼬마야, 줄 안에 줄넘기 등으로 확장해 가면서 놀이 활동을 잘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연수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학부모 참여 수업 때 일본에서 본 줄넘기 이야기를 학부모님께 전달했고, 우리 기관에서는 생태유아교육 철학에 맞게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실천해 나갔다. 이러한 실천은 조상들의 지혜인 돌림과 순환의 경제, 절약·절제의 습관,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지구를 살리는 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2. 실천 내용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천, 분리수거할 옷, 과일 보자기, 유치원 행사 후 남은 플랜카드 등을 모아 아이들이 직접 찢고 땋아 줄놀이에 활용하였다. 버려질 수 있는 천이 아이들의 손을 거쳐 개인 줄넘기, 2인 3각, 기차놀이, 줄다리기, 꼬마야 꼬마야, 줄 안에 줄넘기 등 다양한 놀이 도구로 되살아났다.

3월 입학 후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어깨너머로 배우는 되살림 도전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되살림 땋은 줄놀이는 단기 활동이 아니라 입학 후 졸업까지 지속되는 놀이이며, 5세 졸업 전에는 땋은 줄로 다양한 줄놀이를 발표한다. 이처럼 줄놀이, 딱지놀이, 팽이놀이 등과 같이 되살림 도전놀이는 해마다 이어지는 해돋이의 시그니처 놀이가 되고 있다.

3. 실천 과정

1) 직접 구한 재료로 각반에서 또래끼리 줄 땋는 방법을 익힌 후 동생들에게도 알려주기

아이들은 땋은 줄놀이를 하기 위해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되살림천과 보자기천을 직접 분류하고, 땋는 법을 서로 도와주며 익혀 나갔다. 5세 소진이가 집에서 가져온 천으로 "이거로 우리 되살림 땋은 줄 만들어 줄놀이를 하지!"고 하자, 아이들은 천을 길게 자르고 묶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며 함께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천을 자르고 묶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아 매듭을 만들고 세 줄 땋기 방법을 서로 알려 주며 줄을 땋았다. 아이들은 완성한 땋은 줄을 가지고 바깥놀이터로 나갔다. 동생들이 궁금해하자 형님들은 되살림천을 함께 맞잡고 찢으며 세 줄 땋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직접 구한 천이 아이들의 손을 거쳐 줄놀이의 놀잇감이 되었고, 형님이 익힌 기술은 자연스럽게 동생들에게 전해졌다.



2) 안팎을 넘나들며 다양한 줄놀이 방법을 동생들에게 전수하면서 도전하기

아이들이 직접 만든 되살림 땋은 줄로 줄넘기를 연습하고 있다. 4세 세은이가 계속 해서 발이 걸리자 그것을 지켜 본 5세 유나가 "세은아, 더 높이 뛰어봐! 그래야 발이 안 걸려" 라고 말했다. 5세 언니인 유나의 말에 동생인 4세 세은이가 더 높이 뛰면서 줄넘기를 도전했다. 세은이가 줄넘기에 성공을 하면서 "오! 드디어 성공했어." 라고 말하자 유나가 "와아 세은아 축하해! 나도 발이 계속 걸릴 때는 더 높이 높게 점프를 하니까 넘었어 넘었어!" 라고 말했다. 세은이가 "이번에는 언니 줄넘기 몇 개 하는지 세어줄게!" 라고 말하자 유나가 줄을 넘기 시작했다. 세은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라고 숫자를 세었다.



3) 가족참여잔치에도 되살림 줄놀이 즐기기

가족참여잔치를 통해 되살림 땋은 줄놀이의 의미와 놀이 방법을 가정과 공유하였다. 잔치 당일에는 원장 특강을 통해 아이들이 줄놀이를 하며 인내, 도전, 성취감, 신체 조절력과 균형감을 기르는 과정임을 나누었다. 이후 가족들이 함께 줄을 땋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즐기던 다양한 줄놀이를 함께 해보며 함께 생태유아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되살림 땋은 줄에 애착을 가지고, 등원하자마자 교실, 복도, 강당, 대청마루, 흙마당 등에서 줄넘기를 스스로 연습하게 되었다. 형님처럼 줄을 잘 넘고 싶은 마음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어졌고, 줄 땋기 기술은 단오 세시잔치의 장명루 만들기, 역할놀이의 집 출입문과 커튼, 앞치마, 땋은 줄로 원을 만들어 원 안으로 팽이를 던져 명중시키는 놀이 등 다양한 놀이로 확장시켜 놀이하였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놀잇감이기 때문에 싫증내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 변형하고 놀이를 이어가는 힘을 길러 갔다.

교사들은 땋은 줄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교실과 복도, 바깥놀이터, 나들이 장소 등으로 놀이 공간을 넓혀 주었다. 가족참여잔치 이후 땋은 줄의 수가 많아지자 각 반에만 두지 않고 복도에도 걸어 두어 필요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져가고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도 놀잇감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고 확장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부모들은 가정통신문과 가족참여잔치, 학부모 특강 등을 통해 되살림 땋은 줄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맨발놀이와 줄놀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양말과 신발이 더러워지는 일을 불편해하기보다 아이들이 편하게 움직이고 놀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가정에서도 캠핑이나 나들이 때 되살림천으로 줄을 만들어 놀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아이들이 종이상자나 헌 양말, 단추, 털실 등을 유치원으로 가져가겠다고 챙기면서, 되살림 실천이 가정에서도 이어졌다.

놀이로 잇고, 되살림으로 키우는 지구살림마을

함안 충무어린이집 원장 이은미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경남 함안군	연령	☑ 영아(0세~2세) ☑ 3세 ☑ 4세 ☑ 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22년~현재(4년5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법인	

1. 실천의 계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한 육군 제39보병사단 직장어린이집인 충무어린이집은 3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 7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본 어린이집은 '놀면서 배우고 사랑으로 자라는 어린이' 라는 원훈 아래 영유아 중심 · 놀이 중심 교육을 실천하며,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생태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숲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생태환경 실천활동 등을 통해 영유아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이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무어린이집은 숲놀이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어느 날 산책 중 아이들이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발견하며 "왜 사람들이 그냥 버려요?", "지구가 아프대요." 라고 질문하였다. 아이들의 작은 관심은 환경문제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고, 교사들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태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보육실에서 매일 버려지는 우유팩, 종이상자, 병뚜껑, 휴지심 등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이것들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었고,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되살림 놀잇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실천 내용

충무어린이집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늘무해」[1]와 「탄생숲사랑 캠페인 多가치 GREEN 마을」[2]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유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실천 기간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되살림 놀잇감으로 활용하고, 분리배출, 이음마켓, 녹색밥상, 줍깅 활동, 우유팩 수거, 폐건전지 모으기 등 다양한 자원순환 실천 활동을 운영하였다.

유아들은 단순히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에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모으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놀잇감을 만들고 놀이를 확장해 나갔다.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재활용품 수집, 되살림 놀잇감 만들기, 이음마켓 참여 등을 실천하며 생태유아교육이 어린이집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다.

3. 실천 과정

1) 씨앗기: "이것도 놀잇감이 될 수 있을까?"

처음 아이들은 우유팩과 종이상자, 병뚜껑을 당연히 버려야 하는 물건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분리배출 활동과 숲놀이를 경험하며 버려지는 물건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뚜껑이 자동차 바퀴 같아요."

"상자로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생활 속 물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교사는 다양한 재료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1) 2022년 한국숲유치원협회 유아숲사랑단실천사례 공모전 대상(산림청장상) 수상
2) 2024년 한국숲유치원협회 유아숲사랑단 실천사례 공모전 대상(산림청장상) 수상

있도록 지원하였다. 버려진 물건은 어느새 놀이의 재료가 되었고, 아이들의 상상력은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2) 새싹기: “우리 손으로 다시 태어나요”

아이들은 종이상자, 우유팩, 병뚜껑 등을 활용하여 배, 이글루, 자동차, 동물, 악기 등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놀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였다.

“나는 집 만들게.”, “그럼 나는 길 만들게.”, “우리 같이 연결해 보자.”

버려지는 물건은 아이들의 손과 상상력을 만나 새로운 놀잇감으로 다시 태어났고, 놀이 역시 개인의 활동에서 공동의 창작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3) 열매기: “함께 만드는 多가치 GREEN 마을”

되살림 놀잇감 활동은 어린이집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었다. 아이들은 이음마켓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지구수비대 활동으로 우유팩과 폐건전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부모와 함께 되살림 놀잇감을 만들고, 줍깅과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버려진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경험은 단순한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사람, 공동체를 연결하는 생태적 경험으로 확장되었다. 아이들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몸소 경험하며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워 나갔다.



4. 실천 후 변화

아이들은 버려지는 물건을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자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우유팩도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놀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이해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실천하는 태도가 형성되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도 함께 성장하였다.

부모들은 가정에서도 분리배출과 재사용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자녀와 함께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재활용품 모으기와 되살림 놀잇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생태유아교육이 가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들은 환경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과 놀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의 질문을 소중히 여기고 놀이를 기다려 주는 과정에서 생태유아교육의 본질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지속적인 경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려진 물건을 되살리는 경험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자연과 사람,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는 생태유아교육의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배워가고 있었다.

단오 잔치에서 텃논으로 이어지는 생태영유아교육 실천

제주생태유아공동체 공동 집필

기관 및 실천 정보			
지역	제주도	연령	☑ 영아(0세~2세) ☑ 3세 ☑ 4세 ☑ 5세 ☑ 연령혼합반(3~~5세)
실천 영역	☐ 놀이 살림(산책 · 바깥놀이) ☑ 먹거리 · 생활 살림 ☑ 마을 · 공동체 살림 ☐ 부모 · 가정 살림 ☐ 절제절약 · 지구 살림		
실천 기간	2003년12월~현재(3년6개월)		
기관 유형	어린이집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법인	

1. 실천의 계기

제주생태유아공동체의 시작은 2003년 12월 제주지역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모여 만든 생태보육 연구모임이었다. 당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노는 일”이라는 데 마음을 모았다. 좋은 먹거리, 전통문화, 생태교육을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자연과 멀어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이 고민은 2004년 제주생태보육협회 창립으로 이어졌고, 이후 친환경 급식, 생태교육, 지역사회 연대사업으로 확장되었다. 2009년에는 제주생태유아공동체로 이름을 바꾸며 전국 생태유아교육 흐름과도 연결되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처음 마음은 같았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놀이를 돌려주고, 우리 먹거리와 생태교육, 그리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게 하자는 것이었다.

2. 실천 내용

그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실천이 어린이 단오 잔치와 전통문화 한마당이다. 단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먹고 놀며 삶의 활력을 나누던 세시풍속이다. 우리는 단오를 옛 풍습의 재현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절과 놀이, 먹거리와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보았다.

처음 단오잔치는 작은 세시풍속 체험으로 시작되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단오 체험마당, 전통 놀이, 전통 먹거리, 전통 공연, 지역사회 연대 단체들의 장터가 어우러진 전통문화 한마당으로 자라났다. 아이들은 전통문화를 책으로 배우지 않았다. 창포물의 향을 맡고, 떡메를 치고, 투호와 굴렁쇠를 하며, 친구와 함께 웃고 뛰면서 몸으로 배웠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줄다리기 속에서 크게 웃고, 낯설어하던 아이가 친구 손을 잡고 놀이마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교사들에게 큰 보람이 되었다.



3. 실천 과정

1) 전기

생태보육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 아이들의 밥상과 놀이를 바꾸자는 마음으로 친환경 급식과 단오 잔치를 시작했고, 교사들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놀고 느끼는 동행자가 되었다.

2) 중기

단오 잔치가 공동체의 대표 실천으로 자라난 시기였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참여 기관과 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는 더욱 풍성해졌다. 준비 과정에서 안전, 예산, 역할 분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의논하고 조율하며 공동체의 힘을 배웠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신명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태유아교육이 자연 체험을 넘어 몸과 마음, 관계를 살리는 교육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3) 후기

전통문화 한마당의 흐름이 텃논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단오 잔치가 계절과 전통문화의 지혜를 몸으로 경험하게 했다면, 텃논 교육은 볍씨에서 밥상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을 느끼게 한다. 아이들은 작은 볍씨를 만나고, 모를 심고, 벼가 자라기를 기다리며 생명은 관심과 돌봄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배운다. 흙이 묻는 것을 싫어하거나 발이 논에 빠져 놀라는 아이에게 교사는 “처음이라 낯설 수 있어”, “선생님도 같이 해볼게”라고 말하며 마음을 받아준다. 그 순간 텃논은 생명을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 살아보는 공간이 된다.





4. 실천 후 변화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아이들은 우리 문화를 낯선 지식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 경험하게 되었다. 전통 놀이는 경쟁보다 어울림을, 전통 먹거리는 우리 농산물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려주었다. 텃논 교육은 여기에 생명과 돌봄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아이들은 볍씨와 모, 벼와 쌀을 만나며 밥 한 그릇 안에 흙과 물, 햇빛과 농부의 수고가 담겨 있음을 알아간다.

교사들도 아이들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자연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자연을 만나는 동행자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부모들도 전통문화, 친환경 먹거리, 자연 놀이, 텃논 교육이 따로 떨어진 활동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제주생태유아공동체의 실천은 작은 연구모임에서 시작하여 단오 잔치와 전통문화 한마당으로 자라고, 이제 텃논 생태전환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아이들이 신명나는 놀이 속에서 자라고, 우리 문화의 지혜를 몸으로 배우며, 자연과 사람을 존중하는 생태적 삶의 감각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실천을 이어가고자 한다.

MEMO

MEMO

MEMO

2026
생태영유아교육 실천포럼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